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새로운 우란분절 등이 곧 출시됩니다
찬덕언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5월 31일(음력 5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580 호

다보탑 · 석가탑 '본명' 아니다?

배진달 교수 논문서 주장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이름 없는 탑이다?

용인대 배진달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불국사 석탑에 구현된 연화장>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 진 다보탑과 석가탑은 창건 당시의 명칭이 아니라 후대에 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탄생한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1708년 회인 스님이 정리한 <불국사사적>과 1740년 동은 스님이 찬술한 <불국사고금창기>가 나오기 전 두 탑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보탑과 석가탑은 3백년 전 주관적 해석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것.

하지만 동국대 문명대 교수 등 관계사학자들은 "<불국사사적> <불국사고금창기> 등에 두 탑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원래 이름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국민 종교구성비

불자 10년새 0.4% 감소

불자수 1천72만6천명, 전체인구 대비 22.8% … 증가한 종교인 92.5%가 가톨릭

통계청 '2005 인구 총조사'

지난 10년간 불교 신자는 3.9% 증가했으나 종교별 구성비로 볼 때 0.4% 감소했다.

이에반해 가톨릭 신자는 514만6000명으로 95년의 295만1000명보다 74.4%(219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10년 동안 증가한 종교인구 237만3000명의 92.5%를 차지하는 규모다.

통계청이 5월 25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기준 불교 신자는 1072만6000명으로, 전체인구 4728만9000명 중 22.8%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1995년 1032만1000명에 비해 3.9%(40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별 구성비를 볼 때 95년 23.2%에서 0.4% 감소했다.

전체인구중 10.9%를 차지한 가톨릭은 종교별 구성비에서도 95년 6.6%에 비해 4.3% 상승했다.

개신교 신자는 861만6000명으로 전체인구 중 18.3%를 차지했지만, 95년 876만명에 비해 1.6%(14만4000명) 줄었다. 종교별 구성비에서도 95년 19.7%에 비해 1.4%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많은 종교인은 원불교 신자였다. 13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 차지했지만 지난 10년간 49.6%(4만3000명) 증가했다. 유교 인구는 10만5000명으로 0.2%. 지난 10년간 50.4%(10만6000명) 감소했다.

한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497만1000명으로 1995년 2259만8000명보다 1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에서 종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50.7%에서 53.1%로 올라갔다.

성별 종교 인구를 보면 남자는 49.7%, 여자는 56.4%로 여자가 6.7%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종교인구 비율은 남자 50대~60대, 여자 60대~7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종교 인구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호남에 개신교 신자가 많았고, 영남과 강원 충청권에 불교 신자가 많았다.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지역 인구 대비 개신교 신자 비율이 모두 20%대인데 비해 불교와 가톨릭 신자 비율은 10%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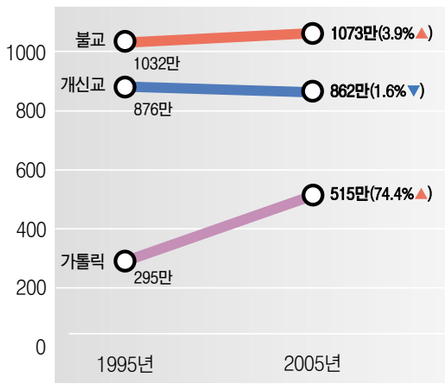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에서는 불교 신자가 33~4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는 평균 10%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결과는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조사원 면접, 응답자 기입 및 인터넷 조사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다. 관련기사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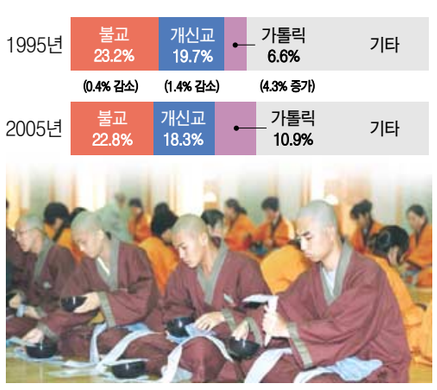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교인구 변화

(단위:명, 괄호는 종교별 인구 증감 추이)



종교별 구성비 변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내장산 선원 조실 동성 스님



시방세계 9면
4대 종교인 축구대회 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한국장애인복지회 하상춘 회장
경승활동의 현주소 4면
순창고추장의 원류 '만일사' 7면

"사찰도 전문경영 필요하다" 실천불교승가회 日 사찰 견학보고서 내

문화 · 신행기능 확대 · 조화로운 불사
신도중심 운영이 성장 · 변화 '동력'

산중 사찰의 본격적인 도심 진출이 이뤄진 1980년대. 도심포교당 건립은 도시가 발달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었다. 이 시기 불교는 '주먹구구식' 사찰운영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성장했고, '주먹구구식' 사찰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불자들의 의식은 불교에도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사찰 운영도 전문적인 경영이 필요해진 것.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와 함께 사찰경영 연구를 올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가 5월 16~20일 일본의 사찰을 견학한 뒤 '보고서'를 내고 사찰의 경영전략 개발을 주문하고 나섰다. 견학단에는 토진 일문 의연 법경 우진 도문 스님 등 17명이 참여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견학보고서를 통해 수행 중심의 공간인 한국 사찰이 문화 · 신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일본사찰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한국 사찰들이 최근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찰에 국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불사, 신도 중심의 사찰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됐다.

견학단으로 참가한 의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전통사찰에 새로운 불사를 할 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끌어낸 일본 사찰의 특징은 일본불교의 안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며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배워야할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스님 위주인데다 공간적 제약이 심한 한국 사찰이 신도생활 · 신행활동 공간을 확보해 교세를 유지하는 일본불교를 본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수국사를 사찰경영 연구를 위한 시범사찰로 지정한 실천승가회는 사찰의 운영과 관리, 사찰경영 모델 연구, 사찰재정 확충 방안, 신도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국사 주지 토진 스님은 "종단과 사찰에 수익을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토진 · 일문 · 의연 스님 등 실천불교승가회 일본견학단이 가마쿠라대불 영빈관에서 일본사찰의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실천불교승가회

"달라이 라마 방한 이뤄져야"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 기자회견

"비폭력 평화운동을 실천해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달라이 라마 방한은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6세계종교지도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연기영)가 5월 25일 달라이라마 방한 발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연기영 준비위원장은 "2006 세계종교지도자대회는 순수한 종교 문화행사로 세계종교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고, 2006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역시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모임인데 달라이 라마만 배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원심원사(元 深源寺) 6.25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위령대재


소실되기전 원심원사 전경사진(1940년)

연천 원심원사는 고구려 보장왕 6년(서기 647년)에 최초로 창건되어 6.25한국전쟁의 병화로 소실되기까지 약 1300여 년간 수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장성지로서 호국불교의 중심역할은 물론 중생들에게 무한한 귀의처가 되었던 민족의 성지였습니다.

이제 원심원사가 분단이 낳은 아픈 상처를 딛고 반세기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1300여년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법맥이 계승되는 최고의 전법수행도량 및 호국영령을 천도하는 호국통일의 성지를 이루고자 복원불사의 큰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심원사를 거쳐 가신 조사스님들을 비롯한 선지식들과 6.25한국전쟁을 비롯한 유사 이래 수많은 병란(兵亂)을 통해 산화한 호국영령 및 유주무주 고혼영가들을 천도하여 국태민안 및 남북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생지장도량인 보개산 원심원사 복원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발원코자 이 성스러운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 뜻 깊은 법회에 동참하시어 스님들과 함께 호국영령을 위해 금강경을 독송해 주시고 이 인연공덕으로 가내 평안하시며 구경성불하기를 발원합니다.

원심원사 호국영령위령대재 일시

• 불기2550년(2006) 6월 13일(화) 오전10시 ~ 오후3시30분
1부 호국영령 천도의식 : 오전10시 ~ 오후 1시
2부 호국영령 위령법회 : 오후 2시 ~ 오후 3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법어)
3부 호국영령 봉송의식 : 오후 3시

동참금 : 무료

※ 1부 천도의식은 전문 범패의식인 영산재로 봉행합니다.
※ 문의 : 수안사 02)587-4677, 3213 Fax. 02)522-5666
원심원사 031)834-8467, 8469 용진신행회 02)2279-1191

찾아오시는 길 원심원사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54번지

서울 → 자유로 → 문산방향 → 전곡 → 연천 → 동막골유원지 → 8565부대 → 원심원사
서울 → 의정부 → 동두천 ↗ ↖ 영중 ← 일동 ← 구리

※원심원사행 관광버스를 당일날 무료로 운행하오니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 조계사 앞, 봉은사 앞, 수안사 앞 : 출발시간 오전 7시
경기도 연천역 ↔ 원심원사 : 수시로 관광버스 운행
[의정부역(신탄리행) 기차출발 : 오전 7시20분, 8시20분 출발 연천역까지 1시간 소요]
※연천 동막골유원지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10Km거리에 있는 8565부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일날 동막골유원지입구 사거리와 8565부대입구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개산 원심원사 주지 박세민 합장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국민종교 구성비 '불자 감소' 보는 불교계 시각

'충격…올것이 왔다' 분위기속 자성 목소리

"열악한 포교여건 극복…인재 안 기르면 더 심화"

'생로병사' 함께하는 종교, 이미지 개선 노력도

통계청이 5월 25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종교분야 분석결과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적'으로 나타났다. 소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10년 전인 199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불교의 정체, 개신교의 퇴조, 가톨릭의 대약진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종교의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개신교나 가톨릭을 기독교라는 한 묶음으로 보면 갈수록 불교가 외래종교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홍보실 허영엽 신부는 가톨릭의 비약적인 발전 배경을 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별 '소공동체 운동'에서 찾았다.

허 신부는 "교구자치제가 명확하게 확립된 가톨릭은 통 · 반 단위까지 본당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목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을 겨냥해 사회복지와 대사회적 활동이 늘면서 가톨릭의 대외적 이미지를 재고하고, 체계적인 입교 시스템으로 신도교육 강화에 나선 것도 주효 했다는 분석이다.

불교의 정체 이유가 가톨릭이 갔던 길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의 분석을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일관 스님은 "한마디로 포교를 열심히 안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님은 "종단 내적으로 보면 종단과 '본사-말사 간 네트워크'가 안돼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포교를 위해 본사를 독려하려고 해도 본사에 포교예산이나 인력이 없다"며 열악한 포교 현실을 꼬집었다.

또 "하루빨리 투자 개념을 갖고 조직력을 갖춰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가톨릭에 비해 공동체적 사고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다른 종교는 출생하면 성장해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종교라는 울타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반해, 불교는 그러한 면이 부족한 것 같다"며 "불교가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는 "불교는 희생적인 모습도 없고, 신도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없다"고 혹평했다. 최 교수는 "포교현장에서 만나는 스님들의 위기의식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스님 중심으로만 불교가 계속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며 "스님들이 지금보다 더 낮은 곳에서 희생하겠다는 의지와 각성이 없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또 "1998년 국민적 실망을 안겼던 폭력사태와 최근 황우석 사태에 불교계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부 불교계 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스님도 스님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수행과 포교가 양 수레바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님들도 각자 역량 맞게 농어촌 · 도심 청소년 · 군인 · 장년 등 지역과 계층별 포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중 종교의 동서구도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하다"며 "영남권에서 불교세가 강하고 호남권에서 기독교세가 강한 역사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정치의 동서구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종교계에서 연구해볼 만한 과제다"라고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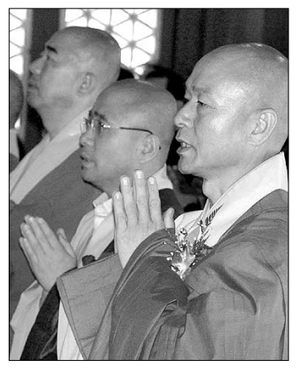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사단 곽명희 부단장은 사회복지 등 불교가 사회에 접목시킬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통계청 조사결과 발표로 각 종단의 포교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불교계는 한시바삐 현 위기상황을 돌파할 전략을 찾아야 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불신의 벽 허물고 발전 모색"

영배스님, 동국대 이사장 취임식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겠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3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영배 스님(사진 오른쪽)은 5월 2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취임 고불식에서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도전과 시련은 학교 구성원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배 스님은 또 "대학 사회가 속도 있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교육정책 또한 대학에게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학의 변화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학교 구성원 간 많은 불신의 벽을 느꼈다"는 영배 스님은 "불신의 벽을 해소하면 통합은 어렵지 않다. 임기 중 대화와 소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배 스님은 이 외에도 "지난 3년여 동안 법인은 갈등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사회는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불식에는 동국대 이사 영담 정념 혜림 스님, 감사 상운 스님, 정각원장 진월 스님, 홍기삼 동국대 총장, 원용선 총동창회장, 정성전 총학생회장과 주요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영배 스님의 취임사는 이메일과 동영상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달됐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해외포교 '잰걸음'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사진)의 해외포교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도영 스님은 5월 14~20일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불교도대회에 참석했다. 17일 현지에서 열린 대회에서 각 불교국가 대표와 스리랑카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분간 축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궁에서 마힌다 라자파크세 대통령으로부터 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타운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18일 도영 스님은 캔디의 불치사를 방문해 아스기리아 종정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계종과 아스기리아 종단 나아가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도영 스님은 16일 조계종 복지타운 부지를 방문한 뒤 인근 베야고다 초등학교를 둘러보며 학교 발전기금 10000루피를 전달했다. 도영 스님은 또 중국 내 한인불자의 현지법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 9~12일 베이징을 방문한다.

도영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관계자 7명은 9일 중국불교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한 뒤 만월사를 참배한다.

11일 오전에는 광제사에서 중국내 한인불자 연합수계식을 봉행하고, 오후에는 '중국불교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중국 각 지역 사찰관계자들과 연합 간담회를 한다.

남동우 기자

해외 장학승 선발

조계종 교육원, 석사과정 대상

조계종 교육원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불기 2550년도 해외 장학승을 선발한다.

해외 장학승은 해외 정규대학 석사과정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조계종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장학금 신청서 △수행이력서 △대학원 재학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보고서 등을 첨부해 6월 1일~7월 20일까지 교육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고서 공통주제는 '간화선의 국제화 방안'. 신규신청자는 '유학지역 불교현황과 이에 따른 한국불교 포교방안'을, 기 장학 수혜자는 '유학 국가(지역)의 불교관련 정책과 포교방안' '유학지역의 한국불교 현황과 포교방안' '해외 유학승 육성 및 활용방안' '불교학 관련 연구분야 내의 자유주제'를 주제로 해도 된다.

전형방법은 서류 및 보고서 심사이며, 올 8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02)2011-1800 남동우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권위' 상향 조정

올부터 조계종 단독주최, 운영위원 위촉

옛 보리방송문화상의 권위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계종이 주관해온 ''불교언론문화상''이 명실상부한 종합언론 문화상으로 변화한다.

조계종은 그동안 방송에 한정됐던 시상분야를 신문과 출판 등으로 확대하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5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임 운영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들은 원택 스님(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김재일(사단법인 보리 대표) △박광서(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권순일(안국선원 신도회 상임부회장) △김기량(안국선원 신도회 부회장) △박준영(방송위원) △공종원(불교언론인회 회장) △문효선(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위원)이며, 당연직 운영위원으로는 문화부장 탁연 스님(위원장), 기획실장 동선, 포교부장 일관,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학담 스님 등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준영 위원은 "신매체에 대한 이웃종교들의 준비가 활발한 상황에서 불교계의 움직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불교가 미래의 대안사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매체를 준비하기 위해 불교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관 스님은 "결국은 포교의 문제며 시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불교가 먼저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하고 "위원들이 많은 방안을 만들어 제시해주면 종단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2월 6일 열린다. 조용수 기자

한마음선원 '최우수상'

붕축위 연등축제 평가결과

한마음선원이 올해 연등축제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수상했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매년 연등축제에서 불자다운 화합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등과 장엄등을 아름답게 제작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해오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4월 3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개인등, 연희단, 장엄등 등을 배치해 체계적이고 화려한 거리 행사를 펼쳐 봉축상 수상 단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연등상에는 능인선원과 도선사, 정진상에는 진각종을 비롯한 4개 단체, 보현상에는 개운사를 비롯한 11개 단체 등 총 21개 단체가 수상했다.

원력상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5개 단체가, 개인별 시상은 전영일 공방대표 전영일씨 등 8명이 수상했다. 조용수 기자

마곡 · 불국사 산중총회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각)가 6월 10일 연화당에서, 제11교구 불국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타)가 6월 16일 무설전에서 신임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각각 연다.

산중총회는 승랍 5년 이상의 교구소속 재적승, 1년을 경과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비구, 교구말사 주지 비구(니), 승랍 5년 이상으로 교구 선관위로부터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거주 사실이 확인된 스님 등이 참석 대상이다.

산중총회는 각 사찰에서 당일 오후 1~4시까지 열린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도문화와 중국문화의 만남에 핵심역할을 했던

현장법사와 '담마로드〔실크로드〕구법의 길' 21일

담마로드에 대한 이해와 순례는 동양인의 필수교양이기에, 저희 회사에서는 현장법사 탄생 1406주년을 맞이하여, 인도문화와 동방문화가 오고 간 옛길을 순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佛子라면 인도 불교성지 순례를 마친 후, 가야하는 첫 번째 필수코스이기도 합니다.

이 뜻 깊은 길을 가보지 않고는 아침저녁 올리는 예불〔七頂禮〕의 여섯 번째 뜻이 우리 가슴에서 고스란히 다 살아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번 순례에 동참하시어 여름휴가와 방학을 더욱 뜻 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실크로드여행사 대표 법홍거사 이상원 합장배례

- 동참인원 : 21명(접수 순에 의함)
- 순례비용 : 350만원
- 계약기간 : 6월 15일(목)까지
- 계 약 금 : 50만원
- 문 의 : 02)720-9600

※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여행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순례는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번 순례에는 송암스님이 지도법사로 동행하여 신앙과 불교사의 이해를 도와 줍니다.
3. 실크로드의 불교적 이름은 담마로드입니다. 담마로드를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면 '전법의 길'이고, 중국에서 인도로 가면 '구법의 길'이 됩니다.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일정내용
제 1 일 7월04일 (화)	인 천 서 안	집결시간 OZ323	17:40 19:40 22:40	인천국제공항 3층에서 모임 출국수속 후, 인천공항 출발 중국의 서안 도착 후, 호텔로 이동, 호텔 투숙
제 2 일 7월05일 (수)	서 안 종남산 서 안	전용차량		현장법사와 신라 원측법사를 모신 법상종찰인 흥교사, 화엄종찰인 화엄사, 정토종찰인 향적사, 역경가 구마라집스님의 초당사, 율종의 도선대사가 주석한 정업사 등 종남산 부근의 불교성지 순례 후, 서안으로 귀환, 당대의 무용 및 쇼관람 과 교자연만두로 만찬 후, 호텔투숙
제 3 일 7월06일 (목)	서 안 천 수	전용차량 열차편		조식 후, 옛 수도 장안이던 서안의 대자은사 대안탑 순례 후, 세계8대 기적의 병마용갱 및 진시황릉, 화청지 등 관광 후, 열차편으로 천수로 향발, 도착 후, 호텔투숙
제 4 일 7월07일 (금)	천 수 난 주	전용차량 열차편		진나라 개국지 천수를 출발, 전용버스편으로 보릿단을 쌓은 듯한 맥적산 석굴(194굴-7천여불상) 순례, 다시 천수로 귀환 후, 열차편으로 난주로 향발, 도착 후, 호텔투숙
제 5 일 7월08일 (토)	난 주 돈 황	전용차량		조식 후, 전용버스편으로 유가협댐으로 이동, 유람선편으로 황하를 따라 천번만상의 황토고원 감상 및 10만불을 뜻하는 병령사 석굴 순례 후, 열차편으로 난주 출발
제 6 일 7월09일 (일)	돈 황 안 서 돈 황	전용버스		돈황역(유원) 도착, 돈황-안서의 사막지대를 통과하며 현장법사가 머물렀던 안서 경유, 유림굴 도착, 돈황과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불교석굴과 미술로 새로이 개방된 유림석굴 배관 후, 옛 실크로드를 따라 돈황 도착, 호텔투숙
제 7 일 7월10일 (월)	돈 황	전용차량		1500여 년 동안 조성된 사막의 대화랑인 돈황의 막고굴 도착 후, 석굴내 불교미술 배관, 사막의 고문 모래가 쌓여 산이 된 명사산과 3천년동안 마르지 않은 사막 속의 월아천과 돈황일대 관광 후, 돈황역으로 이동, 야간 열차편으로 투르판 향발
제 8 일 7월11일 (화)	투 르 판 우루무치	전용차량		투르판 도착 후, 손오공의 화염산, 현장법사가 머문 고창고성, 아스타나고분군 베제크리천불동, 교하고성, 지하수로인 카얼정 등 관광 후,우루무치로 향발, 도착 및 호텔투숙
제 9 일 7월12일 (수)	우루무치 쿠 차			조식 후, 천산으로 이동, 천산 도착 후, 천지의 유람선(승선) 관광 후, 다시 우루무치로 귀환, 우루무치 박물관 등 시내관광 후, 우루무치 출발, 쿠차 도착 후, 호텔투숙
제 10 일 7월13일 (목)	쿠 차	열차		천산남로의 요충지이며 역경가 구마라집스님의 고향인 쿠차, 키질 천불동 등 순례 후, 야간 열차편으로 카슈가르 향발
				Hotel | 야간 열차 침대칸 조, 중, 석
제 11 일 7월14일 (금)	카슈가르	전용차량 전용차량		카슈가르 도착 후, 카슈가르 시장, 이슬람모스크, 향비묘 등 관광 후, 호텔투숙
				Hotel 조, 중, 석

일자	지역	교통	시간	일정내용
제 12 일 7월15일 (토)	카슈가르 탁스쿠르칸	전용차량		조식 후, 카슈가르 출발, 카라쿨리 호수(3660m) 관광 및 파미르 고원을 달려 탁스쿠르칸 도착, 석두성 답사 후, 호텔 투숙
				Hotel 조, 중, 석
제 13 일 7월16일 (일)	탁스쿠르칸 소 스 트 훈 자	전용차량		조식 후, 출국수속 및 셔틀버스로 탁스쿠르칸 출발, 카라코람 산맥의 분차랍 고개(4733m)를 넘어 파키스탄국경 통과,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 소스트 도착, 파키스탄의 전용버스로 갈아타고 훈자 도착 후, 호텔투숙
				Hotel 조, 중, 석
제 14 일 7월17일 (월)	훈 자 길 기 트	전용차량		조식 후, 세계 최장수 훈자마을, 알티트성 훈자왕국 답사 후, 도중 라카포쉬(7788m) 설산 관망 후, 왕오천출국전의 소발륙국인 길기트 도착, 짚차로 가르가 마애불상 등 순례 후, 호텔투숙
				Hotel 조, 중, 석
제 15 일 7월18일 (화)	길 기 트 베 샴	전용차량		조식 후, 길기트 출발,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의 인더스강-길기트강 삼각 분기점 답사 및 남가파르팟(8천m급) 설산 관망, 칠라스 고대 암각화 답사 후, 인더스 강을 따라 베샴 도착, 호텔투숙
				Hotel 조, 중, 석
제 16 일 7월19일 (수)	베 샴 스 와 트	전용차량		조식 후, 인더스 강을 따라 이어진 카라코람 하이웨이 및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길을 따라 베샴을 출발, 샹글라 고개를 넘어 간다라 불교의 번영지 스와트 도착 후, 호텔 투숙
				Hotel 조, 중, 석
제 17 일 7월20일 (목)	스 와 트	전용차량		스와트 고고박물관, 싱게르다르 탑, 갈레게 마애불, 사이두 사원지, 부트카라 사원지 순례 후, 호텔 투숙
				Hotel 조, 중, 석
제 18 일 7월21일 (금)	스 와 트 페샤워르	전용차량		스와트의 산악 사원지인 탁트이바히 사원 순례 후,페샤워르에 도착, 수많은 불상이 있는 페샤워르 박물관 견학 후, 호텔투숙
				Hotel 조, 중, 석
제 19 일 7월22일 (토)	페샤워르 탁 실 라 이슬라바드	전용차량		스와트 출발, 탁실라로 이동, 탁실라 박물관, 죠우리안 사원지, 모란모라두 대탑, 시르캅 도시 유적지, 다르마라지카 대탑 등 답사 후, 이슬라바드로 이동 및 호텔투숙
				Hotel 조, 중, 석
제 20 일 7월23일 (일)	이슬라바드 라 호 르 방 콕	전용차량 국제선		이슬라바드 출발, 라호르로 이동, 라호르 박물관, 라호르 성 등 관광 후, 공항으로 이동, 라호르 출발
				Hotel 조, 중, 석
제 21 일 7월24일 (월)	방 콕 인 천	국제선		방콕 도착 및 환승 수속 후, 방콕 출발, 인천 공항 도착 후, 해산
				기 내 식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진 · 은평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으로 선정

불교계 노인복지관들이 평생학습관을 선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도까지 행정자치구별로 평생학습관을 1관씩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다섯 군데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과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 등 불교계 복지관 두 곳이 평생학습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운영된다. 나머지 3곳은 서울특별시가 직영하는 개포, 강서, 송파구립도서관으로 선정됐다.

5월 25일 개소식을 한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내 은평평생학습관은 어르신을 위한 한글 및 컴퓨터 반, 법률학교, 검정고시 준비반, 지역 아동을 위한 아동서당과 독서클럽,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당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명지대 평생교육원과 교육협력 협약을 맺고 연계학점은행제도를 실시해 어르신들이 전문학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마련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도 지역주민뿐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월 9일 평생학습관을 열었다. 광진평생학습관은 '광진 브라보 아카데미'와 '광진 서포터즈 클럽' 등으로 구성된다.

이은비 기자

'비구니 수행전통' 포럼 6월1일 비구니회관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6월 1일 서울 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한국 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1부와 2부 발표회에서는 고대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조명하고 청규와 강원 변천사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하며 3부는 근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법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1부 발표에서는 이화여대 김영미 교수의 '삼국~고려시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을 포함해 3편의 논문이 소개되고 2부와 3부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의 '한국 비구니선원의 '청규'에 대한 고찰'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의 '한국 비구니 승가의 출가정신 확립에 대한고찰' 삼선승가대학 학감 수경 스님의 '근 · 현대 강원 변천사' 등을 포함해 10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노병철 기자

♪"목숨 걸고라도 전쟁은 막아야~"♪

日 우경화를 걱정하는 일본인 · 한국단체 나눔의 집서 한일 평화노래 교류행사



일본인과 한국인 양국의 민간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평화노래 교류행사'를 열었다.

"슬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 남은 목숨을 걸고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사랑, 사랑, 사랑/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낯선 일본인 가수가 통기타를 메고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바치는 사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작곡했다"며 "제목은 '사랑(愛)'이다"라고 서툰 한국말로 서두를 연 다음이었다. '사랑'이 할머니들의 가슴을 움직인 것일까. 그의 노래를 듣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눈시울을 훔쳤다.

5월 21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일본 우경화를 걱정하는 일본인들과 한국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일 평화노래 교류행사'를 가진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인 40여 명으로 결성된 '일본헌법9조 수호 한국방문단'과 흥사단, 창작21작가회, 안양사랑청년회, 평화박물관건립위원회,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한국인 민간단체 회원 40여 명이 모였다. '일본헌법9조'는 일본이 패전직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아 제정된 조항.

이들은 준비해 온 평화노래와 일본 고전극을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공연하고 서신을 낭송하는 등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일본헌법9조 수호 한국방문단'을 이끌고 '나눔의 집'을 찾은 일본인 가수 겸 평화운동가 기타가와 테츠씨는 "우리는 고이즈미 수상과 자민당의 행동을 비판하며 '가해를 반성하고 헌법 제9조를 지키자'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민간인들"이라고 소개한 뒤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써 할머니들께 사죄하고 일본 내에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방문이유를 밝혔다.

다케나카 유코씨(78세)는 한국어로 쓴 편지를 할머니들께 전달했다. 유코씨는 "일본이 귀국에 침략해 한국어를 빼앗으려 했던 역사를 사죄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1990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또 쿠보쿠라씨(57세)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는데 직접 만나 뵙고 감춰진 진실에 대해 들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일본으로 돌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힘닿는 데까지 전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경기도 광주=이은비 기자

한인유골 8 · 15전 1차 송환

韓日불교문화교류대회, 한 · 일 비구니스님 공식 교류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공동회장인 지관스님(오른쪽)과 이야바야시 스님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제27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회장 지관 · 이야바야시)가 5월 17~19일 양국 대표단 200여명이 모인가운데 일본 나가노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18일 '불교발전과 세계평화 한일 양국 불교계가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센코우지(善光寺) 본당에서 세계평화 기원 합동법요식을 봉행했다.

19일에는 '제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 합동위령재'가 일본 정토종 사찰인 우텐지(祐天寺)에서 열렸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희생자 유해가 봉안된 우텐지에는 모두 1135위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홍파 스님은 "유족이 확인된 165위는 8 · 15이전 한국으로 봉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측 정부관계자인 박승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이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동참해 정부차원의 실태파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골봉환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비구니 스님들의 공식 교류가 이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한일 양국 비구니들의 우호를 돈독히 하기 위한 활발한 상호교류를 제안한다"며 "한일 비구니 문화원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센코우지 법주 다까스까사 스님도 "한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을 환영하며, 대화를 통해 양국 비구니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남에는 수현 자광 혜원 일법 해운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임원들이 주축이된 한국측 비구니 스님들과 일본 측 비구니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저수지에 문화재 숨긴 도굴범 4명 검거

경북 의성에 있는 한 사찰의 5층 석탑 등을 도굴해 저수지에 감춘 도굴범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수성경찰서는 5월 20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도굴범들이 문화재를 감춘 청도군 풍각면 치산리 구지저수지를 수색해 석탑과 석불, 문관석 등 문화재 4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찾은 석탑은 경북 의성군 신평면 중율1리에 소재한 옛 절터에 있던 비지정문화재 5층 석탑으로 높이 160cm, 무게 150kg 정도로 비교적 작은 석탑이다.

노병철 기자

생태사찰 만들어봐요

사찰생태련 등 기행 · 교육

사찰생태연구소와 불교환경연대가 불자들의 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연이어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찰생태연구소(소장 김재일)는 6월 3~4일 봉화 청량사와 영주 희방사에서 '생태사찰 만들기를 위한 모니터링과 생태기행'을 떠난다.

이날 행사는 사찰 생태모니터링과 생태해설에 대한 시연, '생태시각으로 본 사찰문화'를 주제로 한 김재일 소장의 특강, 불교와 환경에 대한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02)745-5813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도 6월 17일과 24일 서울 진관사에서 각 사찰 스님과 종무원, 어린이 · 청소년법회 지도교사, 종립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불교생태교육 지도자 연수회를 연다. 사찰생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02)720-1654

박봉영 기자

차기총장 선출 '간선? 직선?'

동국대 재단-교수회 갈등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 선출 방법을 두고 법인과 교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 이종옥)와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이대원)는 5월 23일 서울 상록원과 경주 소강당에서 각각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반대 및 총추위 참여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같은 날 서울캠퍼스 직원 노동조합도 임시비상총회를 열고 차기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수회와 더불어 직선제를 실시하는 안건을 89.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직선제 실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했다.

법인 안과 관련, 교수회측은 "일부의 권력화된 세력이 차기총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즉 간선제를 택할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 어려운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간선제는 결국 소수에 의해 반민주적으로 운영될 뿐"이라는 것이다.

교수회측은 또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번 선거는 기존 직선제로 하고 차기 선거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 정관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밖에 없다.

그러나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교수회가 독선과 아집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사회 안은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종단 대표, 동문, 학생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 후보를 더 넓은 곳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영배 스님은 또 "현재 동국대는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시련에 직면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가 재정확충이며 둘째가 경영관리능력"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차기부터 규정을 제정해 적용하자는 논리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차기 총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교수회측은 교수회와 직원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선제', 법인은 교직원 · 종단 대표 ·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한 '간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강제철거 앞둔 무량사

5월 24일 함양 무량사 자연선원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달된 한 장의 최고서가 전달됐다. 한 달 뒤 이곳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통보였다. 강제 철거가 진행된다면 무량사 주지 정오 스님은 20년 가까이 수행정진하며 가꿔온 도량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다.

정오 스님이 무량사에 온 것은 1987년. 산주(山主)가 조그만 촌가를 보시한 이후 지금은 은행통나무로 조성한 3자 7치의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광전, 지장전, 요사채를 갖춘 도량으로 가꿨다. 당시 산주가 자비(自費)로 도로까지 내어주며 때가 되면 산 전체를 도량으로 가꾸자고 해, 스님은 그 약속만 믿고 서류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문제였다. 서류상으로 스님이 일군 도량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7년 전 산의 소유주가 갑작스럽게 바뀌고 산이 경매처분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경매가 진행될 당시 현 산주도 '절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 스님은 경매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의 믿음은 철저하게 외면됐고 법정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도량수호를 위한 1000일 기도를 입재하고 목숨을 걸고 도량을 지키겠다는 정오 스님이지만 법이 우선이고 서류가 힘을 쓰는 시대에서 도량을 지켜줄 울타리는 스님의 정진력과 불심뿐이다. 늦게나마 불자들에게 호소하며 산을 사서라도 도량을 지키겠다는 원력을 발한 지금, 전국의 불자들이 1불자 1평 사기에 동참해서라도 무량사가 수호되길 바라는 맘 간절하다.

또한 제2, 제3의 정오 스님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나 보시의 참다운 공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보시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법적 효력이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그 서류 절차가 불도량을 지키는 신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있기 때문이다. ■천미희 기자(부산 주재)

일붕대종사원적10주기추모 인류화합 세계평화 기원대법회

나무 불.법.승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포교의 선구자로서 일생을 마감하신 일붕 대종사 원적 10주기 추모대재와 아울러 대종사의 생전원력인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희망합니다.

◆ 추모법회 : 2550(2006). 6. 4. 오전 10:00
◆ 기원법회 : 2550(2006). 6. 4. 오전 11:00
◆ 장 소 : 서울 일붕선원 법당
◆ 문 의 처 : 02)394-9468 (종단 총무원)
02)395-6655 (일붕선원)

증 명 : 봉암

법 주 : 동명 청곡 원정 현공 법달 법묘

자문위원
고성 도찬 도배 도활 도진 도만 법만 자명 도운 효담 정봉 도응 법용 법진 월인 도원 대성 법광 관무 혜문 태허 무용 경호 혜진 법천 완호 진성 혜성 진성 혜국 혜진 운광 혜오 대덕 혜광 무위 규암 계전 광탄 만상 본자

지도위원
경공 고광 공덕 관무 관일 광순 금오 기명 기봉 기원 남용 대경 대공 대성 대원 덕명 덕산 덕암 도광 도명 도봉 도연 도응 도현 동월 두암 마제 명달 명연 몽룡 무상 무원 미산 법광 법교 법도 법련 법산 법연 법조 법철 법화 법현 벽산 보광 보덕 보선 보천 보하 보현 복장 선철 성공 성덕 성밀 성암 성오 성우 송광 송담 수연 수월 순담 영수 오룡 원명 원진 월연 월오 인선 일선 일암 일진 일초 왕연 자광 자림 자안 자행 정각 정법 정암 정원 정인 정안 제법 종산 지관 지명 지산 지승 지일 지혜 진공 철민 철종 청곡 청암 초혜 학림 해강 해담 해룡 해심 해운 해주 현각 현공 현수 혜관 혜도 혜산 혜삼 혜성 혜송 혜심 혜월 혜인 효봉 효일 산디마

봉행위원장 : 법우

봉행위원
강대연 강도현 강석태 강정순 강정희 강지오 강평식 강홍철 고금순 고성민 고승진 고오연 고은정 고인덕 고정길 고창식 고충준 공민중 곽영근 곽윤기 곽종환 권기순 권기주 권상탑 권영구 권영래 권진석 권팔만 김 숙 김 훈 김경호 김고경 김구희 김규덕 김규백 김근식 김금옥 김기석 김길섭 김남학 김대각 김대용 김동구 김동옥 김면암 김명숙 김명진 김문옥 김민구 김민현 김방일 김범수 법계화 김병락 김병철 김상문 김상술 김선태 김성규 김성대 김성숙 김수열 김숙자 김순배 김승억 김애숙 김양순 김양자 김영숙 김영창 김영희 김예섭 김완식 김용호 김우영 김원진 김응규 김인순 김일순 김자현 김재경 김정태 김정희 김종국 김준기 김진갑 김진명 김천용 김춘자 김태민 김태홍 김현갑 김현수 김현주 김형선 김형술 김혜영 김호연 김홍석 김휘진 김희기 김희덕 김희식 김희진 노순예 노연식 노효순 대련화 대륜심 대법화 대비심 마향숙 민병택 민영옥 박달선 박선희 박순남 박윤준 박일순 박정수 박정희 박창경 박태임 배병준 배옥화 법화심 변경자 변봉현 서길자 서동훈 서두수 서성택 서억석 서영애 서윤래 선양희 소영식 손정수 송이순 송종수 수월심 신덕승 신동기 신법운 안석분 안용숙 안용희 양순자 양혜옥 엄진영 연정희 연화행 염정섭 오금주 오수규 오혜자 우미란 우진혁 원기연 유영두 유향미 윤 섭 윤경배 윤성노 윤용암 이강옥 이경선 이경순 이기호 이명구 이명재 묘련화 이무자 이법화 이봉현 이삼순 이상준 이상철 이석근 이선재 이성숙 이성위 이손순 이순희 이영애 이장희 이재옥 이정원 이정환 이지혜 이창두 이창헌 이춘하 이태숙 이현정 임덕임 임순덕 임영자 임정심 임정이 임주화 임홍순 자비행 장순옥 장철호 장혜윤 전미선 전성자 조규현 조민숙 조방선 조선화 조애자 조은희 조희자 주원각 지경자 지계분 진공심 진철문 최갑연 최동식 최명자 최부금 최송식 최영희 최인선 한상오 한희정 허 경 허순애 홍봉오 황숙현 황재수 황현욱 남궁은숙 (가나다순)

■ 주관 : 일붕대종사원적10주기 추모대재및인류화합세계평화기원대법회봉행위원회 ■ 후원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경찰포교의 최일선 … “명예직이 아니랍니다”

경승 활동의 현주소

경승(警僧). 말 그대로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나아가 경찰 포교 전반을 담당하는 스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승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포교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명함’만 내세우는데 관심이 높은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단 차원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것도 경승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경승 활동의 현주소를 들여다 보면 ‘경찰포교’의 오늘과 내일이 함께 보인다.



경승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승단과 경찰불교회가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04년 12월 열린 인천 해양경찰서 창립법회 모습.

#“주1회 이상 포교 하는 자?”

조계종 법령집에 명시된 ‘경승령’ 제2조에 따르면 경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승려로서 종단의 소정절차에 의해 임용되어 임지에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포교를 담당하는 자’다. 명백하게 경찰 포교 업무를 수행하는 스님을 경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제5조에는 경승의 임무를 △경찰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법회 주관 및 불교 지도 등 포교활동 △대민 사회봉사활동과 대사회범죄예방활동 △경찰 유가족 및 부상자 간병 또는 위로활동 △각급 교정기관의 교정업무 참여 및 각종 법회 주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이 규정된 경승들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을까? 경승을 역임했던 대다수의 스님들이나 관계자들은 “경승의 30%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경승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행사엔 꼭 참가, 법회는 관심 밖

호남지역에서 십년이 넘도록 경승 활동을 하고 있는 A스님. 과거에도 그랬지만 스님은 요즘 특히 경승활동이 힘겹다. 함께 경승으로 위촉된 다른 3명의 스님들은 경승실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창립된 경찰불교회 회원들과의 만남도 기피하고 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스님들이 지역의 중요행사가 있을 때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A스님은 한 달에 한번 경찰불교회 회원들을 만나 법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찰 불자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스님은 “활동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경승 위촉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 스님들이 도대체 활동을 하려는 의지나마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충북지역의 B스님 역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최근 지역 경찰서에서 경승으로 위촉돼 시간을 쪼개 경찰 불자들과 만나고 있지만 정작 다른 경승 스님들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 C경찰서 불자들은 경승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C경찰서 불자회에 따르면 2005년 열린 총 마흔 한번의 법회 가운데 경승이 주관한 법회는 네차례에 불과했다. 대신 다른 스님과 재가법사, 포교사 등이 나머지 법회를 진행했다. 이름만 ‘경승’인 경우다.

또 서울 D경찰서의 경우 관내에 40여개가 넘는 사찰이 있지만 법회를 열겠다고 하는 스님은 단 한명도 없어 경찰불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불자들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물론 활발한 활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다. 충남경승지단(지단장 장곡)의 경우다. 지역 경찰불교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 산하 19개 경찰불교회 창립을 도운 충남경승지단은 관내 대전서부경찰서, 부여경찰서, 논산경찰서 등에 경승실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름만 경승’도 많아

지난해 조계종이 발표한 ‘2004년 종단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전체 경승은 808명이다. 이 중 조계종 소속 경승은 574명. 조계종 경승의 경우 경기도(126명)와 서울(78명), 경북(70명), 경남(63)명, 기타 지역 237명이 경승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개신교 경목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2001년 3월의 721명에서 87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앞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지 않은

범종단 기구 부재 … 재정 지원 거의 없어
경승단·경찰 관리 공조 안돼 현황파악도 못해
주지 인사시 가산점 제공 등 동기부여 해야

경승들이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서 관련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범종단 차원의 경승 포교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계종 스님 외에도 태고종과 법화종 등의 종단 소속 스님들이 실질적으로 경승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경승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1987년 창립됐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조계종 대한불교경승단(단장 도영, 조계종 포교원장 당연직)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5년 3월이후 지금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미약하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군 포교기구도 마찬가지지만 경찰 포교기구도 범종단차원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포교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재정 등을 공동으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 차원의 재정 지원도 절실하다. 조계종의 경우 2006년 포교원 전체예산 20여억원 중 경승 관련 예산은 27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승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승단 운영비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승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종단들도 조계종의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종단들이 경승 활동 자체를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따로 하지 않는다. 태고종의 경우 최근에야 경승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원행 스님(원주 구룡사 주지)은 “스님들이 자비를 들여 경승 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스님 개인의 원력으로 경승 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해촉 권한없는 불교계

종단이 경승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다. 일정기간 이상 경승 활동을 한 스님들에게 주지 인사시 가산점을 주거나 각종 소임을 맡을 때도 경승 활동이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경승지단장 장곡 스님은 “지역에서 경승 활동을 하는 스님 중에는 주지 등 여러 가지 소임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승스님이 교단 내에서 활동하는데 유리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활동이 부진한 스님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잿밥’에만 관심을 표명하는 스님들은 포교는 차치하고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경찰 불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승의 위·해촉 권한은 경찰에 있다. 경승단은 지난해 5월 경찰청에 경찰청 예규 제267호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중 경승 위촉·해촉시 경승단을 경유하도록 내용 개정을 요청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로 인해 경승 위촉은 아직까지 각 경찰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경승 담당 실무자는 “경승 위촉과 해촉을 각 경찰서별로 실시하다보니 전체적인 경승 활동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불회’와의 관계 개선도 과제

대한불교경승단과 대한민국경찰불교회와의 관계 개선도 빠뜨릴 수 없다. 경승 활동의 토대가 바로 경찰불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승단과 경찰불교회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다. 경승단 회의에 경찰불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다.

두 단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관계 설정’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경승단은 경찰불교회가 조계종 신도단체로 등록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경찰불교회는 경찰 내 동호회 모임이 특정 단체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여의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불교회 김진홍 상임법사는 “경찰불자들은 경승단이 불교회에 대한 간섭보다는 신행지도를 원하고 있다”며 “경승단이 종단을 초월해 구성되고 경승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 경찰 불자들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군과 함께 ‘전략적 포교 대상’으로 꼽히는 경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승들의 분발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한국불교여래종

입종 안내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최근 들어 본 종단에 제방스님, 법사님들에서 입종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입종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종자격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신도포교당을 개설하실 분, 불법홍포에 뜻을 가지신 불자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증사본 1매, 입종원서

총무원장 석혜안

행자〔예비스님〕모집

여래종에서는 행자(스님 및 전법사)를 모집합니다.
여래의 사도로써 중생제도에 관심이 있고 스님 및 전법사 수행자로써 생활하고자 하는 분을 모집합니다.

(입교 : 매년 음 6월에 교육실시)

교육원장 석보당 종찰원장 석명안

◆ 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
전화 043)731-2261 / 031)734-3205

분한신고 공고

한국불교 여래종은 종정예하의 유시 및 총무원, 호법원의 의결을 거쳐 종단 소속 각 사암 승려에 대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종단 각 사암의 주지스님 및 승려, 주지, 전법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고기간 : 2006년 양, 6월 1일 ~ 양, 6월 30일
2. 신고서류 : 이력서, 사찰전경사진, 사찰인감, 사진5매(여권용)
3. 접 수 : 분한신고 비용 3만원
4. 신고방법 : 총무원 방문접수 (공문에 있는 날짜에 방문하시기 바람)
5. 문 의 : 031)734-3205

※ 분한신고 미등록시 (2006. 6. 30까지) 자동제적 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0년(2006) 6월 1일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석혜안 호법원장 석법룡 교육원장 석보당

도반들에 올리는 공양 '기쁨 두배'

원효센터, 매주 목요법회 후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



원효센터 불자들이 법회를 마치고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펼쳐놓고 공양을 하고 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원효센터(주지 공파)에 가면 가족같은 분위기로 도반들과 즐거운 공양을 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5월 25일 10시 30분,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원효센터 3부 평신도 법회. 법회가 끝난 후의 풍경이 여느 사찰과는 사뭇 다르다. 공양을 준비하는 공양주나 당번이 따로 없다. 모든 사람이 법회에 열중한다 싶더니 법회가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에서 준비해온 공양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콩나물, 가지나물을 정성스레 준비해온 불자도 있고, 어떤 이는 무농약으로 시골에서 기른 채소라며 풍성한 푸성귀를 내놓기도 한다. 과일가게를 하는 불자는 판매개시도 하지 않은 최상품의 토마토, 수박을 골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도반들을 위해 준비 해왔다.

원효센터의 특이한 공양 문화는 남방불교,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두루 수행해온 공파 스님이 복덕을 짓는 한 방법으로 몇 년 전부터 정착시킨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 법속에서 만난 도반만큼 소중한 이들이 없다"고 늘 강조하는 공파 스님은 "법회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해 부처님께, 스님께, 도반들께 공양 올리는 이 마음이 바로 육바라밀 중 보시의 시작이니 법회가 지혜를 닦고 곧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파 스님이 복 짓는 방법으로 정착화

도량 유지 · 발전 위한 회비제 운영도

참여한 불자들도 "공부를 함께 하는 도반들을 위해 준비하는 음식이니 불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다"며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차츰 좋은 것만 보면 도반들을 생각하게 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원효센터는 독특한 공양문화외에도 '회비제'라는 또 하나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비록 부산의 법당까지 오지는 못하더라도 전국에서 회비를 보내오는 불자들이 있어 도량이 운영된다. 이는 대승기신론해동소, 장엄염불 등을 통해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킨 불자들이 다른 불자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량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원력을 담은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도반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며 '공부'의 터전을 가꾸는 원호센터의 공양문화는 신행의 또다른 즐거움으로 자리잡고 있다. (051)611-380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사하구사암련 사무소 개소

부산시사하구사암연합회(회장 남운)는 5월 24일 무료공양소 및 사하구 사암연합회 사무소 개소식을 봉행했다.

이날 사하구 사암연합회 회장 남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넓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작은 힘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사하불교 발전과 부처님의 사랑이 자라는 작은 쉼터로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문을 연 사하구사암연합회 사무소는 사하구 내 포교사업 뿐 아니라 그 동안 한국불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던 무료공양 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은아 기자

"불교문화사업 활성화에 앞장"

내원정사 약사회 윤병호 신임회장 취임



내원정사(주지 정련) 약사회는 5월 22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제5대 윤병호 회장(사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임원간담회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등 내원정사 약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윤병호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병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72년 창립되어 34년의 역사를 가진 약사회 회장을 맡아 영광"이라며 "앞으로 신도님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불교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을 바르게 실천하는 신도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내원정사의 크고 작은 일에 주인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임해온 약사회가 젊고 의욕적인 새 회장을 맞이해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불법을 널리 펴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국태민안 문화대재 봉행

참여불교운동본부 김해 연지공원서

(사)참여불교운동본부(이사장 혜총)는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김해 연지공원에서 민족 대단결과 국태민안을 위한 문화대재를 개최했다.

경남지부 창립법회를 겸해 열린 개막식은 혜총 스님을 비롯 경남지부 지부회장 청화 스님, 상임부회장 겸 김해지회 회장 법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창립법회에서 혜총 스님은 "참여불교운동본부 경남지부 및 김해지회 창립을 계기로 참여불교운동본부의 통일사업과 복지 사업이 한층 더 폭넓게 전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대재에는 민주통일 열사, 전몰군경 위령재, 전통 작법무 시연,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줄넘기 등 민속놀이 한마당,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도자기 물레시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환자들 뜻 모아 관음상 봉안

국립마산병원 관해사, 후불탱화도

국립마산병원(결핵요양소)의 관해사(주지 자운)는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 점안 법회를 5월 21일 봉행했다.

이날 봉안한 관세음보살상과 후불탱화는 병원내의 불자 환자 신도들의 모금으로 조성됐다. 점안 법회에 증명으로 참석한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철화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세음 보살님의 천수천안이 모든 병자들의 고통을 거두어 가고 희망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며 "쉼 없는 기도가 관세음 보살님과 만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점안법회는 태고종 경남교구 소속 스님들과 요양소 불자 환자,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영민 서부 경남 지사장

고산 스님 직접 범패 시연 '눈길'

제2회 쌍계사 산사음악회서



주장자를 쥐고 무대에 올라 거불성을 시작으로 삼보통청을 선보인 주인공은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쌍계사 조실인 고산 스님. 5월 20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쌍계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쌍계사 산사음악회에서 고산 스님이 직접 범패 시연을 보여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사진).

고산 스님의 무대는 범패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고산 스님은 "이제부터 내가 범패라는 걸 들려줄 텐데 이 범패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며 "노래가 있어 세상이 아름답듯 범패는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성공양"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스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와 함께 설명을 곁들이며 30분가량 공연을 이어갔다.

설명 곁들이며 공연

다맥 전수식도 봉행

진감선사가 섬진강에 뛰노는 물고기를 보고 팔음률로 어산 범패를 작곡했다 하여 '팔영루'라 이름 붙여진 전각이 있는 쌍계사는 '범패'의 발상지로 알려지고 있어 조실 고산 스님의 범패 시연은 더욱 관심을 모았다.

젊은 시절, 틈틈이 영남범패와 지리산 범패를 배워온 고산 스님은 작년에도 시연을 보였었다.

한편,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일환으로 한국선다회가 주최한 제2회 쌍계사 산사음악회는 '진공묘유'라는 주제로 전남대 국악과 학생들의 민요공연과 대금연주자 이생강씨의 대금산조, 이필원씨의 통키타 연주 등을 선보였다.

또한 21일 열린 진감 · 초의 다맥전수식에서는 쌍계사 강원 학인 지현스님과 김미현씨를 비롯해 31명이 고산 스님으로부터 다맥을 전수받았다.

글 · 사진/하동=이은아 기자

"제자들에 부처님 지혜 심어주자"

부산시 교사불자련 범어사서 합동법회

부산시 교사불자연합회(회장 강석표)는 5월 20일과 2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회원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유치원 교사를 비롯 초 · 중 · 고교 교사들의 모임인 19개 지회의 연합회인 부산시 교사불자연합회는 설동근 교육감,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법회를 열고 교사 불자들의 신심을 다졌다.

첫날 열린 입재법회는 설동근 교육감의 격려사, 대성 스님의 법문, 강석표 회장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강석표 회장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선생님들의 불심이야말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근간이 된다"며 "다함께 정진하여 스스로의 수행에 힘쓰는 한편 불제자를 길러내는 중심이 되자"고 말했다.

대성 스님은 법어에서 "인천의 스승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혀주셨던 부처님처럼 교사불자들도 제자들의 삶의 길을 부처님의 지혜로 채워주어야 한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합동법회는 입재식에 이어 예불, 참선, 신행담을 나누었으며 둘째 날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독송, 새벽예불로 진행됐다.

1998년 창립된 부산시교사불자연합회는 19개의 지회로 매년 장애우 체육의 날 행사 돕기, 상반기 특별대법회, 기도수련법회, 불우이웃돕기 등 법회와 수련회를 갖고 부산 시내 교사불자들의 화합을 도모해왔다.

천미희 기자

두송복지관, 일일 나들이 봉사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 두레박 봉사단(총무 유재균)은 5월 20일 다대포 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거동불편 장애인과 노인 20분을 모시고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 등지에서 햇살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부산교통공사 직원 18명으로 구성된 두레박은 2005년부터 매월 다대2동 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방문목욕,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장애인 일일 나들이 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국영령추모대제"

제 9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족상쟁에 의한 무주고혼 추모대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위령제

천연와불성지 지리산 견불사에서 제9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족상쟁에 의한 무주고혼 추모대재를 봉행합니다.

(사) 행복한사회 이사장 견불사 회주 대풍

-모시는 글

"빗발치는 이데올로기의 격전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호국영령들이시여!
이념의 총구 앞에 덧없이 쓰러져간 한민족의 선열들이시여!
이름 없이, 군번 없이 조국위해 낙엽 된 충혼의 넋들이시여!
역사의 책장위에 붉은 꽃수를 놓으셨네.
그 희생 간직하리니,
조국의 푸른 하늘과 치열한 교전의 이 터에 길이 남으소서.
더 이상 동족의 가슴에 눈물이 맺히지 않도록
더 이상 전쟁의 꽃이 만발하지 않도록
푸른 유월의 지리산 붉게 피어난 흰 줄쪽 속에
평화통일의 염원되어 영원한 자유 수호하소서.
임이시여, 이 땅의 주인 되어
영산의 포근한 흙 속에 웃으며 잠드소서."

1부 추모식 2부 국악한마당
3부 (천도의식)범음범패 4부 영화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추모대재"

6월의 신록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을
푸르게 물들입니다.

이름 모를 산새들과 뭇 생명들은
저마다 소리를 토하며 화합의 곡조를 이뤄냅니다.

하공의 새들에게도 길이 있겠지요.
물속의 고기에게도 길이 있고...

무심한 바람에게도 길이 있어
헛되이 풍경을 울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이 6월의
향연에 초대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낳은
길을 잃은 원혼들...

한국전쟁에 희생된 국군과 경찰, 미군, 인민군,
좌우익, 그리고 영문도 모르게 숨져간
민간인 희생자들의 영령들입니다.

그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인 지리산은
반세기가 넘도록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을 보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 천착해 화답 없는 혼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殤亦生 殤鬲不生'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殤生'의 미혹에서 벗어나
'相生'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하나 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 된 민족공동체의 밑을 일구자는 것입니다.

외람되이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냉전시대 희생자들의 원혼을 추모하고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단을
놓았습니다.

부디 왕림하셔서 한 잣술을 잇는
행사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0(2006)년 6월 6일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견불사 회주 대풍 합장

사단법인 행복한 사회 Happy Society
천연와불의성지 견불사

| 일 시 | 불기 2550(2006) 년 6월 6일 (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지리산 견불사 야외상설무대 | 주 최 |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지리산 견불사
| 후 원 | 불교문화민속예술단/연합불교신문/중국길림신문사/법화불교대학/사천왕사/불림사/성불암/승가공동체법화원/(주)국민상조/서원고속관광여행사
| 문 의 | 중앙회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30-5번지 일신프라자 4층 견불사 055)962-3931 서울 02)939-3900 부산 051)892-5000

(사) 행복한 사회는
첫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둘째, 자비와 평등의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셋째, 참 나를 찾기 위한 사회봉사단체입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인성발견과 효심을 일깨우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다섯째, 자연을 사랑하며 국토청결운동을 하는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참 나'를 위한 반딧불 캠프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문화기행 사찰체험


행복한 사회 대구지부 발대식


행복한 사회 대구지부 발대식


효 문화체험

활동내용
| 일 손 돕 기 | 복지시설, 공공기관, 병원, 농어촌, 학교내 일손 돕기
| 위 문 활 동 |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병약자, 자매부대 위문
| 지 도 활 동 | 청소년 사회교육, 교통 안전 지도
|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생활주변 정화 캠페인, 환경 보존 캠페인
| 자선 구호 활동 | 재해 구호, 불우이웃돕기, 헌혈 및 골수 기증,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결식아동 무료 급식지원, 노숙자 봉사활동, 독거노인 건강검진 지원봉사
| 환경녹색보존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국토청결 운동, 문화재 보호, 사회에 이익을 주는 공익적 활동.

※ 모두가 행복한 세상 '행복한사회'가 만드는 미래입니다.

참나사랑 | 부모사랑 | 자연사랑

견불사 오시는 길
함양I.C. → 함양I.C. → 휴천면사무소앞 → 서주삼거리 → 휴천주유소 ┐ 송문교→새동마을 2㎞ 견 불 사
생초I.C. → 생초I.C. → 화계삼거리 → 서주삼거리 → 휴천주유소 ┘ 용유담→새동마을 2㎞ 견 불 사

"피부색 달라도 마음은 한가족"

불교사회복지회, 대구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대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대구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불교사회복지회는 6월 9일 이천동 관오사에서 대구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며, 사회복지도 가족단위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불교사회복지회가 농촌가족의 1/3이 결혼이민자가족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를 우리 사회문제로 끌어안은 것이다. 2세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청소년문제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조사에 의하면 대구에도 4700여명의 여성결혼체류이민자가 있다. 대구에서 처음 운영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태화)는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상담, 자녀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건강한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가톨릭 문화관이나 근로자회관 효성병원 등의 민간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글교실과 같은 사업들을 지역사회네트워크로 엮어 정보교류는 물론 체계적 통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2세 교육을 위한 돌보미방 운영과 남구자활기관과 연계해 유료출산도우미를 저렴하게 연결해주는 사업도 생각중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베트남 등 불교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여성과 불자결혼이민자가족에게 종교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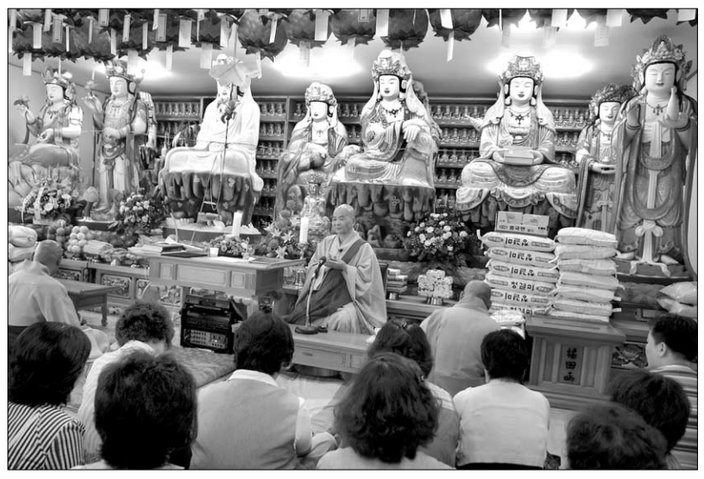
한국어 교육 · 자녀보호사업 등
가족문화 조기 정착 지원 펼쳐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것은 인식개선사업이다.

아직 수많은 한국인들이 단일민족이란 자부심을 가진 채 외국인에 대해 냉담하다. 특히 동남아시아권에 대한 불평등한 우월의식과 결혼이민자여성의 폐쇄성은 큰 문제다.

이민자가족지원센터 최은숙 실장은 "세계가 이미 열려있듯이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의마음과 폐쇄적인 이민자여성의 마음을 열수 있어야 한다"며, "대구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열린세계 열린마음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로의 마음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53) 475-2324

배지선 기자


대구 무량사 목관음보살상 점안법회에서 의룡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사진=배지선 기자

대구 무량사, 목관음보살상 36위 조성

대구에 2m 높이의 목관음보살상 36위를 조성하는 관음도량이 있어 화제다.

대구 대명동 우리절 무량사(주지 일우)는 5월 25일 무량사 조실 의룡 스님과 서울 강동구 사암연합회장 덕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가운데 백의, 유리, 마광부관세음보살 등 목관세음보살상 7위를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했다.

17년 전 관음성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원으로 대구에 무량사를 창건한 일우 스님은 4년 전부터 36위의 목관음보살 봉안불사를 시작해 이미 5위의 관음보살을 봉안했다.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는 32응신 관세음보살을 비롯해 11면관세음, 천수천안관세음, 용두관세음, 본존관세음보살 등 36위의 목관세음보살을 모두 봉안하고, 성주 성산리에 1만평 규모의 관음성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군위 인각사, 문학작품 공모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가 전국 초 · 중 ·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생명, 석불, 인연 만남을 시제로 운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공모하며 공모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수상자 발표는 7월 15일 개별통지하며, 시상식은 8월 1일 오후3시 인각사 경내에서 열린다. 인각사는 일연문화상도 제정했다. 발표는 7월16일. (054) 383-1161

배지선 기자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 개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글짓기, 디지털 카메라 촬영대회인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이 5월 21일 대구월드컵 경기장 일원에서 열렸다(사진).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와 사단법인 동련 대구지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과 '동심' '부모님'을 주제로 그림, 글짓기, 디지털 카메라 촬영부문에서 숨은 솜씨를 발휘하며 꿈을 펼쳤다. 또, 오후에는 사단법인 동련과 함께하는 흥겨운 전래놀이가 펼쳐져 공기놀이, 딱지치기, 신발던지기 등 15가지의 전래놀이를 체험했다.

한편 이날 행사의 수상자는 29일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www.dgbbs.co.kr)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6월 3일 오후3시 능인고등학교 강당에서 실시된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포교원 지역포교 활성화 작업 결실

합천군은 지금 '불교대박'

경찰·공무원 불자회 새출발
파라미타 지회 3곳서 결성

지난 4월 조계종 포교원이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경남 합천군, 서울 노원구, 인천 등 3개 지역을 샘플로 정하고 조직화 작업에 들어간 결과 합천군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목된다. 6월 3일 오후 4시 합천군청 불자회장 취임법회가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릴 예정이며, 6월 중 합천경찰서 불자회가 창립되고, 야로고등학교, 해인중학교, 묘산중학교를 중심으로 파라미타 경남지부 합천지회도 결성된다.

합천지역 공무원불자회는 이지성 합천읍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또, 경찰불자회는 아직 회원수가 많지 않지만 공무원불자회와 연합법회를 봉행하면서 키워나갈 예정이다.

합천군 포교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연호사 주지 진각 스님은 "취임이후 매년 2천만 원 이상을 지역학생들을 위한 포교사업비로 충당해온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포교국장 본오 스님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진각 스님은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작업이 어느정도 틀을 갖추면 지자체와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복지는 물론 지역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일궈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합천군민들의 생활속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씻겨드리며 가르침 실천

영남불교대 목욕봉사단

5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대구 남구 현대요양병원에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7명의 불자들이 나타났다.

대구에서 처음 목욕봉사를 시작한 불자신행봉사단 영남불교대 목욕봉사단(단장 도재권)이 중증장애환자 목욕봉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11년 전 2명의 뜻있는 불자가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실천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영남불교대학 졸업생이 아닌 불자들의 동참까지도 이끌어내면서 80여명의 회원이 팀을 이뤄 곽병원과 대구시립의료원, 보훈병원 등 대구시내 6개 병원과 군위에 있는 복지관 성주, 다사의 재가자 목욕봉사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다.

초파일과 연말에는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떡과 과일을 준비해 병원을 찾아 다니며 환자위문에도 나서고 있다.

대구시내 6개 병원서 중증장애 환자 목욕
초파일·연말엔 환자 위문… "힘들지만 보람 커"

일주일 만에 만난 회원들은 반가운 인사도 잠시 인원을 확인한 후 곧바로 2층과 3층 샤워장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각자 준비해온 '작업복(반소매에 반바지)'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두르며 전문 목욕봉사단으로 변신했다.

"자 어르신, 오늘도 우리가 편히 뫼시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혼자 거동하기 힘든 중풍, 간암말기, 치매 등의 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새 옷을 챙겨들고 간병사의 도움을 받아 차례로 샤워장 앞에 모여들었다. 봉사자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자 어서 오시소. 어르신은 오랜만에 오셨네예. 얼굴도 많이 좋아 지셨네예."

어르신을 대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고 어르신들도 편안히 몸을 내맡긴다. 휠체어에 탄 어르신을 가뿐히 안아 샤워장 침상에 편안히 모시는 이들의 손놀림이 재바르면서 부드럽다. 머리를 먼저 감기고, 굽은 팔은 살며시 주물러 펴 드린다. 환자를 대하는 봉사자의 손길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치밀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 뼈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하고, 봉사자들의 호흡이 서로 잘 맞아야 한다.

"참 고맙지요. 얼마나 편안하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개운한 모습으로 샤워실을 나서는 어르신들이 모처럼 생기를 되찾고 어눌한 말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영남불교대 목욕봉사단의 봉사 장면.

현대요양병원 목욕봉사팀장으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정선희(51 · 대구 송현동)씨는 봉사활동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자랑이다. "생활에 활력도 되고, 가족에 대한 감사함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됐다"는 것. 땀에 흠뻑 젖은 이관선(52, 대구 반야월)씨도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되다"며 활짝 웃어 보였다.

이벤트 사업에 종사하면서 거의 매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도재권 단장은 병원목욕봉사활동을 중요한 포교활동으로 생각한다.

항상 경전독송이나 법문테이프, 법보시 책자 등을 환자들에게 나눠주며 희망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는 도재권 단장은 "모든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달라이라마 특별법회와 간다라 · 라다크 순례



2006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4회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 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이번 특별법회를 통해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단순히 친견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며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깨우는 소중한 순간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불상의 탄생지이며 대승불교의 발생지인 파키스탄의 간다라 및 라다크 불교성지도 순례하는 구법의 여정에 인연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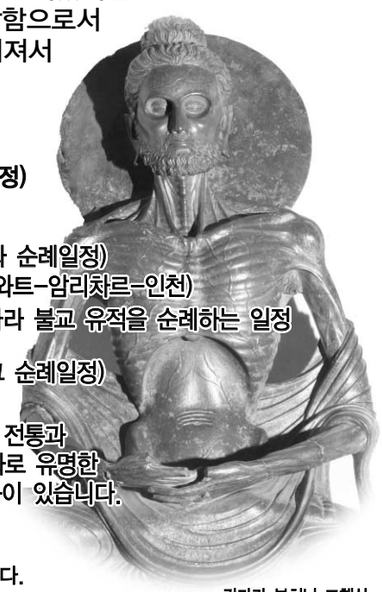
델리에서 다람살라로 갈 때 이전에는 버스로 16시간 소요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람살라에서 가까운 암리차르 공항으로 도착함으로서 버스 타는 시간이 5시간 줄어 들어 일정이 매우 편리해져서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8.13~8.21 9일간 | 동참금 195만원 (설법중심 일정)
(인천-인도 암리차르-다람살라-인천)

B팀 기간: 8.13~8.24 12일간 | 동참금 245만원 (법문, 간다라 순례일정)
(인천-인도 암리차르-다람살라-파키스탄 라호르-탁실라-스와트-암리차르-인천)
*법문을 듣고 부처님 고행상이 있는 찬란한 파키스탄의 간다라 불교 유적을 순례하는 일정

C팀 기간: 8.12~8.24 13일간 | 동참금 269만원 (법문, 라다크 순례일정)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레(라다크)-알치-델리-인천)
*법문을 듣고 라다크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라다크는 티벳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인도내의 작은 티벳으로 고색창연한 벽화로 유명한 알치사원, 예수님이 수행했다는 일화가 있는 헤미스사원 등이 있습니다.


간다라 부처님 고행상

참가신청 및 문의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우리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인기'


나주 불회사의 '비로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직접 차를 만들고 있다.

야생차로 구증구포 전통수제차를 만드는 '비로차 만들기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비로차 만들기'는 지난해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나주 불회사(주지 보인)가 올해 처음 선보인 프로그램.

불회사는 사찰에 머물면서 직접 야생 찻잎을 따고, 아홉번 덖고 비비는 전통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회사는 20여평 규모의 제다실과 포장실을 만들고 20여명이 제다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첫 공고이후 매회 정원을 훨씬 넘겨 그동안 1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5월 23~24일 서울 신세계 백화점 문화교실 수강생 40여명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김정선(46)씨는 "우리차를 마셔보기는 했지만 차나무를 처음 봤고,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봤다"며 "앞으로는 더욱 차 맛을 음미하며 마실 수 있겠다"고 템플스테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주 불회사, 비로차 만들기 4월이후 100여명 참가 성황

이처럼 참가자들의 입소문으로 희망자가 몰리자 불회사는 첫물차가 끝나는 6월 중순이후에는 '죽순따기 템플스테이'를 준비 중이다.

불회사 김경민 사무장은 "참가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아쉽다"며 "내년에는 시설을 정비해 더 많은 이들이 제다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61)337-3440

글 · 사진/나주=이준엽 기자

"참여와 변화로 희망주는 종무행정"

금명 스님, 태고종 13대 광주·전남 종무원장 취임



제13대 태고종 광주 · 전남 종무원장 금명 스님(사진) 취임법회가 5월 25일 광주 운천사에서 봉행됐다.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광주사암연 회장 혜향,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광산구불교협의회장 성오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정동채, 양형일 의원 등 지역 기관장,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종무원장 금명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도화합을 기치로 참여와 변화를 통해 희망을 제시하는 종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종무행정 전산화, 정토도량 불사전개, 생활불교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광주 · 전남지역은 태고종 유일의 총림인 선암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맥이 전해진 불국정토"라며 "신임 종무원장의 원력이 원만성취 될 수 있도록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사천왕상 종합 연구서 출간

6월17일 '한국학연구와 사지' 학술세미나도 열어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복장(腹藏)조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자료가 책으로 출간됐다. 한성대 강순애 교수팀이 1년 동안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고증은 물론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한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가 그것이다.

이 자료집은 송광사 사천왕상의 재조명과 복원, 발굴된 복장물의 이론적 연구 및 실사, 도판작업 등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집은 발굴물인 <법화경현찬회고통금신초> 권1?2에 관한 서지적 연구, 송광사 소장불서에 보존에 대한 연구, <묘법연화경현의> <법화문구기>의 각수고, 송광사 사천왕상의 방위문제와 조성시기, 송광사 사천왕상의 제작기술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한편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은 6월 17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한국학연구와 사지(寺誌)'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광사 사고(史庫)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세미나는 송광사 사고의 편찬과정과 자료가치(조명제-송광사 박물관), 고려 조선시대 선종의 전개와 송광사 법중(法衆)의 추이(원경 스님-송광사), 송광사사고 산림부 자료의 내용과 가치(정용범-송광사 박물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준엽 · 노병철 기자

영국사, 분청사기등 유물출토

충북 영동 영국사(주지 청원)에서 분청사기, 와관, 이형기와 등 와전류와 문고리 등 철제류를 포함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영국사 복원을 위한 주변 발굴조사를 벌이고 있는 충청대 조사단은 5월 21일 2차 발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금동불상 등 증요 유물이 출토된 이후 2차 조사에서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영국사의 역사적 중요성이 거듭 확인된 셈"이라며 종합 복원불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영국사는 1차 조사 건물지와 2차 조사 건물지 등 주변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복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창작 국악극 '구지이야기' 공연

정읍 정토사, 6월 3일 문화마당서

정읍 정토사(주지 원공)가 6월 3일 오후 7시 경내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정토문화마당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는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타루'가 출연해 창작 국악극 '구지 이야기'를 공연하고 판소리 눈대목을 소개한다.

타루가 공연하는 '구지이야기'는 지구와 정반대의 성(性)구조를 지니고있는 붉은 별 구지에 사는 철순이가 지구에서 자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여성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국악극이다. (063)537-9222

이준엽 기자

법주사 '영한대역불교성전' 보시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에

특1급 호텔인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의 객실에 <영한대역불교성전>이 비치된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5월 25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로비에서 호텔 객실에 비치될 영한대역불교성전 320권을 호텔측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법주사 총무국장 각밀 스님과 포교국장 각우 스님, 안석찬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총지배인, 임은정 홍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전달된 <영한대역불교성전>은 호텔투숙객인 내외국인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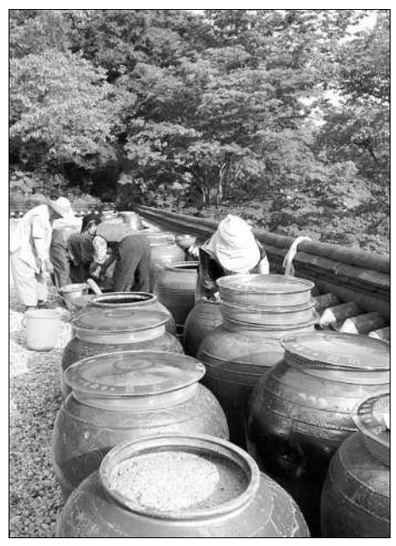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생활 속 불교문화

순창고추장의 원류 만일사

무학대사·이성계가 발굴 '천하일미'


만일사 스님과 신도들이 장을 담그는 모습.

회문산 8부능선에 위치 물·바람·햇볕 최적

고추장은 지역마다 제조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예로부터 순창에서 만들어진 것을 으뜸으로 쳤다. 순창고추장은 달거나 맵거나 짜지 않으며 담백하고 감칠맛이 입안에 남아, 조선시대에는 왕에게 진상했던 식품이다.

임금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랑받아온 순창고추장의 유래는 회문산 만일사이다.

"고려 국운이 쇠퇴해지자 이성계가 무학 대사와 조선 건국의 뜻을 품고 팔도 명산대찰을 찾아 기도를 했다. 그런데 팔도 산신령들이 모두 건국을 허락하는데 유독 회문산 산신령만이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회문산 산신령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다. 백일 되던 날 밤, 마침내 꿈에 산신령이 현신하여 '천일향을 시주하고, 백성을 다스리지 말고 섬기도록 하라'고 했다.

하루는 마을에서 점심을 먹는데 고추장 맛이 일품이었다. 그 후 이성계의 밥상에는 반드시 순창고추장이 올랐다.

훗날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물려준 이성계는 왕권은 얻었으나 평탄하지 못한 신세를 한탄하다가 회문산 산신령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혹여 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하여 회문산 사찰에 구천일향을 시주해 만일향을 채우고 함흥으로 떠났다. 이 절은 이때부터 '만일사'로 불리게 됐다." <구비문학/설화>

한국전쟁 당시 회문산에 북한의 남부군 총사령부가 자리했다. 만일사도 집중포화로 모든 것이 소실됐다. '이성계와 고추장'에 얽힌 사료도 사라지고, 훼손된 중수비만 남았다. 순창군은 비바람에 마모된 비문에서 '태조대왕'과 '무학'이란 단어를 찾았고, '순창고추장' 설화의 근거로 내세웠다.

흔히 고추는 임진란 이후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 한다. 그렇지만 순창에서는 '만일사 설화'를 근거로 고려 때부터 고추장을 담갔다고 주장한다. 최근 '만일사 중창 사적기' 찾기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최근 순창군은 장류연구와 보급에 힘쓰고 있다. 본래 순창은 옥천(玉川) 고을이었다. 이름만큼이나 물맛이 일품이다. 또한 서해안 염분과 지리산 바람이 만나는 지점으로 발효균이 활동하는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에서 순창사람이 고추장을 담가도 제 맛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순창에서도 회문산 8부능선에 자리한 만일사에서 담근 고추장을 최상품으로 친다. 비법은 물, 바람, 햇볕의 조화이다.

금년 들어 만일사도 된장과 고추장을 담갔다. 무더위가 찾아오는 6~7월경이면 제 맛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내친김에 내년에는 '고추장 담그기 템플스테이'도 구상하고 있다. (063)653-5283

순창=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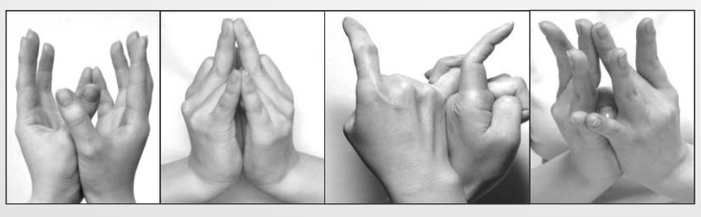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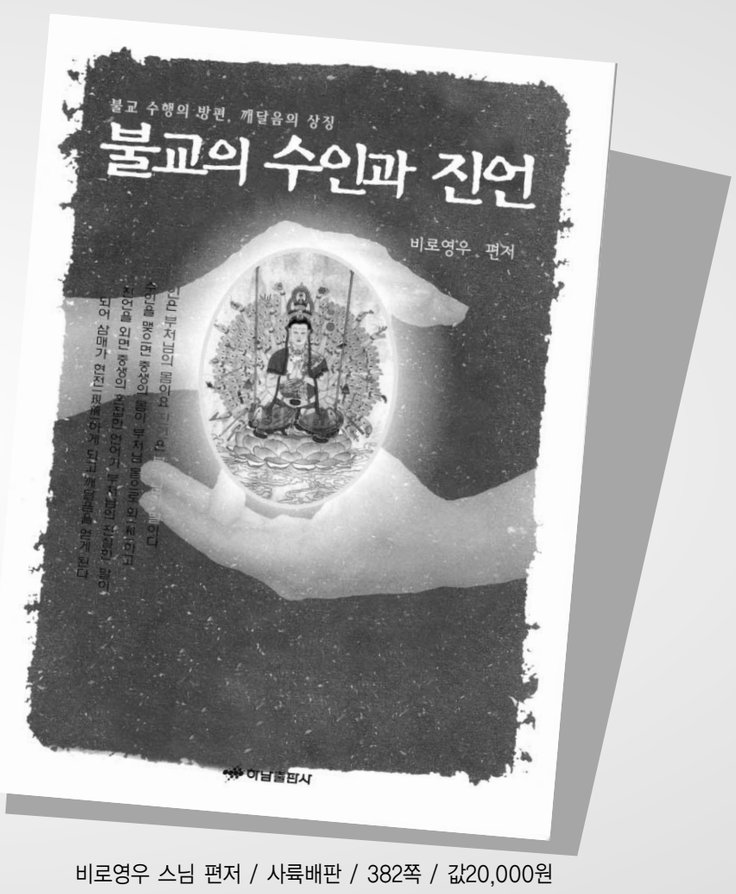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밀|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有|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매|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영우 스님 편저 / 사륙배판 / 382쪽 / 값20,000원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TEL. (02)720-3211 FAX. (02)720-0312 http://www.hnp.co.kr 하남출판사

비구니 위상 높아졌다

태고종-전문 강원 재정지원 늘어
천태종-본말사 주지 임명 검토
총화·원융·일승종 등도 조직 강화

조계종이 2003년 총무원에 비구니 부장을 임명하는 등 비구니 인력 활용과 역할 강화를 기점으로 태고·천태·진각종 등 주요종단의 비구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태고종이 지난해 말 설립한 울산 보덕사 비구니 전문강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천태종은 비구니스님들에게 본말사 주지직 임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등 각 종단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은 사찰의 재정관리와 어린이·청소년, 문화 복지 등의 포교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각 종단의 살림살이와 교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종 다음으로 큰 규모의 비구니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태고종은 비구(5천명)와 비구니(1천명)의 비율이 약 5대1 정도로 열세에 있다. 하지만 1990년 조직된 비구니회는 16여년에 걸쳐 위상 강화를 위해 세미나와 총회, 복지행사 등을 개최하며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비구니 전문 교육기관인 강원의 지원을 위해 전국 비구니회 회원 스님들로부터 기부금을 약정 받아 계속 모금중이다. 또 기부금은 전국 비구니회의 통장을 통해 비구니 강원에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주로 비구 스님들과 동등하게 각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태고종이 강세를 보이는 영산재 분야에서도 비구니스님들의 활동폭이 크다. 하지만 종단의 종무 행정에는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종회의원 53명중 비구니스님은 여초 스님(비구니회 회장) 단 한명뿐이고, 총무원에도 월간 <불교>에서 일하는 지선 스님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이 없는만큼 비구니스님들이 의지만 있다면 더 많은 스님들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종단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중 올해 가장 주목되는 곳은 천태종이다. 지난 4월초 천태종 제 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비구니스님들에게 본말사 주지직의 소임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천태종 비구니스님들은 각 사찰의 살림살이를 주로 맡아오거나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종단 산하의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천태종은 350여곳의 사찰수에 비해 주지직을 맡고 있는 비구스님은 200여명 밖에 안돼 250여 비구니 스님들을 종무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천태종 비구니스님 중 총무원에서 근무하는 스님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학산 스님이 유일하다. 또한 종회의원도 총 30명(재가불자 50%, 스님 50%)중 3명 정도다.

이에 지난해말부터 우선 비구니 스님들도 1인당 2~3개 사찰씩 지도법사 소임을 맡겨 신도들의 수행지도를 하는 등 포교 활동 폭을 넓혀주고 있는 상태다.

진각종의 경우, 타종단과 달리 '전수'로 불리는 여성 성직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현재 진각종 전수는 150여명. 비구에 해당되는 정사(130명)보다 약간 많은 숫자다. 이들 전수들은 130여곳의 각종 심인당에서 정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포교활동에 임하고 있다. 여성인 전수들의 특성상 이들은 주로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해 신행상담을 해주는가 하면 가정 법회를 주도하거나 심인당의 안살림을 맡고 있다.

최근들어 종단의 종무행정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지난 4월 바뀐 종회의원 37명중 3명이 전수이며, 종단의 통리원에도 문화사회부장 이행정 전수가 소임을 맡고 있다.

법상종도 전국 비구니 모임을 통해 임원진을 새로 구성해 조직 강화에 힘쓰고 미륵종은 비구니회 재구성을 추진 중이다. 총화종, 원융종, 일승종 비구니회도 최근들어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위문품 많이 보내주세요"




대전 충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호국 연무사에서 훈련병 불자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 "운영 힘들다" 호소
일요법회 3000여명 참가…월 1000여명 수계

군에 입대해서 처음으로 불교를 만나는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5월 20일 반가운 손님들로 법당에 웃음이 넘쳤다.

매년 5월이면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는 대전, 충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위문품을 한아름 안고 법당을 찾은 것이다.

이날 수계받은 병사는 모두 1200명. 대전 연화사 종실 스님, 공주 영평사 환성 스님 등 비구니 스님 20여명은 일일이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르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수계법회에 이어 열린 위문공연 시간에는 댄스, 국악 공연 등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장병들을 즐겁게 했고 아이스크림, 과자 등 푸짐한 위문품이 전달됐다.

한해에 13만명이 입소하는 육군 논산훈련소. 그 가운데 30% 정도가 불자이며 상당수 장병들이 부모가 믿는 종교이기에 따라서 법당을 찾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처음 법당을 찾는 장병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실제 법회를 보고 있는 현실이 달라 타종교로 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육군 훈련소 교회는 군선교협의회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성당의 경우도 매월 2천만원을 천주교 군종교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찬양예배라고 해서 매회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교회를 찾은 장병들에게 제과점에서 만든 빵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있고 성당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법당은 초파일 연등비와 조계종 군종교구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한해 살림을 살다보니 법당을 찾는 장병들에게 초코파이와 음료수 하나 주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 지금은 외부 위문과 참배가 늘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주고 있으며 법당에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신세대에 맞는 법회와 문화공연을 하고 있지만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호국 연무사 박동진 군법사는 "일요법회도 장병들이 너무 많이 동참해 오전에만 두 번을 보고 있으며 평균 법회때마다 3천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어 외부 도움이 없이는 법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워낙 많은 돈이 필요하다보니 특정 사찰과 자매 결연 등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매달 수계법회때만이라도 사찰들이 번갈아가며 위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는 매달 마지막째주 토요일에 봉행되며 매회 천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다. 6월 능인선원, 7월 전국비구니회, 8월 서울 소림사에서 위문을 약속했지만 9월부터는 막막하기만 하다. 또한 일요법회를 위문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한 상황이다.

조계종 군종교구 전창응 종무실장은 "육군 훈련소 법당은 군대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는 거사불교의 발원지이며 향후 군내 종교 비율에 따른 군법사의 선발 등에 영향을 주고 장병들이 전역후에도 사회에서 불교를 종교로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 900548-01-002522 호국 연무사 문의 : 041)741-3734

김두식 기자

진흥원, 군불교 지원금 4천만원 전달

(재)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5월 11일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에게 군불교 지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양호 법사, 일면 스님, 홍승희 이사장, 최명준 국장.

이 지원금은 매년 군불교 발전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대한불교 진흥원이 지난해에 비해 1,000만원 상향시킨 금액이다.

진흥원 최명준 국장은 "진흥원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지만 불자들이 십시일반 경제적 후원을 한다면 더 많은 장병들이 법당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보시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상월원각대조사 32주기 열반대재

천태종 구인사서 열려…2만여명 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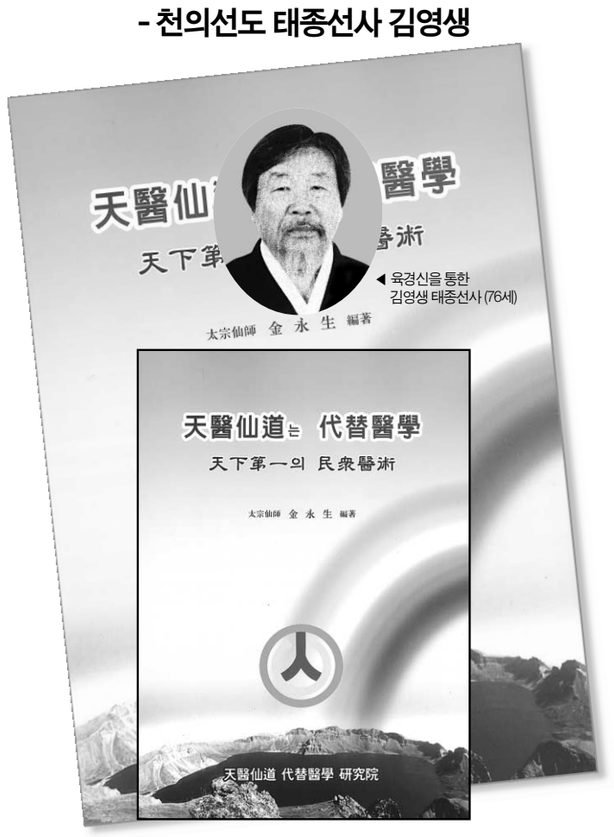
한국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 제32주기 열반대재가 5월 24일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사진).

이날 정산 총무원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낮에는 일하시고 밤이 깊어서야 선정에 드셨던 상월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종풍은 오늘의 종단을 금강계단 같은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며 "대조사님의 법신이 영원한 열반대재 자리를 빌려 불자 모두는 근면한 삶으로 회귀해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불교적 생활윤리를 실천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김장실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서재관·윤원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호영·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명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공처럼 둥글게 세계는 하나”

▌평화 월드컵 기원 4대 종교인 축구대회 현장

2006 독일 월드컵을 보름여 앞둔 5월25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이 ‘평화 월드컵’과 종교화합을 기원하는 축구대회를 열었다. 불교팀 정범 스님(왼쪽)과 가톨릭팀 선수가 공을 잡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2006 독일 월드컵 개막을 보름여 앞둔 5월 25일,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4대 종교인 축구대회가 열린 과천 관문체육공원 운동장. 승복 대신 하늘색 축구 유니폼을 입은 스님들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개신교 목사들과 마주섰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첫 대회 우승팀인 개신교팀과 지난 대회 우승팀인 불교팀의 개막전.

“파이팅!”

“즐겁게 축구합시다.”

헛발질 · 헤딩에 터지는 웃음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상대팀선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스님과 목사들.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공을 빼앗고 빼앗기는 혼전 속에서도 양팀 선수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목사의 헛발질에 웃고, 스님의 헤딩을 보고 또 웃는다.

그러나 0:0의 균형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개신교팀이 멋진 발리슛으로 첫 골을 성공시키며 균형을 깬 것이다. 한 골을 뒤진 스님들. 골을 만회하려는 투지가 곳곳에서 엿보인다. 슬쩍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진로를 방해했다가 심판에게 지적당하는 반칙이 늘어난다.

응원단의 열기도 덩달아 뜨거워진다.

“우리 스님 파이팅! 잘 한다!”

불교팀 공격수로 나선 정범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서울 옥천암 신도 20여명과 정경 스님이 선수로 뛴다는 소식을 들은 보라매법당 신도 10여명이 응원소리를 높인다. 상대팀의 파인플레이에는 박수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연출했다.

그러나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은 높았지만 모처럼만에 조성된 종교간 화해 분위기가 더 높았다. 상대선수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불교팀은 후반전 종료 직전 한 골을 더 허용했다. 2:0으로 승리한 개신교팀은 불교응원단에게, 게임에서 진 불교팀은 개신교응원단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이어 진행된 원불교팀과 가톨릭팀의 경기는 일방적으로 몰아친 원불교팀의 2:0 승리로 끝났다.



골문을 향해 힘차게 슛을 날리는 불교팀.

승패 보다 함께 뛰며 흘린 땀이 더 중요

이날 축구대회는 불교에서 조계종 총무원, 가톨릭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개신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위원회, 원불교는 중앙총부 문화사회부가 대표로 참가했다.

종교인 축구대회는 2002년 한 · 일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처음 열렸다. 불교와 개신교가 참가한 첫 대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가톨릭과 원불교가 동참하는 4대 종교로 확대됐다. 정범 스님은 “4대 종교 축구대회는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살을 맞대고 호흡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며 “월드컵 열기에 의존하지 말고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털어놓았다.

4대 종교 대표팀은 팀마다 25명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각 두 게임을 뛰었다. 불교팀은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스님을 선수단장, 사회국장 혜용 스님을 감독으로 종앙종무기관 종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님들과 중앙승가대학 학인, 각 사찰에서 선발된 스님들로 선수단을 짰다. 두차례의 연습경기를 개최하며 호흡을 맞췄지만, 개신교팀의 선전에 고배를 마셔야 했다.

2002 한 · 일 월드컵 계기로 첫 대회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팀 참가

희망을 접기에는 일렀다. 가톨릭팀과 준결승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 중앙승가대학과 개신교팀의 친선경기에 이어 시작된 준결승전, 불교팀은 경기에서 흘린 땀방울에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기도를 담았다. 승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가톨릭팀과의 경기에서 응원단이 고대하던 골이 터져 나왔다. 수비수를 제치고 멋진 터닝슛을 한 지담 스님(옥천암)이 첫 골의 주인공. 이에 질세라 가톨릭팀도 선수교체로 전력을 강화시켜 불교팀의 골망을 흔들었고, 승부는 무승부로 끝났다. 사이좋게 공동 3위를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가장 뒷번호 25번을 단 중앙승가대 학인 혜복스님이 불교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가장 열심히 뛰면서 팀에 활기를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

원불교팀 우승…불교 · 가톨릭팀 공동 3위

개신교팀과 원불교팀의 결승전. 팽팽하던 승부는 체력에서 앞선 원불교팀으로 기울었다. 종료직전 결승골이 터져 나왔다.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들로 구성된 불교 응원단도 환호했다.

수성도 탈환도 아니었다. 더욱이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그라운드를 함께 누비며 땀 흘린 것만으로도 이날 대회의 의미는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

불교팀 감독 혜용 스님은 “축구 유니폼을 입고 4대 종교인 모두가 한마음을 이룬 것처럼 독일 월드컵에서 각 국의 선수들도 모든 세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경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과천/글=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4대 종교인들이 ‘평화 월드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파인플레이가 나올때마다 박수를 보내는 불교응원단.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는 스님팀과 목사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선물로도 최고!
건강의 氣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수미단 · 성불도놀이
디지털콘텐츠로 거듭난다



백흥암 등 16개 사찰 중심, 내년 2월까지 소재 개발

불교 목공예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수미단이 디지털콘텐츠로 다시 태어난다.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산하기관인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법타)는 2006년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사업에 선정된 수미단의 창작소재개발사업을 위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은해사에서 사업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는 (주)아이네크와 함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약 1억3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내년 2월까지 수미단의 창작 소재를 발굴하고 수미산과 수미단 그리고 성불도놀이를 게임 창작소재로 개발한다.

이를위해 은해사 백흥암, 파계사, 환성사 등 전국 16개 사찰을 중심으로 수미단의 문화원형을 복원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벌인 후 수미단에 나타난 다양한 동물과 공양화 등을 모두 개별 단위 아이템으로 분류해 디지털 콘텐츠로 재창작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는 이번 사업을 위해 김용택 동대경주캠퍼스부총장, 박찬수 목아박물관장, 정우택 동대박물관장, 황상주 동대경주박물관장, 오출세 교수, 홍광표 교수, 차차석 박사, 김근태 박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역사적 고증과 향후 개발될 콘텐츠의 방향 및 산업적 활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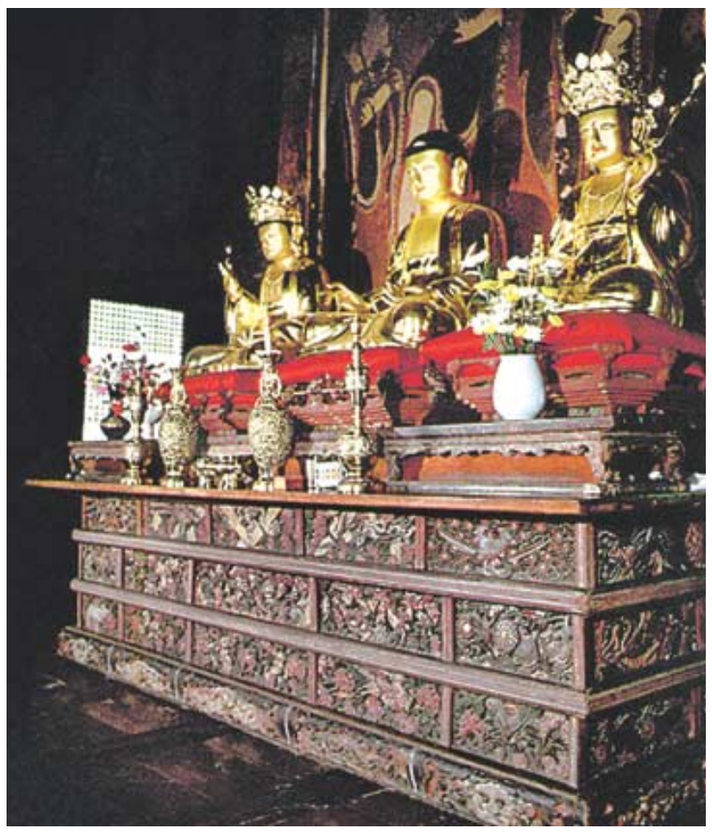
수미단은 불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수미산의 모양을 표현한 불단으로 수미단 조각에는 연꽃 모란 국화등의 공양화와 나비 벌 사자 코끼리 사슴 거북이 가재 등 9산(山)과 8해(海)의 동물, 상상동물 등이 조각되어있다.

성불도놀이는 주사위를 던져 나온 점수에 따라 패를 움직여 부처의 단계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으로 서산대사(1520~1604)가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나리오 감수를 맡게 된 김근태 박사는 "서산대사가 만든 성불도 놀이와 수미단을 디지털콘텐츠화 하기위해 고민해왔는데 이번에 사업공모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며 "철저한 고증을 거쳐 개발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은 "불교계에서는 아직 불교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불교가 불교문화와 예술로 일반인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보물 제486호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모습.







성불도 놀이판과 불패캐릭터.

사하촌 소식 인터넷으로 보세요
전남 '1마을 1홈페이지 구축' 사업 일환

템플스테이 등 홍보 기대

전라남도는 'e-남도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2717개 법정 리 · 동 단위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1마을 1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보 활용 기반 확산 및 도 · 농 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펼쳐지는 '1마을 1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카페로 사이트가 구축되며 마을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볼거리, 자랑거리, 마을소식 등 마을 고유의 콘텐츠를 주 내용으로 고향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하촌의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의 사찰 역사와 문화가 상세하게 소개되며 출향민들이나 불자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고향 소식과 사찰의 행사 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하촌의 토속 문화나 특산물의 판로 지원은 물론 사찰의 소식, 템플스테이 정보 등 관광정보까지 업데이트 할 예정이어서 지역을 알리고 사찰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남도는 'e-남도마을'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출향인을 대상으로 '고향마을 PC보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신행정보센터 홈피 다시 '오픈'
단체정보 등 검색 기능 강화

사찰수련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신행정보센터(http://sinhaeng.buddhism.or.kr)가 조계종 사이트로 통합되고 리뉴얼한 다음 5월 24일 다시 문을 열었다.

다시 문을 연 신행정보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검색기능 강화. 기존 중앙(포교원)에서 취합해 일괄 입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사찰에서 신행, 법회, 구인정보, 행사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신행정보, 사찰정보, 종단등록 단체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사이트 내에 사찰관리자의 공간(마이페이지)을 구성해 종단이 생산 ·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찰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종단과 타 사찰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대방(게시판)과 메일보내기 기능을 추가해 원간의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남동우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7

카메라 각도 위치따라 느낌 달라

촬영 구도와 카메라 샷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구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물 촬영시 촬영구도를 이용하면 인물의 심리변화를 표현할 수도 있고 사물 촬영시에는 공간감과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사고를 암시할 수도 있어 다양한 카메라 구도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피사체에 대한 각도를 카메라 앵글이라고 하는데 수평앵글, 하이앵글, 로우앵글, 경사앵글 등이 있다.

수평앵글은 화면의 안정감을 주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앵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한마디로 화면의 영상을 수평에 맞게 촬영하는 방식이다. 인물 촬영을 위해서는 피사체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며 풍경이나 사물의 경우도 사람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이상하다든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하이앵글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는 앵글로 이야기 전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인칭은 주로 상실감과 절망, 패배를 나타내며 2인칭은 인간의 외소함 등을 느낄수 있다.

로우앵글은 하이앵글과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촬영하는 구도다. 자연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밝고 명쾌하며 희망적인 느낌을 주고 인물을 촬영할 경우 크고 강인하며 우월적인 느낌을 준다.

경사앵글은 카메라를 기울여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앵글이 안정적이라면 경사 앵글은 조화를 깬 화면이므로 불안감이나 불운한 기운 등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적인 구도에 대한 지루함으로 신선함을 주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카메라 샷은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또는 회전이나 이동에 의해 얻어지는 여러가지 시야의 화상으로 그 명칭도 여러 가지다.

카메라 위치를 고정해서 하는 것으로는 롱 샷, 바스트 샷, 미디어 샷, 니 샷, 웨이스트 샷, 클로즈업 샷 등이 있고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하는 것으로는 틸트 업 · 다운 샷, 달리 인 · 아웃 샷 등이 있다.

중요한 샷의 정의를 보면 연기 범위 전체를 잡는 롱 샷, 특정의 피사체의 경우 또는 전체를 사람의 경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화면 가득히 포착하는 풀 샷, 무릎 이상의 신체 부위를 잡는 니 샷, 인물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하는 바스트 샷, 인물이나 사물을 가장 크게 묘사하는 클로즈업 등이 있다.

카메라를 앞뒤로 움직여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을 달리라고 하는데 전방으로 움직이며 촬영할 때를 달리 인, 후방으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것을 달리 아웃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위 ·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틸드라고 하는데 위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것을 틸드 업, 아래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것을 틸드 다운이라고 한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가시연꽃 단주

재질 : 연꽃씨앗(가시연꽃)
사이즈 : 13mm×21개
(천연 연꽃씨앗으로 크기는 일정하지 않음)
연꽃이 지고나면 생기는 열매를 연실(蓮實)이라 부르며 몸에 지니고 있으면 헤아릴수 없는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가시연꽃은 아주 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보호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시연꽃 단주는 불교신자들의 수행용으로 좋습니다.

가격: 20,000원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액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퍼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 화지에 26도 관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된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여성용장지갑 (적색)
여성용장지갑 (보라색)
남성용중지갑 (갑청)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뤄!
옴마니 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메훔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동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훔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남편의 외도를막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뻑뻑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척추, 허리, 목, 어깨, 짝다리, 탈골(원인불명통증), 체형교정 사주, 작명, 풍수지리 **출장가능**
빙의(산들림), 활법, 기공최면, 전생, 급방 천도 **전문 상담사**

02)835-2399
011-817-3387

氣치료사 수강생모집

진리를 탐구하시는분환영
한선원
(心氣身수련원)
051)468-0590
011-9526-0596

신기한 - 약침요법

지압 뼈 교정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정력부족, 당뇨병, 간질환, 위장병, 견비통, 상기병, 만성피로, 두통 등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출장강의함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중고차 상담

스님, 불자님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상/담
최고가 매입!!!
연인권011-216-2603

철야기도 ◆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

각종 경전독송 효과적인 방법지도
대불정능엄신주·우리말 천수경·지장경을 드립니다
김종길·임명선·김광미·김경록·김선희·김민경
필요하신분 011-801-4355 전화환영
상담환영
대학입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노후에 회향을 잘 하실 분
격정없이 조상영가천도 상담하십시오
6월6일 현충일 국립묘지에서 영가천도 책을 모시합니다
포교활동하실 분
종합하실 분 연락바람
각종 집필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등참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맨발등산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문원은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스님을 모집합니다
(행자교육외 각종의식교육)
055)381-1199
055)383-6676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문원은 종단을 불문하고
무보시 범음범패 제3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 천도재, 바라작법, 시물 등)
055)381-1199
055)383-66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대형버스 기사님 모집

- 불교신자
- 대형버스운전경력 5년이상자
- 무 흡연. 음주자
- 출퇴근 급여 상담 후 결정
- 구비서류 : 1.경력증명서 1부 2.운전면허증사본 1부 3.주민등록초본 1부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상담 직통 전화 050-2000-2233

큐사찰 공양주 보살

서천군 마사면 덕암리605-3
041)953-8446
(55세~65세)
용모단정. 오래계실분
보시금 상담후 결정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전후)
구파발전철역10분거리
▷구파발동 시연사
02)352-0572
011-261-057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절에 기도하며 계실 분
(60~70대)
054)654-4925
011-758-1819

도반찾음

법진스님(속명: 최승규)
속명: 구권수(하동)
※찾음: 법광스님(김성화)
010-9310-7089

경관이 수려하고
장엄이 여법한 도량
무보시로 포교해드립니다
역학 및 49제,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에 능통함
법랍 31년 50세된
조계종 비구입니다
011-854-8107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충남서해안사찰
041)673-1888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바닷가 근처
019-487-1117

구합니다
사찰 및 암자
임대구합니다
지역관계없음
010-8828-3002

공양주 보살, 총무보살 모십니다

▷ 40~50대
011-9778-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김포
011-688-6625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5세)
051)542-4848

고통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삼보전에 맡기
시고 남은 여생 기도
하며 살아가실 비구니
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동참금 : 2천만원
018-406-3073

조계종 고찰 한적한 내원암에서
내집처럼 몸담고 신심있게
자기기도하며 살람 맡아 볼
40~50대 공양주 구함. 그리고
40~50대의 평생수행하며 관리
할 인연있는 비구니스님을 구함
▷경북 내원암
054)653-1180

행자 구합니다

(35세 미만)
▷ 경남 양산
055)387-7228
010-2387-72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031-571-5424
018-207-4084

대웅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51)803-75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 256-2655

혼자서 조용히
참선수행하고 싶은
재가불자로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을 전세
놓으실 분 찾습니다
017-566-7227

사찰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면허
▷독신처사, 승합차 소유
010-3028-65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대전 서구
011-9429-6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 883-1869

서울 조용한 암자
가족처럼 심신깊은
기도스님 공양주보살,
행자 모십니다
011-306-3504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723-096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실하고 누구하고도 화합될 수 있는 분)
054)452-0845 / 011-539-0845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경기도 연천 사찰에서 메주 된장을 담그며
스님과 같이 평생 여생을 보내실분과
좋은인연을 기다립니다
60세이상 70세 미만이며 큰노동력은 없으며
농사에 관심 있으신분
011-9390-3879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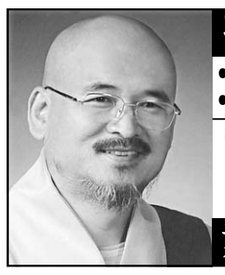
- 각 사암 등록신청 및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스님
- 스님이 되고자 하는 행자 (남, 녀)
- 동자모집 (가정이 어려운 환경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의 010-7746-5544

金山仙師

침, 뜸 보다 효과 만점!
경혈 지압구 우주회로 비법 단기완성
氣운영, 치병기공, 발공 우주기공 수련생및 전국 지부모집
- 남,여(경락, 스포츠마사지, 호흡, 기공) 경험자, 제자구함
35세미만 여직원 급구 일하시며 배울분, PC가능한자(각종기공, 경혈, 道)

※ 특히, 만성피로(간) 위장병, 아토피 전문 氣치료
02)562-7151/ 010-2362-1138 위치 : 강남역근처 金山仙道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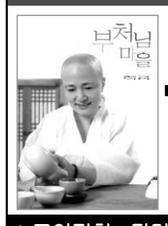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28숙 특별지도

- **명리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판매기금은 부처님마을 장애우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부처님마을 책을 구매하시는 분께는 휴대용 달마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
⇦ 부처님마을 선화집 12,000원
선오스님 CD 12,000원
선오스님테이프 7,000원 ⇨
부처님마을 부설 달마선원



◆ 문의전화 : 달마선원 국민은행 710801-01-047368 (예금주:달마선원)
041)523-0026, 010-9335-8487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6. 7 (수·목요일 주·야간반)
토·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매년 6월 6일 현충일

올해도 서울 동작구 국립묘지 참배객들에게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동참하셔서 직접 한권씩 보시하면 무량공덕이 됩니다

대구 팔공산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요. 소원성취도가 다릅니다

철야기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
효과적인 독송 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치매예방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서울 739-5008 마산 245-2662 안성 · 김해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중요할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 지방분 환영 ● 포교활동 하실분 ● 스님동참환영 ●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서울739-5008
부산635-7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 (8년)

사주통달책임지도 (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사찰터 -

- 위치: 충남아산
- 법당: 33평
- 요사: 90평
- 부지: 2,000평
- 가액: 21억

- 위치: 경기 (서울경계)
- 법당: 18평
- 요사: 30평
- 부지: 26,000평
- 가액: 15억

- 위치:경기 화성
- 총평수: 370평
- 가옥: 30평
- 가액: 3억 7천

- 위치: 경남 사천
- 총평수: 16,300평
- 가액: 4억 3천

- 위치: 경북 포항
- 총평수: 700평
- 가액: 3000만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경기사찰 960평-5억5천
2.충성사찰 2500평-10억
3.봉천동포교당 40평-월85
4.강남포교당 40평-월176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대전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1억2천5백만원

011-595-7878

사찰안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산세수려, 전망최고
- 평수 : 700평
-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목조), 나한전, 용왕당, 미륵당, 스님친견실등 집기일체 완
- 즉시법회 가능, 주차장완비
- 가액 : 5억(절충가능)

055)973-5054
011-863-0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천평
- 법당 : 목조33평
- 요사 : 55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선원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1-9393-4965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서울대 전철역 2분거리
- 2층 약 30평, 탱화 2점, 삼존불, 방2개, 주방 베란다
- 보증금 2,000원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755-5266
02)872-338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상가주택 밀집지역, 지하철 역세권)
- 건물 45평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 소임관계로 급 안내
- 전세 1천만원,월55만원
- ※ 오전 중으로 연락바람

017-586-5699

절 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근천 I.C에서 10분거리
- 평수: 대지 1161평 중 168평이 전용 건축허가(주택 25평, 창고 15평) 전용부분 토목완료. 건물바닥 기초공사 완료
- 특징: 주위 산세 경관 수려. 배산임수의 명당
- 가액: 6800만원

017-585-4980

위치	부지	가액
• 원주	약 2천평	9억
• 서울	약 100평	13억
• 서울국립 공원내	약 500평	5억
• 대구 (불사중)	약 6천평	답사후결정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사 찰 안 내 (토굴)

- 위치: 경북 구미시 소재
- 부지: 120평 (3층건물중3층 분할등기 34평)
- 법당: 100평(방3)
- 가액 : 1억9천만원
- 특징 : 법당 시설비만 1억원이 투자된 멋진 도량임

- 위치: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 600평(종교부지)
- 법당 : 30평(임법당)
- 산신각 : 3평
- 가액 : 4500만원
- 특징 : 인근에 문화재 (고려시대석불)가 있는 조용한 토굴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당안내

- 위치: 대전 서구 변동중학교 부근
- 50평 방3, 주방
- 가액: 전세 2,20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7-420-5258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5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가 잔듸밭

016-367-2112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사찰안내

- 위치: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가송1구 48번지
- 총 700평 중 대지 172평 법당 ,산신각
- 가액: 1억 (가격 협의가능)

041)642-0642
010-6700-4540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 500평, 건물 :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토굴안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 건물 3동
- 가액: 4천만원

010-5631-8439
017-401-493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에서 10분거리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3천만원
- 6월말까지 인수하실분

019-692-2222

포교당안내

- 위치: 전남 해남
- 대지: 150평 건평 30평
- 가액: 5천3백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61)533-9046
011-631-295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최고의 위치
- 평수 : 50평, 방 2칸
- 시설: 최상의 시설 을향, 냉 난방완비 삼존불, 신중, 산신 조왕 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지리산 줄기
- 평수: 총 756평
- 건물: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 네개 큰창고
- 가액: 2억3천만원

010-3138-4897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단독주택 형태
- 대지 45평
- 가액: 2억1천만원

011-554-0018

사찰부지(별장겸용)

- 위치: 천안역 10분거리
- 부지 면적: 2100평
- 산세: 산으로 둘러싸인 삼태기형
- 교통: 2차선 포장도 근접
- 가액: 25만원/평당

041)621-4411
010-3121-39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 수락산
- 평수: 67평 6층건물에 3층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017-515-7527

절최고시설(급)안내

- 위치: 포항시에서 20분거리
- 대지4100평,연못200평, 주차장1500평, 법당45평 불탑15m, 요사채50평 별채50평, 식당, 사무실 60평
- 고가의 시설비 73억 들었음 가액 : 17억

010-8562-738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불교대학 하시고 싶은 분도 아주 적합한 위치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상주군
- 대지: 105평
- 임법당, 요사채, 주차장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3천만원

054)931-3397
010-4601-12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부도(내)
- 약: 50평 법당 약 30평 삼존불 후원 방5개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스님사정상 급

010-4215-9119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주 IC 10분거리)
- 법당1. 칠성각1. 산신각1. 요사채2 전 500평 포함
- 가액 : 2억5천(절충가능)

011-9029-7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평리동 서구청 앞
- 2층건물의 2층
- 평수 40평
- 시설완비되어 있음 포교당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만원

053)523-7706
011-540-331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조립식 법당 15평
- 산신각 10평
- 요사(흙벽돌) 40평
- 가액 : 3500평

054)843-13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암자안내

- 위치: 구미시 대구시 중간 칠곡군 약목면 소재지 (금수강산)
- 임법당,연꽃연못 총320평 암자 및 산장
- 가액 : 1억

017-813-912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2층 건물중 2층
- 약 40평
- 삼존불, 영단 별도 방2, 거실 1, 욕실 별도
- 가액: 2천 2백만원

018-205-5979
043) 836-9149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3동 대명시장 위
- 평수: 29평 2층 상가주택 (8M 8M 코너집)
- 가액: 8천 5백만원

010-3193-3352
053) 653-585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 대지 870평, 법당 25평, 용왕당 4평, 산신각 5평, 종각 3평, 요사채 방 7개, 소방시설 완비
- 주차시설 30대, 70년된 사찰 사용평수 2,000평
- 가액: 5억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 대지: 151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 건물:현대식

018-811-5466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부 정류장 부근
- 평수: 75평(2층)
- 옥상 사용가능
- 시설 최상급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월 시설비 1700만원
- 대형주차장있음

053)655-0619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용계동
- 평수: 144평, 법당 20평, 요사채 방 4칸
- 주차시설 완비, 텃밭有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연 600만원

017-565-15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 땅 150평, 건평 33평
- 특징 : 죽주산성 산
- 미륵부처님 기도도량
- 가액 : 6천800만원

011-394-2281
031)675-2281

포 교 당 안 내

- 위치:김천시내 중심가 위치 건물 멋짐
- 1,2,3층 합 149평
- 대지 121평 정원 수려
- 가액 : 4억 3천

011-534-5892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음성 읍내리
- 대지 100평
- 법당 목조 10평
- 요사 20평, 25평 2동
- 가액: 1억 5천만원

043)872-4270
010-3161-429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 24평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30만원

011-9560-27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 법당 : 75평, 건물 2층 방 3개
- 삼존불 후불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 (전세도 可)
- 답사 후 가액절충可

018-510-9290

사찰안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 : 1억4천만원 (가격절충가)

010-9405-922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천 복합도시 고속전철 도심지에 청정도량 해발 200미터 왕복4차선에서 500미터, 고속IC 7분거리 대형마트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준농지 700여평
- 태고의 천연약수 임법당30평
- 가액 : 1억 3000만원

054) 433-6315
010-4811-678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중구 중심 지역
- 평수: 60평 외 옥상사용 (EV 有)
- 시설: 법당 외 접견실 2, 방 2, 공양실 2, 욕실 大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46만원(전월세 조정가)

010-8678-5442
010-9250-2358

도심 포교원 (최고의 시설)

- 위치: 부산 온천동 시장 앞 2층 건물 중 2층
- 평수: 5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611-0384
051) 582-038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만덕동 (아파트 밀집지역)
- 상가건물 4층의 3층
- 평수 : 40평, 최신시설
- 기타시설 완비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천5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051)334-093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옆
- 법당40평, 삼존불, 후불, 산신, 칠성, 신중, 지장, 탱화완비 수미단 단청,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9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4846-5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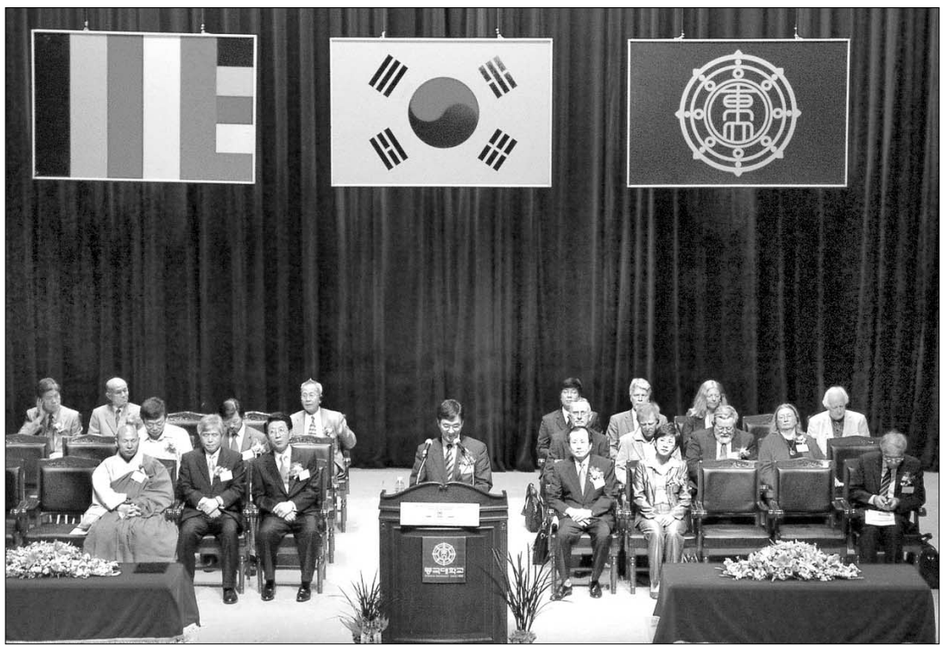
명당(부귀복덕)적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184평
- 2Km이내 중산층(아)5만세대 중,고교18 · 초등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현대사회가 낳은 '문제' 불교에서 '답' 찾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주최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세계적 생태운동가와 불교생명윤리전문가, 환경윤리학의 대가 등 국내외 21명의 석학들이 참가한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이번 대회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적 대안을 심도있게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데미언 키온 — 덕과 실천적 이성 이끌 방법론적 법칙 필요

노르베리 호지 — 일괄·집중 관리되는 획일화된 세계화 비판

요한 갈퉁 —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 '도덕적 대상'

"부처님은 자연(생명 · 생태)을 해하는 것을 금기시했으며 자연환경 속에서 지내는 삶을 강조했다."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 데미언 키온 교수는 5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동국대에서 열린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불교의 덕(德)을 통한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키온 교수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와 환경문제, 생명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과학적 지식에 대해 불교적 지혜와 덕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키온 교수는 '덕의 윤리학과 환경'이란 논문을 통해 "덕 윤리학은 행위보다 행위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규범이나 행위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인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불교의 덕은 육바라밀 중 보시와 인욕이다"며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덕은 비해악과 비폭력을 의미하는 불교의 불살생이다"고 주장했다.

또 키온 교수는 "불교와 덕 윤리학이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 등의 논쟁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지는 의문이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덕과 아울러 실천적 이성을 이끌 방법론적인 일련의 법칙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온 교수는 교계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연질서에 대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포괄하고 있다"며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인공유산, 안락사 등의 문제는 의료윤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불교의 덕의 윤리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대회에서 '빈곤과 불교적 생활방식'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스웨덴 생태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여사는 단절된 사회와 세계적 빈곤에 대한 치유법을 '합일과 상호의존'이라는 불교의 1인칭적인 접근법을 통해 계 · 정 · 혜 삼학을 융합시킨 이론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세계화된 경제'에 대해 헬레나 여사는 '모든 사회가 일괄적으로 집중 관리되는 경제에 의존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미디어 시스템을 공유하며 심지어 사고의 과정도 같은 세계'라고 정의했다.

덧붙여 헬레나 여사는 "불교는 전체론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징후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고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들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경제적 명령에 뿌리박고 있는지 아는데 도움이 된다"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기업적 제도로 만들어진 세계 경제적 체계보다는 우리 이웃들과 주변의 생명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명한 깨달음의 반영이다"고 제시했다.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그의 논문 '심층생태학, 심층문화 그리고 위기사회-평화와 불교'를 통해 생명의 범위를 인간에서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 각 종교의 가치관의 한계와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성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들도 도덕적 대상으로 여길 필요가 있으며 이들 또한 행복과 고통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까지도 고려한 불교가 생명 · 생태 · 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를 풀 수있는 유일한 열쇠다"고 평가했다.

한편 불교생태학과 서구사상을 주제로 한 제2분과 발표장에서 안옥선 교수는 네스의 심층생태학에서의 동일시와 불교의 동체자비의 유사성을 △전일론적 존재론과 연기론 △자리이타의 원리 등을 근거로 연구한 논문 '심층생태학의 동일시와 동체자비'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심층생태학에서의 자아실현과 불교에서의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동일시와 동체자비의 실천을 떠나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며 "동일시와 동체자비를 통해서 전일론적 존재론과 연기라는 존재실상에 합치되는 삶을 구현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최고의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남대 이중표 교수의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고려대 양형진 교수의 '지식정보 사회와 자연세계에 대한 불교적 네트워크 이론' 동국대 윤영해 교수의 '포스트모더니티와 생태불교학' 미국 위스콘신대 리타 그로스 교수의 '실타래-불교와에코페미니즘' 등의 논문도 관심을 끌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이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인 '환경 · 생태'문제를 조명하고 지식기반에 부응하는 '생명과 평화'실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총 4개 분과와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내학자 12명과 외국학자 9명이 참가했다.

각 분과는 △지식기반 사회와 환경문제(제1분과) △불교생태학과 서구사상(제2분과) △불교생태학의 학제적 접근(제3분과) △미래사회의 평화와 불교생태학(제4분과) 등 생명 · 생태와 응용불교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뤘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지식기반...' 대회 참석 외국 석학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보존과 개발의 대립된 문제를 지적한 <오래된 미래(1992)>의 저자. 1946년 스웨덴 출생인 그녀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철학, 심리학 등을 전공했다. 1980년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국제조직을 만들었으며 1986년에는 대안적 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데미언 키온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 교수. 1951년 영국 출생으로 1992년 옥스퍼드대에서 초기불교윤리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불교 생명 · 윤리 전문가로 불교계에 생명 · 윤리를 일깨우는 역할에 자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교윤리학의 본질(1992)> <불교와 생태학(1992)> 등이 있다.



△요한 갈퉁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이자 평화운동가. 1930년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그는 1970년대 이후 남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한 한반도 전문가이기도 하다. 현재 하와이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의 제국주의 이론과 종속이론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가 소개한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는 특히 주목받는 개념들이다.



△이안 해리스

영국 세인트 마틴대 교수. 캠브리지대학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기 대승불교에 있어서 중관과 유식이 연장선(1991)> 등의 저서와 불교와 생태적 윤리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영국 불교학협회 창립멤버이며 현재 20세기의 불교와 정치 및 불교생태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정통 조사선은 선문화의 재창조"

한국선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정통 조사선은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입장에서 수행과 일상생활을 통한 선(禪)문화의 재창조입니다. 하나의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듯이 선문화를 통해 지혜를 얻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 26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린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이평래) 2006 춘계학술대회에서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은 '선문화의 이해를 위한 선사상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창원전문대 이범수 교수의 '불전에 나타난 정신장애와 간병' 부산대 김준호 교수의 '부다의 욕망론' 서울보건대학 송위지 교수의 '장아함경 세기경의 지옥품에 관한 연구' 등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범수 교수는 논문을 통해 "마하승지율과 <상게서>에 의하면 부처님은 간병인 계를 제정해 약법, 욕실세법, 승방상좌법 등 엄격한 간병 규칙을 적용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자를 위해서 많은 예외 조항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자의 명예를 위해 병을 소문내지 못하게 하는 계를 두었을 정도로 계율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병철 기자

※ 기사 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는 쉽니다.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22-25-0005-381(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서산 서산 IC 5분거리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980평
● 건물 : 대웅전, 명부전, 요사2채
● 가액 : 8억 5천만원
016-342-77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 대지: 90평, 건물 1층 45평 2층 법당(독채) 15평
● 특징: 의성 탑산온천근교
● 가액: 3억5천만원
● 답사 후 가액절충可
054)832-2057
011-805-205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 임법당 40평 부지 650평
● 시내에서 6km (5분거리)
● 가액 : 6천5백만원
054)632-1012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기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봉양면
● 대지: 90평, 건물 1층 45평 2층 법당(독채) 15평
● 특징: 의성 탑산온천근교
● 가액: 3억5천만원
● 답사 후 가액절충可
054)832-2057
011-805-205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건물 : 평수 29평
● 가액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삼존불,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8-315-0108

포교당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여평
● 건물 5동
● 법당,산신각,주지실, 요사2동,심야보일러
● 가액 : 2억7천
032)374-6494
011-790-919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밀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우신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사찰안내
● 종교부지 및 답 : 1026평 ● 가액 : 10억 6천만원
● 위치 : 오산 ↔ 안성 국도 (4차선 확장공사중)변 1km 접한 곳으로 오산 I.C 오산시청 10분거리

동탄신도시 15분 거리에 위치한 발전성
최고의 수행 환경을 갖춘 사찰임
법당, 주방용 집기등 일체 양도함
010-6809-9294

일 주 문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신계사 복원추진위원장)은 5월 24~26일 불국사 스님 · 신도 등 150명과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를 가졌다.



수덕사 다도강좌 실시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6월 11일 오전 10시 수덕사 황하정루 2층 전통찻집 '무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도강좌를 실시한다. (041)337-7589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법회

서울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은 6월 4일 오전 11시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제41회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서울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은 6월 3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차례 경내에서 제41회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577-5800



전남도청 공불회 초청법회서 법문

영암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5월 25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 초청법회에서 법문했다.



관오사 일요가족법회 봉행

대구 관오사 주지 지도 스님은 6월 4일 오전 10시 보각 스님을 초청법사로 '선업을 실천하는 보살행' 주제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한다.



합동수계 및 성지순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합천 해인사에서 합동수계 및 제13차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한다. (02)739-1080



총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동국대 총동창회 원용선 회장은 6월 13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8차 정기이사회 및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육바라밀 수행법' 주제 법회

대전보현불교대학 오상현 관장은 6월 9일 오후 7시 '육바라밀 수행법'을 주제로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원효 스님 탄생 강좌

사단법인 해동원효불교대학 전용만 학장은 6월 6일 오전 11시 경산 아시아대학교 대강당에서 원효 스님 탄생에 관한 강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성보박물관으로 거듭날 것"

문광부장관 표창받은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장 정암 스님

"산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불자들에게 '찾아가는 성보박물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선진 박물관 · 미술관 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의 장인 제9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수덕사 근역성보관장 정암 스님(사진).



3년째 수덕사 근역성보관장직을 맡고 있는 정암 스님은 '2004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특별전' '성보실태조사' '불복장 및 불화 상설전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서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불자와 일반인들이 성보박물관을 찾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유물 · 문화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DB를 구축함은 물론 인근 산간벽지 초 · 중 · 고등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불교문화재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스님이 '성보문화재 지킴이'일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된 '성보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다.

정암 스님은 특히 "여타의 교구본사와 말사들은 문화재조사기관에 위탁해 성보실태조사를 했지만 수덕사는 3년에 걸쳐 직접 성보문화재를 조사함으로써 불교 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열악한 재정과 불교문화재 전문 연구인력 등의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전국의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각 박물관별로 특색 있는 전시를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연구 중에 있다.

한편 수덕사 근역성보관은 고대 한국과 중국의 불교미술 교류사를 알리기 위한 특별전시회 '요녕성 박물관 불교미술대전(가칭)'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릴 특별전에는 명 · 청시대에 만들어진 '자수미륵보살도'와 '세조도' 등 중국 국보 2점과 중국 고대시대(6세기경)의 불화와 불경 80여점이 전시된다.

노병철 기자

"다시 오시어 보살피소서" 만봉 스님 다비식 엄수



"스님 불 들어갑니다."

만봉 스님의 다비식이 5월 21일 태고종 총본산 순천 선암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의 다비작법으로 시작된 다비식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종단수호에 쏟은 정성은 수미산보다 높고 불교발전에 쌓은 공덕은 사해보다 깊다"고 만봉 스님의 업적을 칭송하며 "큰스님 발자취는 천만세에 빛날 것이오니 부디 다시 오시어 중생을 보살피소서"라고 말했다.

다비가 시작되자 행사에 참석한 신도들은 여기저기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스님을 곁에서 모셨던 제자 김미혜씨(단청장 이수자)는 "입적하시기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스님의 장인정신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앞으로 단청문화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비식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총무원장 운산, 칠전선원장 지허, 사회부장 법현 스님 등과 만봉 스님의 제자 브라이언 베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글 · 사진/순천=김주일 기자

월주 스님 '인도성지순례기' 출판기념회 성료



사진 왼쪽부터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건 前 총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월주 스님, 이명박 서울시장.

지구촌빈민구호사업 후원을 위한 월주 스님의 <인도성지순례기> 출판기념회가 5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금오 스님 손상좌문도회, 보은 법주사 · 경주 불국사 · 김제 금산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가 주관한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월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도에 2차례 다녀오면서 정리한 것을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며 "인도 성지순례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고건 前 국무총리도 "인도성지순례기에는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한 중생구제라는 스님의 평소 염원이 담겨있다"고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근일(영주 부석사 주지) 세민(前 합천 해인사 주지) 성타(불국사 회주)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흥교(대각회 이사장) 종상(불국사 주지) 원택(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스님과 시민단체 및 종교계 지도자가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인사

대구 동화사 △총무국장 홍관 △재무국장 허주 △포교국장 선용 △교무국장 각정 △호법국장 지오 △사회국장 능광 스님

천태종 총무원 △교무부 교무국장 시용 △재무부 시설국장 해창 △사회부 사회국장 월중 △규정부 규정국장 보광 △규정부 지도국장 갈수 △교무부 의전국 부전 거홍 스님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미륵종 승려교육장 기공식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5월 25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승려교육장 기공식을 봉행했다. 기공식에는 미륵종 원로원장 연봉, 총무원장 송정, 중앙종회의장 지은 스님과 아미택설계사무소 탁문현 대표 및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장은 연건평 300평 규모이며 올 10월 초 완공될 예정이다.

선교종 총무원장 혜종 스님 시집 출판법회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혜종 스님 저서 <그리움 여울져 오네> 출판기념법회가 5월 24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봉행됐다. 혜종 스님은 "시를 수행방편으로 삼아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움 여울져 오네>에는 '목탁' '참사랑' '무량세계' 등 7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성주 선석사 일불거사림회 창립



성주 선석사(주지 선문) 거사 불자들의 모임인 일불거사림회(회장 정한운)가 5월 20일 창립됐다. 성주 지역 사찰 중 유일한 거사림회인 일불거사림회는 5월 21일부터 100일 동안 1만800배 정진기도에 들어갔으며, 100일기도 회향 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 계획이다. (054)933-9800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6. 1 (목요일) 14:00 - 18:00 (8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수료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불자 세상보기

이 학 송
광동중학교 교장

교단에서 '길'을 묻는다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찾아가는 미니 식물원이 있다. 갈 때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있고 잎이 자라 항상 새로운 기운을 느끼는 곳이다. 물속에서 편안하게 자라는 수련 등 연꽃 종류가 있는가하면 연화바위솔과 같은 다육식물 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다.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는 상사화, 아름다운 향기로 찾는 이를 즐겁게 하는 애기라일락, 논가나 밭에서 녹비식물로 짧은 생을 마치는 자운영도 대접받으며 천수를 누리고 있다.

여러 나무, 야생초, 야생화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식물원을 보면 참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러면서 현재 봉직하는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생각하면서, 요즈음 세간 언론에 다뤄지는 교육소식들을 상기해본다.

언젠가부터 언론매체에 회자되는 교실붕괴, 학교폭력, 성폭력, 교권침해, 학교급식문제, 교육소비자, 대학입시, 자주 변하는 교육정책 등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이 떠오른다.

차분히 판단해보면 잘되고 있는 교육부문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지만, 교육환경의 부정적인 면은 순식간에 전 국민에게 파급되는 이유는 특별한데 있지 않다. 오로지 교육에 '올인' 해 온 국민적 정서, 일반적인 사회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가치와 적극적 관심,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육현장의 부정과 모순 덩어리들이 '입살'의 원인이다.

교육현장에 서있는 당사자로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우선 교육은 잘 알다시피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인내심을 갖고 평생을 통해 이뤄져야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이다. 요즈음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또한 교육은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정 명문대학 진학이나 고시합격 같은 현실적인 가치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속에서는 좋은 교육과정이 자리 잡기 어렵다. 다양한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때 교육의 목표도 변화할 수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 제자들도 언뜻 떠올려보면 모범생들로만 구성된 정예집단이 아니다. 잠꾸러기로 유명한 가전련, 한때 반항아 기질을 가진 문제 청소년 라훌라, 동물 같은 삶을 살던 청년 똥꾼 니이다이, 머리 나쁘다고 멍청이로 무시 받던 주리반특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다에서 각자 지닌 소질을 살려 후세에 귀감되는 훌륭한 제자로 탄생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은 모두 부처님 성품을 지닌 귀중한 존재다.

온 국민이 여유를 갖고 참고 기다리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 언론에 비친 자극적인 제목 몇 글자에 쉽게 비판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면에 완전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환경 마저 이기고 지는 스포츠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나 자신도 학부형이면서 교육자다. 학부형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변화해야 하지만, 교육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과 사회의 요구가 지나치고 이기적 요소가 많다고 느낄 때도 많다.

국민 전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교육현장까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을 일반화시키고 전체의 일 인양 매도하는 마녀사냥식 분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족하고, 고쳐야 할 점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 현장은 긍정적이고 밝다. 싱싱함과 제마다의 특성을 지녀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야생화 · 야생초처럼 말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교의 경쟁력은 '불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종교인구 조사결과를 보면 두통을 느낄 정도다. 이웃종교인 가톨릭이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종교인구 237만명의 92.5%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신도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불교인구는 1072만명으로 전체 종교인구의 22.8%를 차지해 불교가 아직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지만, 연령별 분포도나 한국사회에서의 신임도나 영향력 등을 놓고 볼 때 이런 숫자는 의미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천주교가 보여준 불교에 대한 우호적 태도, 전통적 관혼상제와의 유연한 접목 등은 이러한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자들은 불교의 부진원인을 승려중심의 교단운영과 청렴성 결여, 조직력과 결속력 부재, 복지 마인드 부족 등으로 꼽고 있다. 불교내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위기론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던가. 스님들이 각성해야 한다,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 청소년포교가 급하다, 사이비종단을 정비해야 한다 등등.

그러나 역사의 질곡과 내부적 진통 속에서 한국불교가 떠안은 문제가 너무 복잡해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가야 할지 조차 난감한 현실이기에 개혁의 외침은 목소리만 클 뿐 항상 용두사미 꼴만 거듭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식 있는 구성원들만 암담한 미래를 걱정할 뿐, 많은 신도들은 교단적 과제를 관심 밖의 일로 젖혀 놓고 있고 한편에서는 오로지 자기 몫을 넓혀가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승려들이 적지 않은 게 한국불교의 뼈아프지만 솔직한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녕 대책은 없는 것인가? 불교의 자생력과 경쟁력은 바로 '불교'라고 주장하고 싶다. 한국불교의 과제는 그 조직과 재정, 교육, 사회적 기여활동 등에 얼마나 불교적 이념이 잘 용해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스님들을 포함해 불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불교적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가 한국불교가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름할 유일한 잣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괴물

싸움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이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고통만 준다. 그것은 도리가 아니요 이익이 아니며 안온과 쾌락이 아니며 천상과 인간에 지극한 고통과 재앙만 일으킨다.

〈별역잡아함경〉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검 · 경 합동수사본부는 박대표 테러범 지충호(50)씨의 범행동기와 자금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일차적인 테러동기를 지씨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찾고 있다. 지씨는 전두환 정권때 만들어진 보호감호제도로 자신이 14년4개월에 이르는 오랜 수감생활을 해야 했고 '민정당=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평소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를 많이 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한다.

그는 판사가 범행동기를 묻자 한나라당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답했고 복역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도 이런 주장이 반복돼 있다. 그러나 이런 지씨가 왜 박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수입에 비해 헤픈 씀씀이도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이유를 찾기에 앞서 한 인간이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파괴하면서 이처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괴물'로 변화하는 동안 그가 겪었을 사회에 대한 분노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지씨 같은 이들이 인간내면의 '화'를 다스리고 정상적인 사회성을 닦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다면 제2의 지씨는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할지 모른다.

■ 조용수(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종교인 과세

한 시민단체가 스님 · 신부 · 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붓다뉴스(buddhanews.com)는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3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62%인 86명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38%(53명)는 과세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했다.

댓글을 통해 파악된 찬반 이유는 각각 일반 여론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세 반대 이유로는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실질적으로 대부분 종교인들의 수입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이다. '자안스님'이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매월 몇 십만 원씩의 용돈은 받아봤지만 월급을 받아본 일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phila'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나라님도 못하시는 중생구제에 사심 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살다가려는 종사자들께 세금이 웬 말이냐"며 종교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했다. '심행'이라는 독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스님이나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세 지지 이유로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는 점 △일부 종교인이 실질적인 고소득을 누리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종교인'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로 인해 과세여론이 들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원'이라는 독자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과세 방법에 대해서 '우진거사'는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종교인에 한해 과세할 것"을, '성천거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찰과 교회의 종교인들이 자진납세"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박익순 기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조사기간: 5.10~5.23, 총 참여자 139명)

스님 · 신부 · 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종교인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의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세해야 한다	86 명(62 %)
과세해선 안 된다	53 명(38 %)

특별기고 정만(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독신 · 무보수의 수행자 근로자도 재산가도 아니다

조계종의 종헌에 수행자는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독신'과 '무보시'를 출가자의 삶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신도들의 시주로 운영되는 승단에 스님들에게 보수의 기준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수행자에게 사회적 잣대를 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수행승을 운수납자(雲水衲子)라 하는 이유는 낡은 천을 모아 누덕누덕 기워 만든 옷을 입고 물같이 한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구름과 물처럼 살기 때문이다.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처를 지속적으로 옮겨서 생활하는 스님들이 대부분인데도 세속적인 세금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일부 총무원에서 교역직 종무원을 살거나 주지소임을 맡더라도, 이는 평생을 두고 하는 업이 아니라 잠시 종단의 명에 의해 직책을 사는 봉사일 뿐이다. 이들에게 잠시 주어지는 최소한의 보시라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용인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종합화학(주),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병은 무게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게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57기 - 6월 15일(목) 오후 2시 - 18일(일) 12시

〈매월 1회 실시 -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수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 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 2004-8207, 8210 / 팩스 02)737-0697 휴대폰 010-6238-5923 / 011-9872-3163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su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5월 31일 수요일 (주간) 제 580호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온 하상춘 회장은 "일반인들과 장애우의 차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향기도반의

한국장애인복지회 하상춘 회장

"조금 불편할 뿐 다른 것 없어요"

구걸까지 하며 사회적 편견·소외 경험
11년간 휠체어 400여대 무상으로 보급
무료 결혼 등 장애인 복지 인권에 앞장
"법당까지 오르기 힘들어요…관심 부탁"


자원봉사 텔레마케터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하 회장.

5월 25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청 인근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복지회 사무실. 하상춘 회장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서울특별시 시의원 출마자 중증 장애인 박정혁 후보를 반갑게 맞이한다.

"악수는 한 걸로 하지요"라며 하 회장이 먼저 말을 건내자 박 후보는 "장애인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권익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하 회장은 "장애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연신 웃음을 짓는다.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하 회장과 중증 장애인인 박 후보의 만남.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악수조차 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말 보다는 웃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1949년 경북 달성의 농촌 마을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하 회장.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가 되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비록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움직일 수 없어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했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한글을 깨쳤고 17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동네 친구와 함께 독립을 하기 위해 무작정 전라도 목포로 갔다.

목포에서 처음 한 일은 동네 가게를 돌며 볼펜 등 사무용품을 파는 일. 억지로 죽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뭔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하 회장은 문구용품을 파는 일조차 행복이라 여겼다. 이후 경기도 송탄에서 악세사리 장사도 해 보았고 심지어는 전철이 개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구걸까지 하는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하 회장은 "정말 억척같이 살았다"고 회고한다.

"29살 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때부터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두배, 세배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딸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으니 가족을 위해서는 할만큼 한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하반신 불구로 살아온 하 회장은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를 경험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장애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신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휠체어를 보급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한 하 회장은 1995년 사재를 털고 주위로부터 희사를 받아 휠체어 80대를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를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만해도 복지 정책이 지금과 달리 열악했기에 정부에서 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주위에서 한번 하고 말겠지 하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 회장은 올해까지 400여대의 휠체어를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했다.

처음에는 사재를 털었고 매년 후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휠체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후원을 장려하는 텔레마케팅.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터들이 후원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그동안 모연된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리고 후원을 독려한 결과 매년 꾸준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 회장은 장애인들의 결혼에도 관심이 많다. 자신도 가정을 가진 이후에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기 때문. 2003년 8쌍을 무료로 결혼시켰고 제주도 신혼여행비까지 마련해 주었다. 올해도 하반기에 결혼식을 열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개인택시 교통봉사대의 후원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야외 나들이를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6월 7일 300여명이 경기도 양평으로 나들이를 갈 계획이다.

설과 추석에는 서울시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증 장애인들에게 쌀과 고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도 하 회장이 빠뜨리지 않는 '행사'다.

장애인들 사이에서 하 회장은 '대변인'으로 통한다. 말이 통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하 회장에게 연락만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4일에도 하 회장은 강원도 횡성을 다녀왔다. 중증 장애인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말을 잘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진술서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다. 하 회장은 담당 경찰에게 장애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큽니다. 보이는 그대로 순박하고 거짓말조차도 잘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단지 신체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항상 뭔가 잘 못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요. 앞으로 그같은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어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하 회장. 그러나 사찰에 가겠다는 생각은 포기한지 오래다. 휠체어가 법당까지 올라갈수 있는 사찰이 드물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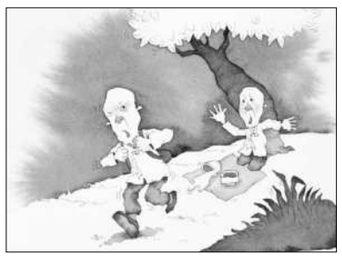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4> 용정차

'하늘엔 극락, 땅에는 항주(杭州), 소주(蘇州)' 라고 했다. 물자가 풍요롭고 교통이 발달한 데다가 풍광마저 뛰어났기 때문이다. 정원과 호수가 많고 예로부터 '쌀밥에 생선국 먹는 곳'이며 게다가 '실크(비단)의 고장'이기도 했다. 먹고 입는 것에 문제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차문화가 발달되기 마련이다. 용정차도 이곳이 원산지이다. 인근의 영은사(靈隱寺)는 임제종 양기파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영은보제(靈隱普濟1179~1253)선사는 전등역사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등회원>20권을 편집했다. 소동파(1036~1101)가 항주 자사(刺史)를 두 번 지냈고, 인근의 서호(西湖)에 제방을 쌓은 까닭에 소제(蘇堤)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전해져 온다. 그런데 그 축조비용을 도첩(승려증)을 만들어 판 돈으로 충당했다고 하니 그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다.



몇 년 전 항주, 소주를 찾았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그리 유쾌하지 않다. 그 유명한 서호(西湖)도 너무 기대를 한 탓인지 그렇고 그런 보통 호수에 불과했다. 근처 영은사에 갔을 때 비래봉(飛來峰)에는 338개의 부처님이 조각돼 있었다. 고구려의 보덕화상이 백제로 망명올 때 당신이 정진하던 바위를 통째로 가지고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를 '비래방장(飛來方丈)이라고 부른다. 석회암 덩어리 비래봉은 멀리 인도에서 날아온 산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인도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수백개의 부처님을 조각하여 눌러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보(裨補)로 조성된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찬찬히 둘러보고 있는데 집합시간이 되었다고 사방에서 소리친다. 해질 무렵이라 가이드가 재촉을 해대는 통에 제대로 친견도 못하고 대충 훑어보고는 모두가 '붙들려' 간 곳이 용정차(龍井茶) 다원이었다. 차를 팔아주는 인연으로 떨어지는 구전(口錢)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그쳤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씁쓰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서호 호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영은사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허리춤에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찻물병을 차고 있었다. 투명한 프라스틱 병에 찻잎이 가라앉아 있는 푸르스름한 녹차 마시는 일이 일상사가 되어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다반사(茶飯事)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선사들은 차 한 잎 차 한 잔에도 공부의 도리가 스며있다.

남전 스님과 귀종 스님이 함께 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목이 말라 차를 달였다. 불쑥 남전이 물었다.

"다른 날 어떤 이가 극칙(極則:불법의 요체)을 물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소?"

그런데 귀종 스님 답변은 언뜻 듣기에는 동문서답이었다.

"이 자리에 암자를 세우면 좋겠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금 서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불법의 요체라는 의미이다. 제대로 답변한 것이다. 거기다가 조주차 한잔을 더한다면 금상첨화다.

길 가다가 차 달이던 남전 · 귀종 선사 선문답
"불법 요체 묻는다면?" "이 자리에 암자를 …"

그런데 남전 스님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귀종 스님이 무소유 납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토굴타령'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았다. 신경질적으로 되쏘아 물었다.

"암자짓는 일은 그만두고 극칙의 일은 어떠하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거듭하는 남전이 하도 한심해서 귀종은 차관을 걷어 차 버렸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더니 엎질러버린 차를 아까워하면서 남전이 말했다. "사형은 차를 마셨으나 아직 나는 먹지 못했소."

이에 귀종이 혀를 끌끌차며 말했다.

"그런 소견머리로는 물 한 방울도 녹이지 못하겠소." 그리고는 쌩 하니 혼자 가버렸다. 복장 터지기 전에 차라리 떼버리고 각각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일이다.

그런데 그 차는 어떤 지방에서 나온 차였을까? 용정차? 알 수는 없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력회 회원들이 염불절 정진에 앞서 장궤를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있다.

불력회 '염불절정진' 현장

염불만 오래 하다보면 지루해져 자칫 정신이 흐트러지기 쉽다. 절만 하다보면 피곤을 쉬 느낄 수 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발심이 제대로 돼 있다면 어떤 수행을 하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작심한 대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염불수행과 절수행을 혼합한 형태의 '염불절정진'을 하는 불자들이 있다. '불력회(佛力會, 02-2260-3892)'라는 수행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염불수행이나 절수행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염불절정진'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靜과 動 조화속 본래자성 드러나

두가지 수행방식 장점 결합
지루하지 않고 집중력 높아져

▶ '나~무 아미 타~불' … '남무아미 타~불'

5월 25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와룡동 아미타사. 20여 명의 불자들이 법당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곧추세운 채 합장을 한 상태에서 녹음테이프에서 들려오는 '나무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따라한다. 한 번은 '나~무 아미 타~불'이라는 운율로, 또 한 번은 '남무아미 타~불'이라는 운율로 반복하길 30여 분.

지도법사이자 불력회 회장인 박종린 거사(51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가 죽비를 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선창하며 절을 하자, 나머지 불자들이 박 거사가 염송한 운율을 그대로 따라하며 절을 한다. 절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일어서면서 다시 염하는 동작이 반복된다.

이렇게 10여분이 지나자 회원들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법복 상의가 땀에 젖어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절하는 속도가 보통 불자들이 108배를 하는 속도보다도 빨랐고, 거기에다 염불까지 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많다.

불력회 회원들이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염불절' 정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올 1월. 불력회는 회장인 박종린 거사와 염불절정진을 해오던 불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수행단체. 이들은 대부분 20~30년 동안 절수행과 염불수행 등을 해 오던 차에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염불절정진이 정신을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 자신 돌아보고 의지 다지고

7년째 108배 염불절정진을 해오고 있다는 성담 거사(63 · 서울 대치동)는 "염불절수행을 지극하게 하다보니 의식에만 머물러있던 내 자신이 몸에서 나오는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삶의 목적을 돌아보고 의지를 다지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에서 매주 수요일 법회 때마다 오고 있다는 권오영(53) 보살은 30년 전 불교에 입문해 안 해 본 수행이 없다. 그런데 염불절정진을 하고부터는 환희심을 느끼는 맛에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수요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요즘도 집에서 하루 1080배 염불절수행을 한다.

박주영(47 · 서울 종로구) 거사는 "염불은 정적이고 절은 동적인데 반해 염불절수행은 정과 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고 집중력이 높아져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불력회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법회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저녁에도 철야로 염불절정진을 한다. 토요 정진은 도피안사 길상사 화계사 등지에서 돌아가며 한다.

평상시에는 매일 108배를 하고, 아침에는 삼귀의 저녁에는 사홍서원을 하며, 끼니때마다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천수경과 금강경 등 경전 한 구절씩 독송하고 있다. 안거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1만배 염불절정진도 한다.

박종린 회장은 "염불절은 입으로 몸으로 표현하되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본래자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며 "두 가지 수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승효과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염불절정진은?

정해진 리듬과 박자에 맞춰
나무아미타불 염하면서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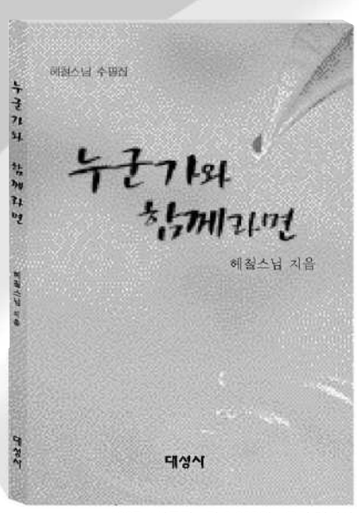
말 그대로 염불하며 절을 하는 방식이다. 이론적 근거가 있는 수행법은 아니다. 이렇게 정진을 해본 불자들은 "염불수행은 염불에 주력하는 수행인데,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절 수행은 절을 하다보면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절만 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염불절 수행은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염불절정진도 궁극은 자신의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박종린 회장은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구의(身口意) 3업을 녹여야 하는데, 구업을 녹이기 위해 염불을 하고, 신업을 녹이기 위해 절을 하고, 의업(생각)을 녹이기 위해 '나무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등이 아닌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이유는 본래 자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다.

정진방식은 '나무아미타불'을 정해진 리듬과 박자에 맞춰 염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다. 절을 하는 속도나 호흡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호흡하는 것조차 잊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나무아미타불을 일정한 리듬에 맞춰 염하는 이유는 정신을 집중시키고, 자신이 하는 염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잠시 스치는 인연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특히나 슬프거나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군가'라는 존재는 큰 힘이 되어준다.
그 누군가가 도반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 주고,
몸으로 막아 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20P / 신국판 / 값 6,000원 / 옥천 대성사

저자 ▌혜철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1995 한국불교태고종 성원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0 옥천대성사 주지 취임
2001 옥천군 바르게 살기 종교분과위원장
2003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남부분원장
2004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장 취임
2006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2006 옥천군 문화원 총무분과 이사
선남선녀 불자들의 특별 만남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옥천읍 대성사 043)732-5560

나의 病은 내가 고친다
언제까지나 약을 의지하고 병원만 다니시렵니까?
만가지 질병이라도,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병이라도 원인과 치료방법만 알면 돈 없이도 내 힘으로 완치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이용법, 자연 치료법, 요가운동 치료법, 프라나 치료법 등 여러가지 치료법을 무료로, 자세히, 정성껏 알려 드립니다.
위장병같이 오장육부에서 생긴병, 고혈압, 당뇨, 아토성, 각종 암병도 치료 가능합니다.
병이란 나의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무료상담 031)769-7842 010-3336-3745

(주)천성건설
공사개요 웰빙공사
◆각종 설비공사 일체
◆석재, 부품 일체
◆석, 조각, 석물 일체
◆석, 불상, 좌상, 미륵
◆석, 탑, 마애불상조각
◆건설부문
◆석굴, 납골당 공사
◆석굴, 법당 조성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석 공사 일체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사완료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상주 석굴법당 50평
◑우리동 축대공사 응덕사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본 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공 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공사문의 :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010-4581-4841
이인창 소장 (010-6685-0203)
(株)天星建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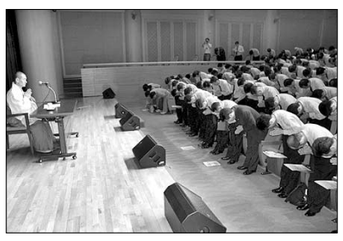
부처님법 배우니 웃음 신고 씽씽~

대구 운불련, 서울로 '청법(聽法) 나들이'

"행님! 법문 시간에 졸면 우찌합니꼬?"
"안 잤다카이, 와 그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말해보이소!"
"…."

주황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똑같이 입은 경상도 사나이들이 옥신각신했다.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서울 조계사에 올라와 놓고, 정작 중요한 시간에 졸았던 것이 영 못마땅한 눈치다.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역 회원 300여명이 서울 조계사로 '청법(聽法)' 나들이를 왔다.



대구운불련 회원들이 합장반배로 감로법을 청하고 있다.

새벽 6시에 대구를 출발, 장장 4시간을 넘게 6대의 대형버스에 몸을 실고 이곳으로 달려왔다. 전날인 23일에는 230명이 왔다 갔고, 다음날인 25일엔 200여명이 청법 나들이에 나선다.

3일동안 세차례 나눠 상경

"택시 3부제 땜시, 이렇게 세 차례 나눠 올라 왔지예. 우리 회원이 700명이 넘거든예. 회원 전부가 스님 말씀 들을라꼬 서울 왔서예. 한번 보이소. 조계사 경내가 주황색 물결로 넘실대지 않능교?"

대구운불련 회원 오철환(36)씨는 스스로 운전기사불자임을 뿌듯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회원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로 올라온 것 자체가 주목받을만 하다. 그럼, 대구운불련은 왜 대단위로 뭉쳐 상경길에 올랐을까?

"우리 운전기사불자들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아닌교? 운불련 회원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작은 법당의 '주지'라고 생각합니데이. 일 년에 두 번씩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가 스님들의 고귀한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꼬."

운불련 활동 3년차인 남형수(34 · 시헌)씨의 말에서 대구운불련이 서울 '청법' 나들이에 나선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대구운불련은 지난 1986년 창립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의 조계종 교구본사, 삼보사찰, 오대 적멸보궁 등을 찾아 '청법' 구도행을 해왔다. 그간 법을 청한 스님들만도 300여 분이 넘는다고 한다.

"조계사 참배는 대구운불련에서는 처음이라예. 개인적으로 30년 전, 조계사에 왔었는데예, 지금 보니 억수로 변했네예…. 운전기사란 직업은예, 욕심내거나 잡생각을 내면, 곧바로 사고로 연결돼예. 매번 이렇게 절에 찾아가 스님 법문을 들으면, 그런 잡념이 말끔히 없어지지예."

운불련 회원 중 홍일점인 정부돌(53)씨. 이번 청법 나들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법문 하나 놓칠라 비장한 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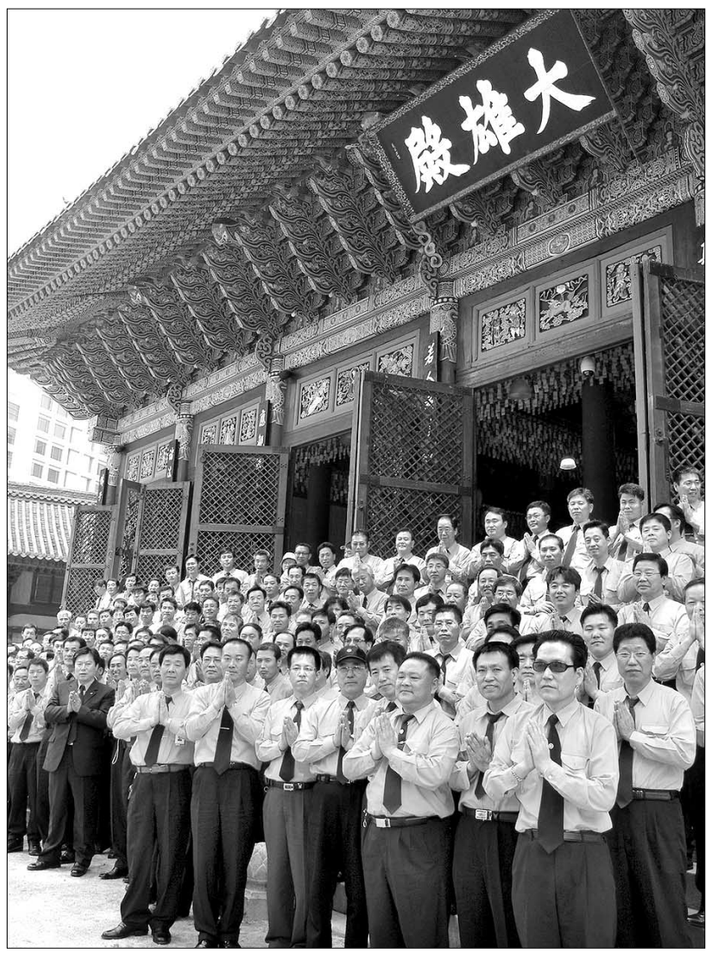
대구운불련 회원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조계사를 1시간 넘게 둘러봤다. 삼삼오오 모여 향을 사르며 탑돌이를 하고, 경내 나무 벤치에 앉아 법담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둘러보는 운불련 회원들의 얼굴에는 흐뭇함이 묻어났다. 연신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심장'이란 말을 토해냈다.

잠시 후, 회원들은 장소를 옮겨 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청법의 발원이 간절했다. 재가불자로서, 운전기사로서 스님에게 올리는 청법은 남달랐다. 그래서일까? 회원들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법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이었다.

"여러분들은 달리는 법당의 법주이시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실어 날라야 제대로 싣는 걸까요? '인시복덕(人施福德)'이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보시가 제일 큰 복덕이라는 뜻이지요. 운전기사불자님들은 사람을 실어 나르되, 그 분들에게 불법과 자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장경'을 실어 나르는 우직한 소처럼,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리의 포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요?"



조계사가 주황색 와이셔츠 물결로 넘실댔다. 사진은 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대구 운불련 회원들.

"마음의 배가 꽉 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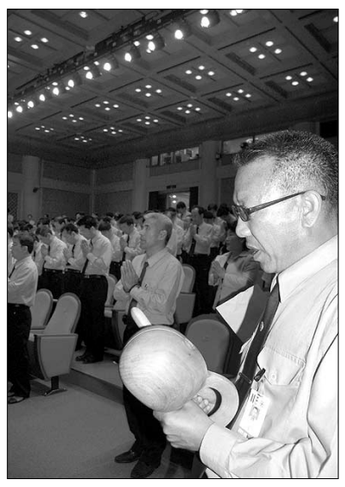
50분간의 법문이 끝나자 회원들이 낯빛이 환해졌다.

운불련 5년차인 김규동(53 · 길명)씨는 '마음의 배'가 배부르다고 말했다.

"'우직한 소처럼 수행하라'는 스님의 법문에 감명을 받았지예. 운전기사들은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생활하다보니, 늘 마음이 답답하지예. 이렇게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돼 기쁘네예."

회원들은 법회를 끝내고, 하나둘씩 조계사를 나와 대형버스에 올랐다. 안거를 마친 수행자들이 만행을 떠나왔다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본래 자리로 떠나기 위해서였다. 운불련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듯이 주황색 와이셔츠 운불련 '법복'을 입고서 말이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대구 운불련 회원들이 이경수 구도부 차장의 집전으로 청법가를 올리고 있다.

불자 운전기사 700여명 서울 조계사 순례

창립이후 사찰 돌며 300여회 청법 구도행

일터가 도량입니다

'글 보시'로 하루의 행복 선물

혜화경찰서 창신지구대 고중현 경사

불교든 경찰이든 딱히 해야겠단 의지는 없었다. 우연히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창신지구대 고중현 경사(48). 경찰 생활 20년 끝에 '금당(金堂)'이란 법명을 받고부터 자신에게 깃든 부처님 집을 보았다고 한다. 또 어느 날 부터인가 불자경찰관이 되버린 자신을 보고서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한다.



고중현 경사가 서울 동묘치안센터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호법신장'의 서원을 다지고 있다.

"불교는 왠지 기분을 좋게 했어요. 사실 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아직도 찬불가보다 찬송가가 귀에 더 익숙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8년 전, 도봉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동향의 한 스님을 만났죠. 그 때 들었던 스님의 말 한 마디가 기억에 생생해요. '구경만 다녔던 절, 이제는 공부하러 절에 다니지!'"

고 경사는 그 길로 조계사 불교기초교리반에 들어갔다. 3개월간 수강하고, 곧장 2년 과정의 불교대학에 입학도 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르듯, 불교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욕심도 슬그머니 들기 시작했다. 2005년 10기 조계종 포교사 고시를 봤고, 덜컥 합격을 하면서 서울지방청불교회 총무까지 맡게 됐다.

"꿈에도 직장불자가 되리라 생각지도 않았어요. 먼발치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불교의 맛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경찰생활에 변화가 생겨났어요. 피의자에게 윽박지르던 말과 행동이 사라지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담담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고 경사에게도 경찰업무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있었다. 형사기동대 시절, 화염병과 최루탄이 남발하는 시위현장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며 경찰로서 회의심을 가졌다.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도 힘들게 했죠.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경찰관 생활을 그만 두고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공업중생'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경찰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고충. 돌이켜보니,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기심이 원인이었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까닭을 불교에서 찾게 되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은 쉽게 찾게 됐다. 바로 기도였다. 3년 넘게 매일 천수다라니를 108번 읽고, 3천배를 6번씩이 회향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승진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도량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고 기도를 했어요. 중생이 편안해야 부처도 편안하다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처럼 말이에요."

고 경사는 올 초부터 또 다른 서원을 세웠다. 직장 내 포교다. 매일 동료 경찰 16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다. 경전이나 시에서 감명 깊게 읽은 글들을 모아 '글 보시'를 하고 있다. 동료 경찰관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열게 하려는 고 경사. 그 소박한 마음에서 깊은 신심이 묻어났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011-9852-0075 (총무스님)

제4기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기초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직 범음 · 범패)

◆ 모집 : 수시모집
◆ 매주강의요일 : 수, 목 (오후 4시~6시)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 겸 강주 김도진 화상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6. 7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겸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겸 천일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족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이 생에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들 소중이 성취 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하얀마음선원 덕봉 합장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3> 화두 공부가 무르익었다면

이 단락에서는 <선가귀감> 21장에 나오는 '타성일편(打成一片)'과 '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서산 스님의 '업' 풀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工夫 若打成一片則 縱今生透不得 眼光落地之時 不爲惡業所牽

화두 공부가 무르익었다면 설사 금생에 깨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쁜 업에 끌려가지는 않으리라.

한문 원문에 나오는 타성일편(打成一片)에서 '타(打)'는 '성(成)'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뜻을 강조하는 접두사로서 '타성(打成)'은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일편(一片)'은 '나무 파편 한 조각'으로 풀이되지만 여기서는 '한 덩어리'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타성일편'은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화두에 집중되어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가에서 말하는 타성일편은, 화두와 하나가 되어 알음알이로 분별하는 모든 마음을 없애고 온갖 차별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너와 나, 이것과 저것, 주(主)와 객(客)이 사라져서 달리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수행이 완성되었거나 화두 공부가 무르익어 수행이 완성될 즈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선종에서는 늘 이 말로써 서로 대립되는 관념을 없애고 어지러운 많은 견해와 현상들을 한 자리에서 아울러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을 쓰고 있는 예들을 살펴보면, <벽암록> 제6칙 송(頌)에서 "길고 짧은 것, 좋고 나쁜 것이 한 덩어리로 되니 어떤 것엔들 하나하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다[長短好惡 打成一片 一一拈來 更無異見]"라고 하였고, 제17칙 평창에서는 "내가 사십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었다[我四十年方打成一片]"고 하였으며, <무문관> 제1칙에서 "오래 오래 무르익어 자연 안팎으로 한 덩어리가 되니, 마치 벙어리가 꿈꾼 것과 같아서 오로지 자신의 체험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久久純熟 自然內外 打成一片 如啞子得夢 只許自知]"고 한 내용들이 있다.

본문의 '안광락지지시(眼光落地之時)'는 줄여서 '안광락시(眼光落時)'라고도 하며 '사람이 마지막 눈빛을 땅에 떨어뜨릴 때'라는 뜻으로서 사람의 죽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선요>에는 이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설사 금생에 화두를 뚫어 삼키지를 못하고 죽게되어 온갖 악도 가운데 놓일지라도, 어떤 경계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으니 거기에 거리낄 데라고는 없다[反使今生呑透不下 眼光落地之時 縱在諸惡趣中 不驚不怖 無拘無絆]"는 내용이 있다.

타성일편, 화두와 하나 되는 것
주객이 사라질 때 지혜 드러나

나쁜 업을 지어야 악도에 떨어지는 것인데, '화두와 하나가 된 사람'은 선악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있으므로 어떤 경계에도 놀라거나 두려워 할 일이 없다. 여기에서는 염라대왕이나 저승사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선요>에서 "설령 염라대왕이나 모든 귀신들을 만나더라도 그들 모두 두 손 모아 공경하리니, 무엇 때문인가? 화두 참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야지혜의 부사의(不思議)한 위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모든 업이 있더라도 마침내 반야의 힘이 더 수승하니, 마치 금강의 돌기둥과 같아서 뚫어도 뚫리지 않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業者 無明也 禪者 般若也 明暗不相敵 理固然也

업(業)이란 어두운 무명이요 선(禪)이란 밝은 지혜이다. 어두운 무명과 밝은 지혜가 서로 맞설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업'은 범어 'karman' 빨리어 'kamma'를 번역한 말인데 조작한다는 뜻이다. 음역(音譯)으로는 '갈마(羯磨)'라고 한다. 그 뜻은 행위, 행동, 작용, 의지 등으로서 몸과 마음의 활동 전체를 말한다. 보통 신구의 삼업이라고도 하는데, '업'에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들어 있다. 이 사상은 미래의 우리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 주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업(業)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한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일에는 분별하는 주체와 대상이 있게 되는데, 이런 주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무명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명(無明)'은 범어 'avidyā' 빨리어 'avijjā'의 번역으로서 번뇌의 또 다른 이름인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무명에서 온갖 번뇌가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한다. 이 무명에서 모든 경계나 그 도리의 공성(空性)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의 모든 업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무명이 그 뿌리가 된다.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참구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어 주객(主客)이 사라지는 깨달음으로 빛나는 반야지혜를 드러내야 한다고 한다. 어두운 무명과 밝은 지혜가 서로 맞설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장로(長老)

언젠가 재가불자 두 분이 '장로(長老)'란 말을 놓고, '불교용어다, 개신교 용어다' 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불교용어다'고 설명하자 한 분이 '왜 그러냐?'고 되묻더군요.

개신교서 주로 사용하는 '장로'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장로는 본래 범어로, 한역하면 '아유솔만(阿瑜率滿)'입니다. 불교사전에는 '존자(尊者)' 또는 '구수(具壽)'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덕이 높고 법랍이 많은 비구를 가리키는 말로, 젊은 비구가 나이든 비구를 높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신교 쪽에서 장로라는 용어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893년 선교사들이 '장로회선교공의회'를 조직하면서 개신교 쪽에서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불교계에서 장로란 말의 흔적을 찾아보면, 1962년 선포된 조계종 최초 종헌에 있습니다. 이 종헌에서는 '장로원(長老院)'이란 말이 있는데, 당시 종법기구였습니다. 지금은 불교계에서는 장로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9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4강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제6

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不. 佛告須菩提, 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爲實. 當知, 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 而種善根, 已於無量千萬佛所, 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 生淨信者. 須菩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 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 無復我相人相, 衆生相, 壽者相, 無法相, 亦無非法相.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取相, 則爲着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則着我人衆生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卽着我人衆生壽者. 是故, 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언해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하! 자못 중생이 이 같은 말씀 장구(章句) 듣잡고, 실(實)한 신(信)을 낼 이 있으리이까, 못 하리이까?"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일르시되, "이 말 하지 말라. 여래 멸(滅)한 후의 후(後) 500세에 지계(持戒)하며 복(福) 닦을 이 있으면, 이 장구에 능히 신심 내리니, 이로 실(實) 삼아라. 이 사람은 일불(一佛) 이불(二佛) 삼사오불(三四五佛)께 선근(善根)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무량천만불(無量千萬佛)께 많은 선근을 심어, 이 장구를 듣고, 한 념(念)에 이르러, 좋은 신(信)을 내는 것을 반드시 알지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다 알며 다 보나니, 이 많은 중생이 이같은 무량 복덕을 득(得)할 것을. 어찌어뇨? 이 많은 중생이 다시 아상(我相)과 인상(人相)과 중생상(衆生相)과 수자상(壽者相)이 없으며, 법상(法相) 없으며, 또 비법상(非法相) 없으리라. 어찌어뇨? 이 많은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相)을 취하면, 곧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에 착(着)하리며, 만약 법상(法相)을 취하면 곧 아, 인, 중생, 수자에 착(着)하리니. 어찌어뇨? 만약 비법상(非法相)을 취하면 곧 아 인 중생 수자에 착하리니. 이럴새 법(法)을 취함이 마땅치 못하며, 非法을 취함이 마땅치 못하니, 이 뜻인 까닭에 여래가 늘상 이르되, '너희들 비구가 내 설법이 뗏목으로 가잘빔(*견줌,비유함) 같음을 알면,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릴지어니, 하물며 비법이리오.' "

번역

수부티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대체 대체 어떤 중생이 있어,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붓다가 말했다. "수보리야, 그리 단정하지 말라. 여래가 떠나고 난 후, '후(後) 500세'의 시대에도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수많은 삶을 거치며, 수많은 부처에게 나아가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라, 이 말을 듣고서는 바로, 깨끗한 믿음에 이를지니. 수보리야, 여래는 다 보고 아신다. 이 중생들이 여래의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임을. 어째서냐. 이들 중생들은 더 이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 등, 어떤 형태의 자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환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다는 자포자기적 착각도 없다.

어째서냐, 만약 이들 중생들이 사물에서 이미지(相)를 취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편견과 고착에 빠질 것이다. 진리의 이미지(法相)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것에 고착되는 사람 또한 모종의 자의식의 착각과 편견에 빠진다. 그렇다고 진리가 없다는 판단(非法相)에 빠지는 것도 또한 또 다른 허무의 자의식이니라. 그래서 말하노니, 진리에도 빠지지 말고, 진리 없다는데도 빠지지 말라. 이런 뜻에서, 여래는 늘 말하지 않더냐. '너희들, 비구들이여, 내 말은 다만 뗏목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진리(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진리 아닌 것임에야."

나, 불교는 없다

우리 또한 불교라는 '이름'을 고집한다. 기독교가 유일신의 위세를 업고, 너무 자신을 고집하는데 대한 반작용인지도 모른다. 도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필요나 국면에 따라 여럿일 수밖에 없다. 불교처럼 자기 경전 안에 이질적인 것들, 정반대되는 주장들까지 한 삼태기(藏)에 담고 있으면서, 태연 모른척하고 있는 종교는 흔치 않을 것이다. 당연히 불교 밖에도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 다른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또 그것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교'만'의 진리는 없다! 불교가 가르치는 교설들은 다른 어디선가, 물론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든가. 불교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줄 안다.

불교가 "너는 없다!"를 가르치면서 "나, 불교는 있다"고 했을 리가 없다. 지금 <금강경>은 바로 그 법아(法我)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전편을 할애하고 있다. 진리가 자신의 이름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피비린내와 살상이 금전이나 지위를 두고 싸우는 것에 비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또 어느 특정한 철학이나 종교의 독점일 수도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 말을 그러나 어느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교만이 어렵사리 자신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타자의 가치를 승인해 주었다. 불교의 관용과 유연성은 바로 이 어려운 양보, 즉 타자 존재의 승인(?)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 이미 서양에도 있었다



불교는 이미 서양에도 있었다

불교는 진리가 도구라는 생각에 철저하다. 그러면서 불교의 독특함과 강점은 자신의 사유를 체현하는 열정의 강렬함과 그 수단의 정교함과 풍부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말에 전폭 동의한다. 그러니, 둘은 공유점이 많고, 서로 배울 곳이 많다. 실제 서구는 지금 불교를 배우는데 열심이다. 불교의 자산인 참선과 명상 등의 수련법을 다양하게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수입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는, 특히 한국불교는 이 대화의 광장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자꾸만 '칩거'하려고 한다. 문을 닫고는 말한다. "불교의 심원한 깊이를 천박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뭘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물질에 찌들고, 이기심에 철저한 서양사람들이 불교의 근본 소식을 깨닫기에는 어림 반 푼어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의 근저에는 불교의 최종 경계가 화두 끝의 신비적인 돌파의 체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필칭 깨달음이란, 한 순간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듯 저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번뇌와 망상으로 분열되어 있던 마음이 지속적 주시와 자각을 통해 치유되어 가는 '점진적 과정'이다. 그 목표는 신통이 아니라 통합이며, 과정 또한 돈오(頓悟)가 아니라 점수(漸修)이다.

깨달음을 신비화해서는 안 된다. 동양철학에는 무슨 거창한,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알면 우주를 말아먹고, 일거에 일상의 누추함을 벗어던지고 비상할 '비밀의 권능'은 없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굴곡을 거치며, 작게 혹은 크게 삶을 배우고 있는 바, 그 속에서 각자 깨달음의 불씨들을 일깨워가고 있는 수행자들 아닌가.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에밀레종에선 왜 아기울음 소리가 날까?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은 음향 · 미술 · 기술의 삼박자를 갖춘 걸작이다. 종 제작에만 무려 34년이 걸렸다.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 신동원 엮음 | 한겨레출판 | 1만3000원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학생들이 꼽는 한국 과학사의 비밀 8가지는?

2004년 가을학기 카이스트에서 신동원 교수의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를 수강한 학생 28명은 첨성대, 에밀레종, 고려청자, 자격루, 동의보감, 수원 화성, 대동여지도 등에 의문을 품고 숨은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우리의 유물 8가지를 택해 학생들이 직접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것.

이 책 <우리과학의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어 찾아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고, 다시 참고문헌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토론을 통해 글로 발전시켜나간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을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속으로 들어가 보자.

성덕대왕신종을 꼽은 학생들의 프로젝트명은 '무엇이 에밀레종을 울게 했나'.

학생들은 최신 논쟁거리를 흡수하고, 학생들에게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다방면의 전문가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명복을 불교의 이념안에서 승화시키기 위하여 제작에 나섰음에도 아름다운 종소리를 얻기 위해 인이라는 비금속을 풍부하게 함유한 아이를 넣었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당시 신라의 국교가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였고, 문헌을 보아도 종을 만든 이유와 성분이 명시돼 있지만 에밀레종을 만들때 아이를 넣었다는 언급은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학자들을 만나면서부터 확신은 더욱 커진다.





수원 화성 건축에 사용된 거중기(사진 위)와 첨성대.

만약 아이를 넣었다면 사람의 뼈에 포함된 인(P)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료를 종내부의 돌출부와 바닥에서 높이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여 성분분석을 했지만 인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더 정확한 증거자료는 199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극소량원소분석기로 철저히 분석했을때도 인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설이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진동수가 거의 비슷한 2개의 음파가 간섭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맥놀이(BEAT) 때문.

타종직후 9초가 지나면 대부분의 고주파 음들은 소멸하고 저주파 음들만 남는다. 이중에서 아이울음소리와 비슷한 168헤르츠의 음이 비교적 또렷이 들리는데, 에밀레종의 이 음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이 음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면 168.52헤르츠와 168.63헤르츠의 음으로 분리되는데 이 두음이 간섭현상을 일으켜 두 음의 차인 0.11헤르츠, 즉 9초마다 맥놀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웅웅'하는 듯한 아기 울음소리는 우연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현상임을 규명한다.

학생들은 또 40년간 7000여 개의 범종을 만든 우리나라 유일의 주종장인 원광식 선생의 작업장에서는 에밀레종 소리의 비밀이 모래에 있을 거라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감포 바닷가의 흙으로 만든 거푸집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유물 보존처리 전문가인 신용비 연구원,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종을 예불 전마다 친다는 계룡산 갑사의 동종 관리 스님 등 전문가들을 통해 최신 연구의 한복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책은 이밖에도 대동여지도의 정확성을 유클리드 기하학 원리에서 찾고, 수원 화성과 관련해선 화성 축조후 이웃나라가 침공했을 때 어떻게 막아 낼 수 있는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조와 정약용, 노동자 그리고 현시대 건설자가 한자리에 모여 화성 건축기간의 비밀을 풀어가는 가상공간을 꾸몄다. 또 첨성대와 관련해서는 국립중앙과학관에 복원해논 첨성대에 직접 올라가 역할의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가 던지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 스스로 사유하고 정답에 근접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발로 뛴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감탄 자아내는 다석 류영모 선생의 귀일사상



다석 강의 현암사, 다석학회 지음

20세기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사상가들이 많았다.

김일부 선생이나 탄허 스님, 장일순 선생 등등. 바로 다석 류영모 선생 또한 그러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다.

하지만 다석 선생을 다른 사상가들과 구분시킬 수 있는 것은 독특한 자신 만의 사상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귀일사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글화 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상가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성이자 감탄을 하게 만든다.

다석 선생의 여러 글들을 읽어봤지만, 이렇게 다석 선생이 직접 강의한 것을 글로 옮겨 읽게 된 것은 나에게 영광이자 행운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방법이 없다.

이번 책이 나오자 마자 구입해서 읽었는데, 역시나 탄성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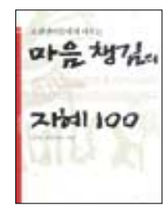
다른 여타책에서 보고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나, 제자인 김흥호 선생이나 박영호선생의 손을 거쳐 쓰여진 것이 아닌 다석 선생 생각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책값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소장가치는 100% 보장 할 수 있다.

(73053936, book.naver.com/bookdb)

홍익인간 실현 지향하는 우리 정신문화에 매료

마음챙김의 지혜 100: 조선선비들에게 배우는 봉황동래, 윤홍식 · 오병문 지음



선명히 깨어 있고자 고군분투하는 선비들의 노력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동안 수행관련 서적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던 것이 나 아닌 밖에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의 삶과 지혜를 차치하고 구태여 이질적인 문화와 공간에서 무언가 배우려 애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듯 하다. 물론 양질의 것은 적극적으로 소화를 해야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역시 우리것만이 최고야'가 아니라 우리 정신문화가 절대 외국에 뒤지지 않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수 있어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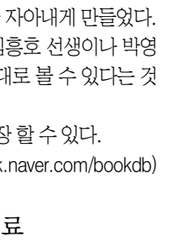
특히 수행이란 것이 마냥 삼매만을 추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 이념의 실현에 지향점을 둬야 한다는 점에 매우 동감한다. 아마도 이 책의 백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매순간 마음을 챙기기 위한 방법론이 인상적이다. 가치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꼭 읽어볼 책이라 생각된다.

암튼 후속작이 계속 나와서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가 온전하게 조명되기를 바란다.

(postego, kyobobook.co.kr)

책속의 밑줄긋기



○… '깨끗한 하늘 계획' '건강한 숲' '낙오자 없는 교육' 같은 슬로건은, 이들 정책이 실질적으로 '엄격한 아버지'에 기반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정한 부모'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을 누그러뜨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스러워하는 중간층 사람들을 누그러뜨리고 심지어 호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 등장할 법한 언어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반대되는 선전용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간층 사람들을 달래는 동시에 지지층을 넓히는 효과를 내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의 전략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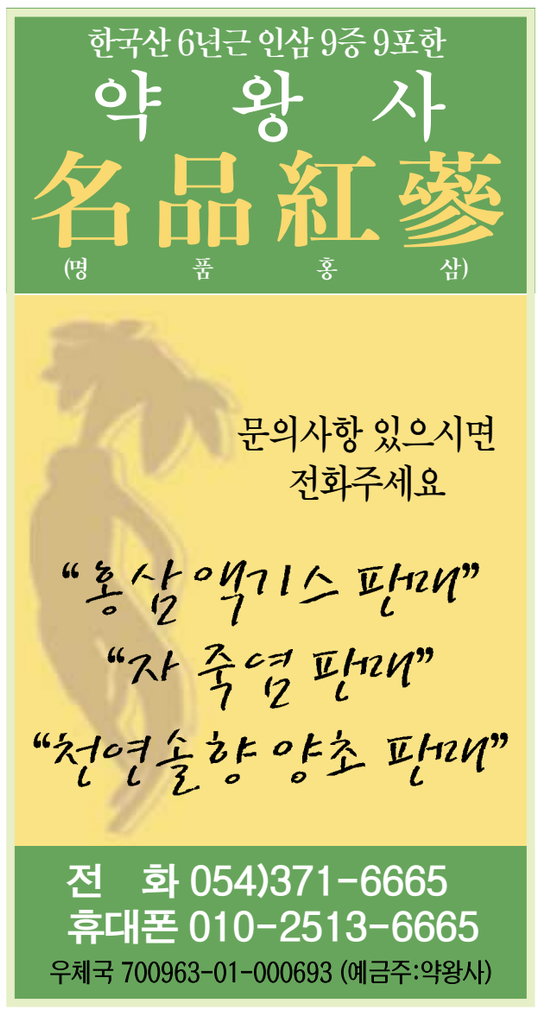
그들이 '더러운 대기 법안' '숲 파괴 법안' '공교육 파괴 법안' 따위를 들고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57쪽에서, 삼인, 조지 레이코프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가야산 호랑이’ 일갈이 그립다

‘내가 성철 스님을 처음 뵌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전, 송광사에서 한 철을 나며 여름을 지낼 때였다. 스님이 나타나자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물박사여서 세상천지 모르는 것이 없다지? 글이 우리나라 제일이래.” 모두들 ”철수좌“하며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마도 스님의 박학다식함과 십년 장좌불와 수행을 부러움 반, 외경심 반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때 스님의 나이 서른다섯으로 칼날같이 정진하던 시절이었다.’

일타 스님 회고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법전 스님 외
인연 | 9800원

성철 스님(1912~1993)이 가야산을 떠난지 13년. 아직도 대중들은 성철 스님이 곁에 있는듯 하다.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시절에 가야산을 울리던 큰스님이 더 그리운지도 모른다.

이번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에 나오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 열 한분이 쓴 11편의 이야기는 성철 스님과의 ‘인연’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

성철 스님을 생전에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의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김양수 화백의 선화와 곁들여 소개하고 있는 것.

열한분이 들려주는 성철 스님의 훈훈한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야기를 만나보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성철 스님은 왕왕 ‘공부하지 않는다’며 대중을 밖으로 끌어내 봉암사 계곡의 시린 물속에 가차없이 집어넣곤 했어요. ‘분심을 내서 공부하라’는 경책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사 선원장 지환 스님은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동안 저절로 입이 벌어졌지요. 현대물리학, 위상수학, 유크리트 기하학, 실험 심리학등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회고한다.

삼정사 주지 원소 스님은 “사미계를 받기 며칠전 군불을 지피며 속퇴를 고민할 때 큰스님이 지나가며 ‘인생의 일대사를 해결하는데 승려처럼 보람있는 일은 없다. 우리들 인생이란 너무 짧은 것이다. 쓸데없는 생각마라’라고 격려해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한다.

직지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사람을 푸근하게 감싸주기보다는 사람을 격발시키는, 떨쳐 일어나게 하는 그런 눈빛이었다”고 말하며, 박경훈 前 동국대 역경위원은 “처음 보자마자 교만하다며 교만을 떨쳐야 견성이든 성불이든 한다 말했다”고 회상한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 교수, 백련사 신도회장 김천진성보살,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은 “3000배를 끝내는 순간 신선한 전율과 온몸을 감싸게 하는 평화를 느끼게 해준 스님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를 읽는 동안 성철 스님의 엄한 가르침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성철 스님과 맺은 특별한 인연 간직한

11명이 들려주는 ‘서릿발 같은 카리스마’



맨발로 찾아다닌 전세계 선방 풍경

길을 걷는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김사업 지음 | 더북컴퍼니 | 9000원

도쿄대, 교토대, 일본의 두 명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던 장휘옥, 김사업 교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두 사람은 경남 통영의 외딴 섬 오곡도로 들어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뒤, 전세계의 선방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수행법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다.

하루 15시간씩 좌선하고 겨울에도 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찬바람을 맞으며 수행하는 일본의 선방 고가쿠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좌선과 행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묵언과 오후 불식으로 집중수련하는 위빠사나 수행처 셰우민 센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 등 각 나라 선방의 독특한 수행법이 소개된다. 맨발로 찾아다닌 세계 각국의 선방 풍경, 그리고 치열한 수행 체험!

이 책에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 수행의 방법, 수행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살아가는 방식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장의 마지막에 그 수행처에서 가르치는 수행법까지 정리해 두었다.

오곡도 명상수련원(www.ogokdo.net)에서는 이들이 전세계의 선방을 다니며 체험한 다양한 수행법의 핵심을 행하고 있으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행자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김원우 기자



맑고 향기롭게
법정 엮음
조화로운삶
1만2000원

무소유…침묵…간소한 삶…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직접 가려 뽑은 50편의 글이 담겨 있는 대표 산문선집이다.

법정 스님의 글은 한국 수필 문학의 대표, 우리 시대의 산문 정신으로 손꼽힌다. 특히 산중 생활에서 길어 올린 명상과 사색이 특유의 계절적인 감성과 어우러져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영혼의 피안처가 되어 준다.

법정 스님의 산문은 문학적인 수식과 꾸밈이 아닌 실천하는 삶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스님의 글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 답변을 준다.

이제는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철학, 침묵과 홀로 있음, 단순하고 간소한 삶은 이제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목표가 되었다.



삶의 나침반 1
출판사 열림원
허문명 지음
9500원

숭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생각의 전복과 마음의 혁명을 일으킨 숭산 스님.

스님은 폭넓고 유연한 가르침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논리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스님은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를 넘어 삶의 방향을 이끌어준 어른이자 친구였다.

숭산 스님은 세계 30여 개국에 130여 개의 선방이 있으며 100여 명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한국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었다.

마흔여섯의 나이에 머나먼 이국땅으로 달려가 밑바닥 생활을 감수한 스님의 삶은 그 자체로 선이고 감동적인 가르침이었다. 과로와 피로를 벗 삼아 종횡무진 세상을 누비다 2004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한 마지막 순간까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자비의 경지야말로 스님이 보여준 깨달음의 궁극이었다.

이 책에는 숭산 스님의 활동과 더불어 법문, 제자들의 추모글, 연보, 국제선원 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 2006 ‘서울국제도서전’ 6월 2일 개막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06

국내 최대의 책 전시회인 제12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으로! 책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6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이번 도서전에는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소속 13개 출판사에서 200여종을 전시하는 것을 비롯 24개국, 471개 출판사가 참가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불교계 참가 출판사는 여시아문 동국역경원 운주사 장경각 정우서적 민족사 불광 우리출판사 동쪽나라 솔바람 조계종출판사 효림 여래 등이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는 불서를 발간하고 있는 10여곳의 일반출판사에도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함께 불교부스에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책으로! 책으로!” 주제

불출협 13개 출판사 200여 종 전시

특히 올해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삼국유사> 특별전.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맞아 삼국유사의 내용을 그래픽아트, 사진, 동영상, 연극, 그림 등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인 고은 · 김용택, 소설가 김훈 · 신경숙 씨의 집필작업을 재현하는 ‘작가의 방’과 북디자인전, 북한서적 전시 · 북한영상물 상영 등이 선보인다. 신간발표회와 저자와 사진 한 장, 우리동네 서점신문 발행 콘테스트, 역사학 카페도 마련된다.

이밖에 한국니체학회 심포지엄, 해외 출판인 초청세미나, 북아트 전시회 및 어린이 북아트 세미나, 도서 퀴즈대회 등의 이벤트가 곁들여진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 부스연락처 (02) 6002-7318.

새로나온 책



■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반산 스님, 부다가야)= BBS 불교방송 ‘경전공부’의 교재로 만들어졌다.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는 금강경 속 세친(世親)보살의 27단의(斷疑)와 무착(無着) 보살의 18주처를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다. 또 글 중간 중간의 선화 이야기는 금강경과 선의 핵심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반산 스님(부산 영축선원장)은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고원 명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5하안거 성만했으며 1990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1999년 조계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을 거쳐 2001년~2003년 행자교육원 교수사를 역임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그냥 살라	대산출판사, 장영섭, 1만5000원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민족사, 성법 스님, 9500원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부, 무비 스님, 9000원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고즈윈, 서화동, 1만2800원
· 큰 스님 큰 가르침	문예출판사, 윤청광, 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이 책을 읽지 않고 간화선을 논하지 말라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수행의 올바른 길임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간화정로가 한국불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선원수좌들의 애독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간화선이 우수하다고 자처하면서도 세계에 알리는데 지침서가 부족했다면 간화정로는 선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설정스님**(덕숭총림 수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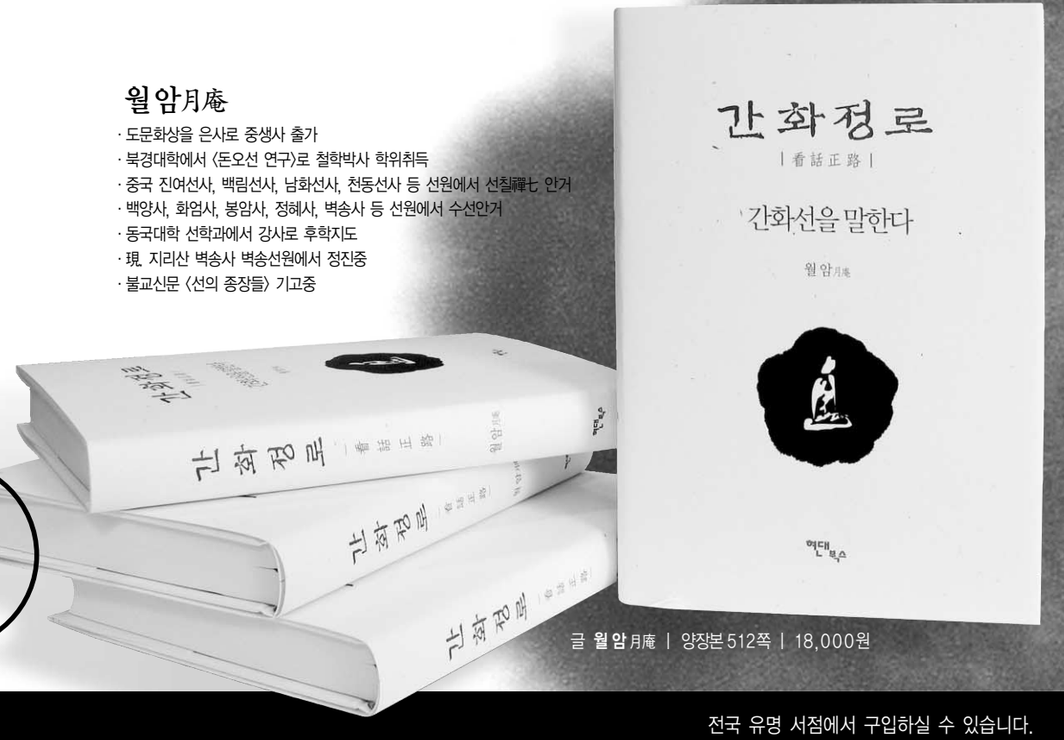
월암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간화정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이 스님, 재가, 해외불자들에게 선수행의 지침서가 되어 눈 밝은 납자가 무수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스님**(전국 선원수좌회 의장)]

간화선이 수승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롯이 수행을 일관하신 분들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불교 학자들은 실참이 부족하여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정확한 간화선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행과 학술적 근거를 겸한 간화정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간화선 지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월암月庵
· 도문화상을 은사로 중생사 출가
· 북경대학에서 〈돈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취득
· 중국 진여선사, 백림선사, 남화선사, 천동선사 등 선원에서 선칠禪七 안거
· 백양사, 화엄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
· 동국대학 선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지도
· 現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
· 불교신문 〈선의 종장들〉 기고중

看話正路
간화정로

출판 한달만에 2쇄 돌입



글 **월암**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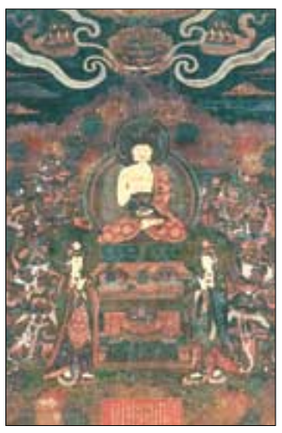
현대북스 (02)2198-5151 (051)244-1251 좋은기획 좋은디자인 좋은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불화 특별전

고려불화 보고 대~한민국

아미타팔대보살도·나한도 등 4점 선봬
15세기 作 약사삼존십이신장도 함께 전시
2002 월드컵 만다라 괘불탱도 볼 수 있어





고려불화 특별전의 홍일점 조선불화 '약사삼존십이신장도'(왼쪽)와 오백나한도 중 한편으로 인정받는 '나한도'.

6월 11~17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 기록과 유물이 많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문화적인 흔적과 생활상은 고려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상에 공개된 고려불화는 160여점. 그 중 1백여 점 이상이 모두 일본에 있다.

1991년 소더비 경매에서 한국고미술품 사상 최고가로 낙찰된 '수월관음도'로 전세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고려불화. 국내에 몇 점 남아있지 않아 쉽게 만날 수 없는 고려불화가 통도사에서 공개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이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남부지역에서는 최초로 고려불화를 공개하는 '고려불화 특별전'에는 고려불화 4점과 고려불화의 특성을 계승한 조선전기불화 1점이 전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려불화는 아미타팔대보살도(阿彌陀八大菩薩圖), 마리지천도(摩利支天圖), 지장삼존도(地藏三尊圖), 나한도(羅漢圖)로 국내에서는 물론 일본에서조차 공개된 적이 없었던 귀중한 불화들이다. 조선전기불화는 1477년 제작된 약사삼존십이신장도(藥師三尊十二神將圖). 당시 최고의 화사들에 의해 그려진 불화들로 한국불교 회화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그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들이다.

14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아미타팔대보살도'는 일본 교토 정교사(淨敎寺)에서 소장하고 있다. 아미타여래가 여덟 보살을 거느리고 약간 오른쪽을 향하여 움직이는 듯한 구도로 몸체에는 금니를 사용하고 있다.

14세기 전반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마리지천도'는 팔이 여덟 개인 보살의 모습으로 각 손에는 지물을 들고 있는 특이한 도상이다. 지물은 탑·금강저·침·줄과 정병인데 이는 <대마리지보살경>에서 말하는 마리지천의 지물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평가다.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마리지천도'는 1924년 경도미술구락부(京都美術俱樂部)의 경매도록에 실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최근 다시 자취를 드러낸 희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바위 위에 반가부좌를 틀고 있는 지장보살이 그려진 '지장삼존도'는 14세기 중엽의 불화이다. 지장보살의 오른쪽에는 무독귀왕이 경상을 받들고 정면을 향해 서 있고, 왼쪽에는 도면존자가 긴 석장을 양손으로 잡고 지장보살을 올려다보고 있는 구성이다.

오백나한도 가운데 제31왕상존자를 그린 '나한도'는 약간 오른쪽 측면을 향해 암좌 위에 앉아있는 왕상존자의 모습을 담았다. 1235~6년에 그려진 오백나한도 가운데 한 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시되는 불화 가운데 유일한 조선 불화인 '약사삼존십이신장도'는 1477년 제작된 작품으로 특정 여래의 설법도로서는 유일한 15세기 불화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 불화는 뛰어난 배색과 효율적인 금니 사용 등으로 섬세하고 안정된 화질을 보여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측은 "고려불화는 화려하면서도 조화로운 색채와 경이로울 만큼 섬세한 필치, 정교한 묘사 등으로 세계 각국의 미술사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아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려불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됐다"고 전시 의의를 밝혔다. 이번에 남부지역 불자들에게 최초 공개되는 불화들은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국보전'에서 한 차례 선보여 극찬을 받았다.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06 독일월드컵이 폐막하는 7월 9일까지 중앙홀 괘불전에서 2002년 대중에 첫 선을 보였던 월드컵 만다라 괘불탱을 전시한다.

월드컵의 상징을 불교적 도상으로 융합시킨 '월드컵 만다라 괘불탱'은 축구 선수 11명은 그림의 높이 11m는 축구선수 11명과, 화폭 7.32m는 축구경기장의 골포스트 너비와 같이 맞췄다. 크기뿐만이 아니다. 괘불탱에 등장하는 오여래 도상은 중앙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한 석가·노사나·약사·아미타여래로 조선시대 불화에서 널리 성행했던 삼신불과 삼세불을 결합해 오방불로 배치했다. 오방불은 월드컵 정신으로 하나가 된 5개 대륙을 상징하며 방위에 따라 아시아는 황색, 오세아니아는 청색, 유럽은 백색, 아프리카는 흑색, 아메리카는 적색으로 구분했다.

오방불을 배치하고 남은 배경화면에는 2002위의 화불을 채웠다. 2002화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2002명이 직접 채색하고 자신의 국적과 이름을 남겼다. 월드컵 4강 주역인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한국선수단 자필 서명도 들어있어 보는 재미가 특별하다. (055)382-1001 강지연 기자



통도사 성보박물관 중앙홀 괘불전에서 만날 수 있는 '월드컵 만다라 괘불탱'.

적의 심장 움켜쥔 불상도 있네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존 '금동분노존상'.



인골에 새긴 '촉루배'.



금동무량수불상.



문수보살의 화신 야만타카 바즈라바이라바.

티베트 불교미술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한국불교미술박물관 5월 26일~9월 30일

두 눈을 부릅뜨고 인골 장식을 머리에 두른 채 왼손에는 전갈모양의 검을, 오른손에는 불법에 대항하는 적의 심장을 움켜쥐고 포효하고 있는 금동분노존상. 우리나라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티베트 불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불상 분노존은 왜 만들어졌을까? 티베트 토착종교 신들이 불교에 흡수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존의 성격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 두 번째로 마련한 티베트 기획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5월 26일~9월 30일)에서는 분노존을 비롯한 다양한 티베트 불상과 사경작품, 불교의식구와 공예품 등 130여점의 다양한 티베트 불교미술품등을 선보인다.

사람뼈로 만든 각종 의식구 '삶과 죽음은 하나' 표현

본관 제4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티베트 불화:삶과 죽음을 넘어서'에 이은 두 번째 티베트 기획전이다.

1층 전시실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여러 불상과 보살상, 분노존,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스승 쫑카파와 파드마삼바바상 등을 각종 의식구 공예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2층 전시실에서는 불교의식 및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금강저, 촉루배(髑髏杯) 등의 의식구와 법라패 피리 등의 공예품이 전시된다. 인골피리 인골북 등 인골을 사용한 의식구와 악기에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믿었던 티베트인들의 생활이 묻어난다.

본관 제1·2·3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불교미술 작품들도 함께 감상하며 티베트의 불교미술과 우리나라 불교미술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매달 둘째·넷째 토요휴업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니차 만들기 등 티베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766-6000, www.buddhistmuseum.co.kr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금강저



인골로 만든 북



인골로 만든 피리

본문 법화 의식 대전

이 의식책을 광선 유포 독송케 하기 위하여 상금제를 정하였으니 사부대중은 많이 구입하시어 상금을 타시기 바랍니다.

1등 1천만원	9등 70만원	17등 8만원
2등 5백만원	10등 60만원	18등 7만원
3등 4백만원	11등 50만원	19등 6만원
4등 3백만원	12등 40만원	20등 5만원
5등 2백만원	13등 30만원	21등 4만원
6등 1백만원	14등 20만원	22등 3만원
7등 90만원	15등 10만원	23등 2만원
8등 80만원	16등 9만원	24등 1만원

우선 400권 판매시 추첨을 하여 상금을 실시하며 의식책을 사시는 분에게는 불자, 달마, 용자 50장을 거저 드립니다. 발급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하오니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라오며 영수증 발급번호가 판매권수이오니 400번이 되면 틀림없이 추첨에 들어갑니다.



본문법화의식대전 값 300,000원



달마.불.용자. 모두 가로 38cm×세로 54 cm

대한불교 대승연화종 총무원
연락처 055)772-6662 / H·P 010-8993-1344, 010-6394-7350
◆입금계좌번호: 농협 801076-51-022066 (예금주 : 대한불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동씨 기혈침, 사암침 강좌 안내

모든 질병은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을 지도해 드리며, 사암침술과 동씨 기혈침술을 3개월 과정으로 교육합니다.

강좌내용

▶14경락의 체계적인 습득과 상용혈의 정확한 취혈법.
▶오수혈의 원격 자침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사암 침술법.
▶침 5개 이내로 질병을 치료하는 동씨 기혈 침술법.
▶침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내 몸의 병을 스스로 고치는 침술 자가 치료법.
▶맥 진찰로 건강상태를 판별하는 요령.

※ 개인교습 형식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3개월 후면 어떤 분이라도 침술 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 개강 : 2006년 6월 5일 (월·화반, 수·목반, 야간반)
■ 위치 : 종로구 숭인동 지하철 1.6호선 동묘앞역 3번 출구
■ 문의 : 02)2235-0053, 018-312-7110

동 씨 사 암 침 학 회
침 술 자 가 치 료 요 법 학 회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졸리면 자고 깨면 일어나"



평생 이 길을 걸었다. 부처님이 계신 법당, 동성 스님은 구도의 길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타만 세월의 흐름 만큼은 거스를 수 없다면서….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동성 스님 (내장사 선원 조실)

세수 아흔 여덟. 세월도 기억력도 숱한 시간 속에 산화했다. 무심함이 움푹 패인 주름살에 웅크렸다. 100세를 2년 앞둔 현재 한국스님들 중 최고령 스님이지만 눈빛은 수좌답게 형형했다. 그 눈빛이 시간의 티끌들을 말끔히 걷어냈다.

정읍 내장사 조실 동성 스님. 스승과의 인연에서 수행자의 '살림살이'를 풀어놓았다.

"출가하기 한 해 전, 그러니까 스무 살 때였어. 스님에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지. 그러니 스님이 '가까이 오라'며 '귀를 내게 대라!'고 하시더군. 볼에 댔지. 그런데 갑자기 스님이 큰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어. 그러곤 대뜸 '알겠느냐?'고 해. '모르겠습니다'고 했더니 '하. 둔한 사람이로군. 나가거라!'고 하시더군. '거참. 이 노인네 봐라' 기가 찼어."

요양하러 금강산에 들렀던 동성 스님. 스승 한암 스님의 말뜻을 알 턱이 없었다. 분한 마음에 오대산 상원사에 눌러앉기로 마음을 먹었다. 부목 살이를 시작했다. 낮에는 뗄 나무를 구하고, 저녁에는 귀동냥을 위해 스승의 방 앞을 서성거렸다.

'최고령' 스님… 지금도 새벽 3시 참선
쌀 3되 들고 오대산 서대에서 용맹정진
은사 한암 스님과 법거량후 인가 받아

"한암 스님이 진짜 스승이야. 참으로 엄격한 분이었어. 웬만해선 쓰다 달다 군소리 한 마디가 없던 양반이야. 오대산에 들어가 27년간 산문 밖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로 유명하잖아?."

스승은 얄밉고도 서운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것이 동성 스님에게는 약이 됐다. 3개월간 부목을 하고, 곧바로 공양주, 채공, 원주 살이를 하면서 수좌의 기질이 다져져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30년간 스승의 밑에서 살면서 수행자의 길을 차근차근 밟았다.

"스님은 늘 '파거불행(破車不行)'이요 '노인불수(老人不修)'라 '고 강조했어. 깨진 수레는 가질 못하고, 늙으면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지. 이 가르침을 지니고, 나는 지금까지 수행해왔지."

스승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 그럼, 스승을 밀천 삼아 수행을 어떻게 했을까? 동성 스님이 일궈온 살림살이가 궁금해졌다.

"어느 해인지 모르겠어. 원주에게 쌀 3되를 타가지고 오대산 서대에 들어갔지. 머리와 수염도 깎지 않고 마치 원시인같이 오직 화두만 잡았어. 시계가 없으니 시간도 몰랐지. 밤이나 낮이나 한번도 육신을 바닥에 대고 누워본 일이 없었지. 낮에는 머루 잎과 솔잎으로 배를 채우며 공부에 전력하고, 밤에는 앉아 화두정진으로 밥을 새웠어."

느릿느릿한 스님의 말이 빨라졌다. 자신과 벌였던 처절한 수행담이 흥미진지하게 이어지면서, 기자의 귀를 쉴 새 없이 잡아 당겼다.

"하루는 갑자기 시루떡 냄새가 나길래, 예전에 어머님이 떡을 해줬던 생각이 나 눈물이 나더군. 다시 생각하니 화두는 어디가고 망상으로 자성이 흐리게 되더군. 마음을 가다듬고 밖에 나와 산책을 한 후, 방에 가서 단정히 몸을 정좌하고 공부에 매달렸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닭이 홰를 치며 '꼬끼오' 하고 울더군. 또 밖에서 탕하고 큰소리가 났어. 마치 무서운 꿈을 깬 듯, 칠흑 같은 밤에 백천일월이 쏘는 듯하대." 그 순간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걸까?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오도송이 있나 여쭈었다.

'아! 어려움이여, 쉽고 쉬움이여!

무엇이 어려우며 무엇이 쉬운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도다.

천지(天地)는 동근(同根)이요, 세계(世界)는 일가(一家)로다'

오도송을 읊어준 후 스님은 곧장 스승과 벌였던 법거량 이야기를 했다.

"곧장 들어갔지. 한암 스님이 '누구냐'고 해. 그래서 얼른 손가락을 하나 세워보였지. 스님도 손가락을 하나 세우시더군. 재빨리 내가 '천지동근(天地同根)이요, 세계일가(世界一家)로다'라고 외쳤어,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 그러더니 벼루를 내놓으며 먹을 갈라하기에 조용히 갈았어. 좀 있다가 종이와 붓을 내어 글을 한 줄 써줬어. '벽력일성(霹靂一聲)에 효천명(曉天命)이요, 장부일갈(丈夫一喝)에 성우주(惺宇宙)'라며 술인(戊寅) 음 8월 14일 날짜까지 기록하고, 또 봉정(峯正)이란 법명까지 지어주셨지."

스승은 그렇게 제자를 인가했다. 동성 스님은 그 글귀를 한암 스님 앞에서 크게 읽고는 성냥을 갖고 밖에 나갔다. 그리고 곧장 그 종이에 쓴 글을 불살라버렸다. 왜 그랬을까?

"써준 것을 기억하면 그 뿐이지, 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그래서일까? 스님은 그 흔한 휘호 하나 없다. 붓과 벼루를 곁에 두지도 않는다. 오후 내내 스님의 살림살이를 듣고 있을 즈음, 궁금증은 요즘 스님의 하루 일과 이야기로 이어졌다.

"늙으니 잠이 없어졌어. 졸릴 때 자고 잠 깨면 일어나. 그래도 새벽 3시에는 눈을 뜨지. 일어나면 곧장 <금강경>을 읽고, 방에서 좌선을 해. 화두라고 들 것 없이 그냥 참선을 하지. 요즘에는 운동도 해. 경내를 돌며 포행을 하지. 걷는 게 운동이 아니겠어."

내장선원 조실 방을 물러나와 마루에 잠시 앉았다. 연두 빛 단풍나무가 한 눈에 안겼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사의 가을보다 한결 생동적이다. 백수를 바라보는 노 선사의 얼굴빛이 막 피워 오른 새싹의 단풍 잎 같았다.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6년 생식 · 7년 장좌불와 '귀감'

동성 스님은 | 1908년 충남 논산 生. 34년 한암 스님을 은사로 입산 출가했고, 박한영 스님의 법제자가 됐다. 45년 오대산 서대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후 6년간 생식하고, 7년간 장좌불와를 했다. 불교정화시 강원종무원 재무부장을 역임했으며, 삼척 청련암, 건봉사, 대흥사 주지 등을 지냈다. 현재는 내장사 조실, 대천 배달정사 회주로 있다. 저서로는 <보기출발록(譜己出發錄)>, 한시집 <현해장서(玄海藏書)> 등이 있다.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여시아문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신간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 『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마음의 업경대 지니고 사세요

동성 스님의 가르침

마음공부에는 출 · 재가가가 없습니다. 선수행의 목적은 '지무생사(知無生死, 체무생사(體無生死), 용무생사(用無生死)'의 이치를 깨닫고 견성 · 성불하는데 있어요. 나고 죽음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단련하고 몸에 배도록 연마하며, 몸의 연마가 잘 돼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떻게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이 있겠어요.

장군이 칼을 쓰려면 많은 수련을 쌓아야 그 어떤 적도 대치할 수 있지요? 이렇듯 '생사 없음'을 몸으로 체득하고, 많은 수행을 닦은 후에만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방거사는 부인과 딸, 아들 둘과 함께 많은 재산을 헌 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생사 없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갔습니다. 아들 둘은 친구 집 '머슴'으로, 부인은 아들이 머슴살이하는 친구 집에 공양주로, 딸은 방거사와 함께 살면서 자유인의 삶을 살았지요. 이후 딸은 홀연히 방거사 곁을 떠났고, 방거사는 지방 고을 수장인 자사의 무릎을 베고서 입적했지요. 부인은 방거사의 열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몸을 벗었고, 아들 둘은 밭일을 하다가 떠났지요. 그야말로 방거사 가족 모두가 본래부터 '생사 없음'을 제대로 알고 체득하며 쓰고 갔던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엇이었을까요? 코구멍에 들락날락하는 이 놈만 없으면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가져다 내버리지요. '생본무생(生本無生)이라 멸본무멸(滅本無滅)이라', 태어남은 본래 태어남이 없는 것이요, 죽는 것도 본래 죽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사 없는 이치를 알아야 해요. 이것이 '지무생사'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는 것은 불생불멸이에요. 그런 줄을 알면, '체무생사'가 돼야 해요. 생사 없음을 체득해야 한다는 소리지요. 이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치를 알고 체득해 견성(見性)을 했어도 보임(補任)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도 그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것처럼, 견성을 했어도 보임을 잘해야 하지요. '용무생사'의 이치를 잘 굴리는 것이 보임이지요.

심우도(尋牛圖)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같아요. 소를 찾아(尋牛)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見跡), 그 소를 보고서(見牛) 얻지요(得牛). 그리고 그 소의 코를 뚫어 길을 들이지요(牧牛). 이 때 길들지 않은 소가 도망가지 않게 붙잡고 늘어져야 하죠. 우리 마음자리도 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도망가는 것처럼, 길들지 않은 소보다 더 하잖아요.

그 놈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소를 길들이면, 붙잡고 있지 않아도 가만히 있겠지요. 그럼 가다가도 '워~워~' 하면 서게 돼요. '지무생사'는 소의 발자국을 따라 소를 찾아가는 것과 같고, '체무생사'는 길들지 않은 그 소를 길들이는 것이고, '용무생사'는 길든 소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공부해서 견성하는데 무슨 머리 깎고 안 깎는 것이 중요하나요? 방거사의 다섯 가족이 생사의 이치를 알고 홀연히 떠나갔듯이, 재가불자도 생사 없음을 알고 체득하면 자유자재하게 이 이치를 쓸 수 있어요. 껍데기만 중 복색만 한다고, 다 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중이 돼야 하지요. 이 공부는 병신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절에 가서 출가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집에 있다고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요. 마음공부를 하는데 출 · 재가가의 구분이 없지요.



소를찾아 길들이고
마음대로 다루듯
스스로 단련 연마해
생사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절을 하고 있는 동성 스님.

그럼, 재가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거사 식구들은 처음부터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중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밭일 하고 땔 나무 구하고 일하면서 수행을 했지요. 마음공부를 하는데 출가자니 재가자니 하는 구분은 애초부터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만약 방거사 가족이 출 · 재가를 구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생사 없음'의 이치를 알지도 체득하지도 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수월 스님은 일생을 어디에 가든지 '소승이 부목하겠습니다'며 일하면서 수행했어요. 평민으로서 황제에 오른 중국의 순치 황제도 자리에서 물러나 한 사찰에서 부목을 자청했지요.

수행은 이처럼 수월 스님이나 순치 황제가 절에서 나무 베고 장작 패며 무념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지요. 일상사가 그대로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삼천대천세계를 내다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체과학자가 저 멀리있는 별의 거리를 계산해 10억만년이라 했다고 칩시다. 빛이 그 별까지 간 거리를 셈한 것이지요.

그럼, 가장 크고 제일 빠르고, 둥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빛이 별까지 달려간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과학자의 마음이 그 별에 도달한 겁니다. 과학자의 마음이 즉각 거기에 도착한 것이지요. 삼천대천세계를 즉각 내다보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무생사, 체무생사, 용무생사'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삼독심(三毒心)에서 나옵니다. 그 삼독심은 번뇌 망상에서 나옵니다. 진심(嗔心)이 가장 마음에서 해롭습니다. 공부하는 수좌들이 진심 한번 잘 못 내면, 몇 해 동안 해온 공부를 한꺼번에 까먹는다고 합니다. '일사진심(一事嗔心)이면 수사보(受蛇報)'라 했지요. 한번 성냄은 그것으로도 독사의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순간순간에 과보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으면 경찰서나 재판정에 갈 일이 없겠지요. 진심을 안내고 마음을 잘 쓰면, 명부전 염라대왕에게 끌려 갈 일이 없잖습니까.

그러니 불자들은 '마음의 업경대(業鏡臺)'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업경대는 그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업경대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합니다. 염라대왕이 죽으면 '업경대를 가져오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비춰 볼 수 있는 업경대를 잘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7>



원숙한 노년, 저돌적인 청년(하)

옛날에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뱀의 꼬리가 뱀의 머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항상 네가 앞장을 서야 하지? 내가 앞에서 갈 수도 있는데 말이야."

머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앞에서 가야해. 언제나 그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왜 불평을 하는 거야?"

머리가 꼬리에게 일침을 놓고서 여느 때처럼 앞에 서서 기어가려 했죠. 꼬리는 은근히 부아가 났습니다. 그는 나무에 제 몸을 감았지요.

꼬리의 심술에 머리가 졌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한번 앞에 서 보아라."

꼬리는 얼른 나무에 감았던 제 몸을 풀고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불구덩이에 떨어져 그만 뱀은 죽고 말았습니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뱀의 머리는 나이 먹은 스승을, 꼬리는 젊은 제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늙은 스승이 언제나 앞에서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것에 반발을 한 젊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앞장서서 교단을 이끌고 가지만 계율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 결국 노스승과 젊은 제자들이 함께 계율을 범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넌지시 일러주고 있죠.

> 노년은 마음의 눈 뜰 절호의 기회
> 바깥 경계에 애착 가지면 철부지
> 지혜의 삶 살땐 20대도 풍요로워

늙음을 덧없고 괴로운 일이라고 경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저돌적인 젊은이의 패기 보다는 노인의 연륜을 높이 사고 있는 경을 발견한 것은 의외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말년의 한 설법에서 한 나라가 오래도록 번영하려면 신구세대가 화합해야 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아주 유명한 밧지국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대반열반경).

사실 노인이 젊은이와 힘을 겨루어서 이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그 실랑이를 보며 가슴 아팠던 것은 그토록 호방하게 고함치던 노인이 단 한 순간에 젊은이의 기세에 눌리고 그의 고함에 기가 꺾였다는 사실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어린 아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듯이 사람도 늙으면 항상 모든 무리의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이들의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지만 노인들조차도 노년에 처한 자신들을 그리 곱게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이라는 삶의 시기는 무의미하고 구차하기만 한 것일까요? 사람의 일생이란 영유아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소년, 청년, 장년의 시기를 거쳐 노년의 시기까지 이르러야만 완성이 되는 것인데, 과연 노년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노년은 사람을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의 몸을 허약하게 하며, 사람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가며,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년의 사람은 비참해 보인다고 합니다(키케로, 앞의 책).

하지만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있기에 노년이야말로 여유롭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짚어보자면, 세상의 중요한 일은 체력이나 민첩성, 신체의 기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더 늘어나는 법이요, 세상의 모든 죄악은 쾌락을 좇는 데에서 비롯되지만 노년의 삶은 쾌락에 잠기고 싶어도 잠길 수 없게 육체가 쇠약해져 버렸으니 이제야말로 마음의 눈을 뜨고 미덕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은 패기에 넘치는 젊은이의 웅변이 아니라 노인의 침착하고 부드러운 연설임을 상기할 때(<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키케로 지음, 숲 출판사에서 인용)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전연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다 노인이 아니요, 눈, 귀, 코, 혀, 몸이 바깥 경계에 여전히 애착하고 있다면 아무리 나이 80, 90이 되었어도 철부지요, 이미 제 몸과 마음으로 바깥 경계에 탐착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20대 청년도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잡아함경)

젊은이에게 연륜을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방하고 저돌적인 패기는 젊은이에게 물려주고, 이제 평생을 공들여 키워온 인생의 나무에서 달콤하게 무르익어가는 열매를 맛보며 깊이 음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것이요, 젊은이들은 그런 노년의 원숙한 모습을 무엇보다도 부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 나십시요.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손꼽히는 한려수도
관광과 방생지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 을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 사 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2006 통영바다
어류방생 유등축제

● 일 시 : 2006년 6월 10일(토) 18:00~21:30
● 장 소 : 통영시 도남동 도남관광지
● 주최 · 주관 : 통영시, 통영시사암연합회
● 행사내용
쌍계사 조실 고산 큰스님 법어
소원 적어 유등 띄우기, 어류방생, 수륙대재
석지연 스님 찬불가요 공연
인기가수 태진아, 유지나 초청공연
● 문의처 : 두타사 TEL 055)646-1477, 011-704-2701
FAX 055)648-1366

※ 유등은 선착순 3,000명을 접수하오니 희망자는 연락주세요.

하늘에서도 茶 마셔요

박병근 교수팀 '한국차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서
'항공기내 녹차 접대기술 체계화' 논문 발표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항공기를 '차문화 보급의 장'으로 삼자는 논문이 발표됐다. 사진은 비행기안에서 다구를 갖춰 차를 제공받는 승객을 재현한 모습.

국내에서만도 연간 2000만 명이 이용하는 비행기.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항공기를 '차문화 보급의 장'으로 삼자는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5월 20일 하동야생차축제 기간에 열린 '한국차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마산대학 국제소믈리에과 박병근 교수와 차학연구소의 김수현 소장 그리고 前 대한항공 승무원 안소영씨가 공동으로 '항공기 내 음료 서비스에서 녹차 접대기술 체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팀은 "최근 녹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내에서도 현재보다 향상된 녹차 접대 서비스가 요구된다"며 "티백을 중심으로 서비스되는 항공기내 녹차 접대방식을 다구를 이용한 잎차 우림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10여 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했던 안소영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녹차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안씨는 "녹차의 피로회복 및 혈압상승 억제 효과, 식중독 예방 효과 등을 적극 활용해 항공기 이용 시 지루함과 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 애호가들은 평소 즐기던 차를 항공기에서도 마실 수 있으며, 차를 처음 접하는 승객들은 비행기 이용시간 동안 새로운 차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국적의 항공기내의 음료 서비스는 티백과 종이컵으로, 일본국적 항공사의 경우 우량 녹차를 일괄적으로 우린 후 승무원이 따르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박 교수팀은 "녹차 서비스 개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티백 대신 잎차로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를 제공하는 방법도 찻잎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리다관, 항공기 내의 공간을 고려한 일인 다기, 소형 개인 다기를 이용한 방식과 승무원이나 그린티 마스터가 승객 앞에서 직접 차를 우려 제공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퍼스트 클래스



티백보다 1인용 다관 이용 방식 제안
"혈압상승 억제·피로 감소 등 효과"
다구의 불편함, 파손 위험 등 지적도

의 경우 유리다관 또는 그린티 마스터의 녹차서비스가, 비즈니스 클래스의 경우 기존의 커피 컵 대신 일인용 다기를 응용한 항공기 전용 다기를,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 티백 방식에서 탈피해 항공 전용 녹차우림 주전자를 이용한 서비스 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관을 이용해 잎차를 우려 마시는 서비스 방식은 양질의 차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관 이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항공기내의 음료접대서비스의 경우 이륙 전후 및 착륙 전후의 일정 시간과 항공 운항 중의 급격한 기류변화 시 실시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때문에 도자기로 된 다관의 경우 깨지기 쉽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 항공기내에서의 안정성이 확보된 항공기 전용 다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박 교수팀은 밝혔다.

박병근 교수는 "항공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해 녹차음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녹차음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마산대학 국제소믈리에과

강좌·체험 프로그램 강화
매암차문화박물관 재개관

하동에 자리한 매암차문화박물관(관장 강동오)이 참여형 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강 관장이 직접 설계와 시공을 맡았으며 차문화 박물관과 제다 체험장, 야외 공연장, 찻집을 갖추고 차문화사 강좌, 제다 체험, 청소년 초록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월 19~20일 열린 재개관식 및 7회 매암차문화 축제 기간에는 다식·차 만들기 체험과 매암 강화수 옹의 차문화사 강의, 정태춘 박은옥의 '그 좋은 인연' 노래공연 등이 펼쳐졌다.



5월 19일 재개관한 매암차문화박물관 전시실.

매암차문화박물관은 강동오 관장의 조부인 故 강성호 옹이 1963년 악양면 정서리 일대 6천3백여 평에 차밭을 조성한 '매암제다원'에 세워진 것으로 2000년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박물관 전시실은 '토기와 청자가 있는 방' '백자가 있는 방' '막사발이 있는 방' 등으로 나뉘어 삼국시대 토기찻잔과 고려시대 청자찻잔, 옹기주전자 등 200여 점이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강 관장은 "매암차문화박물관은 단순히 유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차를 만들어 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이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참여형 박물관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055)883-3500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유화(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7. 정보화사회의 허식 ②

필자가 다니던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보이차에 관한 수업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차는 보이차에 관한 것 일색이다. 지식은 양식(良識), 곧 좋은 지식과 나쁜 지식인 악식(惡識) 그리고 좋은 지식처럼 위장하는 허식(虛識)으로 나눠진다. 보이차는 어려운 학문이다. 특히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넘치고 있는 보이차에 관한 악식과 허식들이 보이차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장애로 작동하고 있기에 보이차에 관한 지식은 더욱 혼돈한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21세기 초 전통가공법으로 만든 보이숙차(普洱熟茶)가 후발효차(後酸酵茶)라면 보이생차 즉 청병은 녹차인가? 이에에 대한 필자의 답은 아니다 쪽에 서있다.

이러한 학문과 배치되는 대답의 근저에는 지속적으로 개발된 신차(新茶)의 등장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차에 관한 현대용어는 20세기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용어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한 사라지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용어들은 그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천·확장되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새로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이차가 등장함으로써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용어들이 상당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중

일부 용어들 시대 따라 개념 변천·확장
60년대 첸촨 교수가 최초로 '용어개념' 정립

보이청병(普洱青餠)의 재등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학문적으로 청병을 녹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병은 녹차인가? 이에 대한 이해의 키워드는 살청(殺青), 쇄청(晒青), 발효(醱酵)라는 용어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 보이차의 산지, 원료, 가공 등 3가지의 정의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물어본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가공법인 '쇄청법(晒青法)'을 꼽을 것이다. 살청과 쇄청은 모두 차의 가공법의 하나이나 별개의 가공과정에서 이루어진 각기 다른 공정이다.

녹차로 예를 든다면, 첫 번째 덖음 즉 고온을 통해 찻잎 속에 산화효소의 활성을 파괴하여 발효를 억제하는 공정을 '살청'이라 한다. 그리고 살청 덖음 후의 건조방법 중에서 찻잎을 솥으로 건조시킨 것을 '초청(炒青)', 건조기계를 통해 말린 것을 '홍청(烘青)', 햇볕을 통해 건조한 것을 '쇄청'이라 한다. 쇄(曬)는 쇄(晒)와 같은 글자로 햇볕에 쬐어 말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학문적으로 차의 초기가공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가리켜 모차(毛茶)라고 한다. 이는 곧 한국에서 말하는 초벌차이기도 하다. 녹차계열에 속해있는 보이차의 초벌차가 햇볕을 통해 말렸기에 녹차건조법의 용어인 '쇄청모차'를 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것이 '쇄청'과 '발효'에 관한 용어다.

오늘날 차의 용어개념에 관한 정의는 60년대 중국 제차학(製茶學)의 최고 권위자였던 안휘농업대학(安徽農業大學) 차학과(茶學科) 故 첸촨(陳椽) 교수에 의해 최초로 정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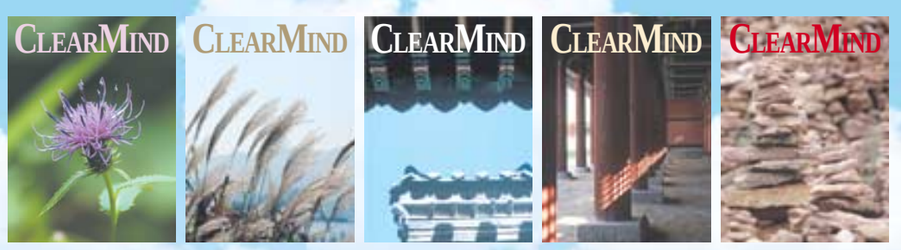
그의 학문적 논거에 따라 제작된 <제차학(製茶學)> 교과서에서는 쇄청 건조법을 녹차의 가공법으로 귀속하고 있으며, 이 교과서에서는 '햇볕을 통해 말린 쇄청모차는 모두 악퇴(渥堆)라는 공법을 거쳐 만든 후발효차인 흑차(黑茶)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정의를 두고 있다.

그 동안 쇄청녹차는 녹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못하고 대체로 반제품인 모차 즉 초벌차인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쇄청녹차의 대부분이 흑차의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햇볕에서 건조하는 쇄청모차.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 서는 포교잡지



클리어마인드는,
수행이 살아있는 한국불교와 미려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여 국외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국내 불자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고자 국내외에 배포되는 클리어마인드는
한글·영문 혼용으로 발간되는 고품격 격월간 포교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동양의 문화, 불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 입니다.
클리어마인드는 그 시작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클리어마인드를 펼쳐 보는 일,
진리를 펴는 귀하고 귀한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CLEARMIND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국내외 사찰, 지인知人, 학교, 병원, 불교 대학, 단체, 군부대, 교도소 등에 보내고자 하시면 아래와 같은 지원 가능합니다.
- 국내 : 30,000원(1년) - 국외 : $48.00(1year) - 법보시 : 한구좌당 3만원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736호 TEL.(02)2198-5152 FAX.(02)2198-5153 clearminds@daum.net / cmind@naver.com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박사에게 듣는

수행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 예방법

틈날 때 하는 맨손체조도 약이 된다





사진 ①



사진 ②

"수행자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할까?"

김동일 교수(동국대 한의과대학, 동국대 한방병원 여성의학과 과장)는 "수행자에게는 신체가 열반의 순간까지 불성(佛性)과 덕(德)을 담은 소중한 공간이며, 구도와 제도를 위해 이를 소중히 지켜야 하므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지난 2004년 '비구니 스님들의 건강검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던 김 교수는 최근 <수행과 건강>(동국대학교출판부)을 펴내고 '수행자를 위한 건강 파수꾼'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수행자들은 같은 연령의 일반인들보다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수행 초기 심리적 갈등을 겪거나 수행 과정에서 소화기 질환 · 관절질환 등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수행자나 재가불자들이 걸리기 쉬운 소화기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을 알아본다.

▷ 소화기 질환

복통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의 소화성 궤양은 수행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수행자의 경우 불규칙한 식사와 추위 · 피로 및 정신적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궤양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화성 궤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비궤양성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위장출혈 등이 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60세 이상의 수행자의 경우 궤양의 치료가 더디고 위암과 같은 악성질환이 겹치거나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성 궤양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들인다. 우유의 경우 처음에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유의한다.

대장에 구조적인 이상은 없지만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계속되고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난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해볼만하다.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 따뜻하고 섬유질이 많으며 담백한 음식물을 위주로 식사를 하고 빠르게 걷는 것과 같은 운동을 병행한다.

차가운 수행처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자의 경우 치질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도록 하고, 평소 적당한 양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야채와 과일 등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배변은 하루 1회 정도 아침에 보도록 습관화하고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좌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야채 등 섬유질 충분히 섭취
낮은 베개 · 딱딱한 요 사용을

▷ 근골격계 질환

참선 자세는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로 이어지는 근육에 긴장을 유발하고 무릎관절 주변 인대와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강원(講院)에서 수학할 때 고개를 한쪽으로만 돌리거나 위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집중해 강의를 듣는 것도 어깨 결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평소 오래 고정된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하고 수행이나 일반 생활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또한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맨손 체조를 일상화하는 것이 좋다. 잘 때는 높은 베개를 피하고 8cm 정도 높이를 기준으로 자신이 베기 적당한 높이를 선택한다. 근육이 결릴 때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내리거나(사진 ①) 손을 뒤로 해서 깍지를 끼고 뒤쪽으로 최대한 당겨 근육을 풀어준다.(사진 ②)

여성 수행자의 경우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요통을 호소한다. 심리적 긴장은 근육의 강직을 유발해 근육성 요통을 발생시키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팔이나 허리의 힘만을 사용하지 말고 다리를 굽혀 물건을 들어 올린다. 지나치게 푹신한 침대나 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흔히 '무릎 통증'으로 알고 있는 퇴행성 슬관절염은 무릎 관절의 관절면에 분포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55세 이상 인구의 약 80%, 75세 이상의 90% 이상이 관절에 퇴행성 염증이 생긴다. 특히 중년 이상이거나 과체중의 비구니스님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퇴행성 슬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꿇어앉기, 쪼그려 앉기, 차가운 바닥에 앉기 등을 피하고 관절면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요가나 맨손체조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심혈관계 질환

평균 수명이 높은 수행자의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중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27.8% 정도가 앓고 있는 고혈압은 85~90%가 원인이 불분명한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는 집안내력으로 전해지는 유전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비만, 운동부족 등에 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인 원인은 찾기 힘들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질이 적고 짜지 않으며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 등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고, 재가불자의 경우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아침체조, 산보, 걷기운동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수행자의 경우 실내에서 발바닥을 자극하는 운동이나 맨손체조, 걷기 운동이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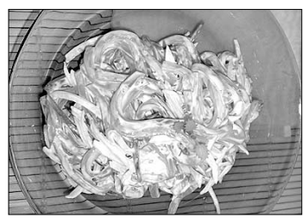
혈액 속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고지혈증은 그 자체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 내 지방 성분이 많으면 혈관 벽에 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기 쉽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9>

우무 콩냉국과 우무 샐러드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창문을 열어 놓고 시원한 쑥차 한 잔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면 전 고향 대승사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뛰어 놀면 노스님께서는 인자한 목소리로 "너무 뛰지 마라, 더워서 지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몇 년 전 노스님을 찾아뵈었을 땐 많이 늙으셔서 그 고왔던 얼굴에 주름이 지고 건강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이번 주말에는 꼭 스님을 뵈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스님께서는 뛰놀다 지친 저희에게 새하얀 소면을 삶아 콩국에 말고, 곱게 채 썬 오이와 수박으로 장식해 간식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때는 콩국이 왜 그리도 맛이 없었는지요. 스님에게 "스님, 우리도 자장면 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장면 타령만 하며 콩국을 안 먹으려 하고, 스님은 '절에서만 먹는 우유'라며 우리들에게 정성스레 콩국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그 콩국 맛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건 스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콩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전 그 콩국 맛이 떠올라 자주 콩국을 만들어 먹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것은 참으로 간사해서, 예전엔 그렇게 싫던 것들이 사찰음식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왜 그렇게 맛있어지는 것일까요? 언제부턴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올 여름, 냉장고 속에 탄산음료 대신 건강에도 좋은 산사의 우유, 콩국을 준비해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만드는 법



<우무 콩냉국> 재료: 불린콩 2컵, 우무 1컵, 오이 1개, 죽염 약간, 통깨

① 콩은 6시간 정도 불려서 3배 정도의 물을 부어 푹 삶는다(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눌러지면 익은 것이다).
② 콩을 믹서에 갈아준다.
③ 그릇에 우무를 담는다.
④ 오이를 곱게 채 썬다.
⑤ 유리 볼에 우무를 담고 콩국을 부은 다음 오이를 올려주고 통깨를 뿌려 낸다.



<우무 샐러드> 재료: 우무 1컵, 오이 1개, 양파 1/2개, 빨간 무 1개, 사찰식 마요네즈 3큰술, 통깨, 겨자, 설탕, 죽염 약간

① 우무는 물을 충분히 빼 놓는다.
② 오이는 돌려 깎기 하고 양파와 빨간 무는 곱게 채 썬다.
③ 사찰식 마요네즈에 발효시킨 겨자를 섞어 매콤한 맛을 내준다.
④ 우무에 야채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준 후 통깨와 죽염 설탕으로 간을 해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시금치 경단콩국과 시금치 나물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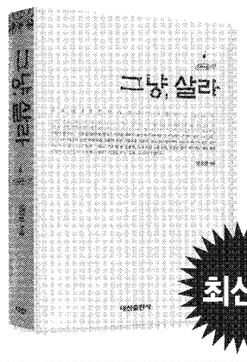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새

"봄이 그냥 오듯 꽃도 그냥 핀다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큰스님 44인이 들려주는 나를 깨우는 소리

법정 무비 성수 혜국 우룡 일오 원담 명정 인환 혜성 지종 대효 고산 지안 금산 대원 혜정 범룡 각성 정광 암도 지유 지관 수안 현산 혜남 명성 월운 고우 지옹 정천 묘엄 성타 묵산 월주 지환 천운 상륜 혜산 진철 혜거 정무 천룡 보성

장영섭 기자가 발로 뛰며 쓴 글은 불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 문외한이 읽어보아도 능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글을 통해 불교의 요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이한 장기자의 글을 읽다보면 어느새 불교의 전문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생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뇌와 번뇌를 날려버릴 지혜가 구절마다 들어 있어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원택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저자)



그냥, 살라

장영섭 지음/336쪽/15,000원

최신간

www.ssdp.co.kr TEL:(02)3443-7233~4 FAX:(02)3443-2683 대산출판사

발라드에서 합창곡까지

새로나온 음반 '4인4색'

장미꽃 향기에 자비와 지혜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는 선율들이 실려 온다. 보다 현대적인 차세대 찬불가에서부터 범능 스님이 전하는 서정적인 노랫말까지 '4인4색' 음반들이 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차세대 찬불가임을 선언한 '패랭이꽃과 나그네'는 연꽃의 소리와 풍경소리가 손을 잡고 발라드와 랩, 스님과 소녀의 듀엣 등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진다. 봉사단체 무량회(회장 박윤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음성포교를 발원하며 출반한 '연꽃향기 바람결에'는 옛 사찰을 주제로 국악과 양악의 만남이 이채롭다. 노래하는 포교사 범능 스님의 네 번째 앨범은 김용택 시인 등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감성적인 노랫말을 선보인다. '온 누리 자비 광명 찬불가요 제1집'은 민요풍 삼귀의로 색다른 시도를 했다.

다양한 가락과 악기로 특색 있는 음악을 선사하는 4장의 음반을 만나보자.



△ '패랭이꽃과 나그네' 연꽃의 소리

스님과 여대생의 '하모니'

순수하고 맑은 패랭이꽃은 수행하는 나그네 곁에서 화합과 행복을 노래한다. 수행자 지허 스님(천수사 주지)과 대학생 불자 강혜윤씨(고려대3)가 듀엣 음반 '패랭이꽃과 나그네'를 출시했다. 연꽃의 소리와 풍경소리가 손을 잡고 '차세대 찬불가'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첫 발이기도 하다. 이종만 실장(풍경소리)이 음악 총감독을 맡아 지난해 6월부터 기획해온 이번 음반에는 반영규 회장(불교음악협회)을 비롯한 작사가들과 박지열씨 등 작곡가들이 참여해 10곡의 노래를 수록했다.

'봄바람 꽃바람' '나그네' '패랭이꽃이 피었는데' '날마다 좋은 날' '연꽃이 피었어요' '중생의 마음' 등은 강혜윤씨와 지허 스님이 한 곡씩 번갈아 부르고 랩이 섞인 신세대풍 '행복'은 듀엣으로 불렀다. 지허 스님의 '우리말 반야심경'도 실려 찬불가임을 강조한다.

연꽃의 소리 박금표 대표는 "음악적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연꽃이 피었어요' '중생의 마음'이 가장 알리고 싶은 곡"이라고 밝혔다.

'패랭이꽃과 나그네'는 앨범 자체가 한 편의 예술작품이다. 재킷 사진은 김홍희와 일우집단이 맡아 예술성을 물씬 풍긴다. (02)723-9836, www.soundoflotus.com

△ '연꽃향기 바람결에' 무량회

고찰 역사 등 노래… '寺歌'로 보급

'앞산 뒷산 한 몸 이뤄 화엄꽃 만발하니 비바람 그친 곳에 님의 얼굴 해맑아라.' 법보사찰 해인사를 노래한 '전생부터 사랑했던 님'의 한 구절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해인삼매를 작시해 가락을 붙인 이 노래는 '연꽃향기 바람결에'에 실려 있다. 모두 13곡의 노래가 담긴 이 음반은 봉사단체 무량회(회장 박윤희)가 만들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음성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에 더 다가가자는 다짐에서다.

반야월 윤익삼 김주명씨 등 대중가요 작가사 3명 등을 비롯한 무량회 회원들이 작시한 작품에 곡을 붙였다. 노래는 박윤희 회장이, 작곡은 작곡가 이동훈씨가 맡았다. 이번 음반의 특징은 서곡을 제외한 곡들이 3보 사찰,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도량 등을 노래했다는 것이다.

무량회 박윤희 회장은 "경음악과 노래를 2장의 CD에 나눠 담았는데 불자들이 경음악을 틀어놓고 직접 노래하면 좋다"며 "앞으로 이 음반에 들어있는 통도사나 부석사 해인사 홍련암 보리암 등에서 원하시면 사가(寺歌)로 합창단이 부를 수 있도록 악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7일 10주년을 맞이하는 무량회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첫 음반에 이어 락 힙합 발라드 등 젊은이 풍의 노래를 담은 2집 앨범도 구상 중이다. (02)523-1942

△ '무소의 뿔처럼' 범능 스님

서정시와 만난 달콤한 선율

범능 스님의 새 앨범 '무소의 뿔처럼'이 나왔다. '흔들리며 피는 꽃' '인생' '무소의 뿔처럼' 등 12곡이 담긴 이번 앨범은 '오월의 꽃' '먼 산' '삼경에 피는 꽃'에 이은 네 번째 노래집이다. 김용택 도종환 시인 등의 시가 음률과 만나 범능 스님의 따스한 목소리로 불자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6월 3일 저녁 8시에는 '범능 스님 초여름음악회'를 화순 만연사(061-374-2112)에서 준비하고 있다. 고규태 시인의 사회로 진행될 음악회에는 김용택 도종환 시인과 가수 박문옥씨 등을 초대해 가야금 해금 대금 아쟁과 베이스 기타 등이 어우러지는 환상의 무대를 마련한다. www.blueum.pe.kr

△ '온누리 자비 광명 찬불가요 제1집'

민요풍 삼귀의…찬불가요 17곡 담아

민요풍 삼귀의로 시작해 석가모니 약사여래 등을 노래한 음반 '온누리 자비광명 찬불가요 제1집'이 나왔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바로 곧 법문이요, 발원인 찬불가요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주자, 제주불교법우회합창단 지휘자 등을 역임한 이용범씨가 작곡을 맡았다.

법훈 스님과 신경임씨가 작사하고 신경남씨가 노래한 찬불가요 1집은 이외에도 노승의 발원, 무량공덕, 관세음보살 등 17곡의 찬불가요가 담겼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구해 · 일운 스님 등 총출동

5월 31일 단오날 신촌 봉원사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이 벌어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종일 이어지는 영산재는 영산재 보유자 구해 스님을 비롯해, 일운 · 송강 · 기봉 · 원명 · 고산 · 효성 · 월타 · 법현 · 운봉 스님 등 영산재 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총 출동해 거룩한 의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영산재 시연은 시련을 시작으로 대련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식당작법 영산단권공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 소대봉송 등 13단계로 진행된다. (02)392-3234, www.bongwonsa.or.kr

이홍자 개인展, 불일미술관



이홍자씨의 그림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다.

"2004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평생 마음의 의지처였던 어머니. 10번의 천도재를 지냈다. 그때서야 난 붓을 잡을 수 있었다."

서양화가 이홍자씨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5월 31일~6월 9일 열린다.

마치 아이가 그린 듯 단순한 선과 화사한 색상들은 이홍자씨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적 표현이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사물의 본성만을 표현하고 했던 작가의 고백은 나무와 스님, 꽃밭에 늘어선 고무신들로 형상화 된다.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연꽃과 코끼리, 여러 지물을 든 관음보살 등을 그림 속에서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02)733-5316

강지연 기자

BBS, 몽골에 도서 1500여 권 기증

불교방송(사장 이성언)이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과 함께 몽골 고려사에 도서를 기증한다. 해외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문서포교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를 위해 불교방송은 불교서적을 비롯한 교양 문학 아동 등 1500여 권의 다양한 서적을 각 출판사의 협찬을 받아 모았다. 5월 10일 발송을 마친 기증도서는 6월 10일 몽골의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맞춰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고려사에 기증될 예정이다.

불교방송과 대한불교진흥원은 매년 스리랑카 네팔 등 불교국가를 대상으로 문서포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부처님 품이라 더욱 신나요



불교방송 '가요스케치' 진행 양혜승

"부처님 품이라서 그런가요? 불교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이 너무 편안해요."

불교집안에서 자랐다는 가수 양혜승씨가 불교방송에서 주말 아침 프로그램 '양혜승의 가요스케치'(토 · 일 07:05)를 맡은 지 한달이 됐다.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아침 프로니까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서 우렁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나는 노래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교방송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한 선배의 권유에서 시작됐다.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저 불교방송이라기에 향수에 이끌리듯 단번에 허락했다. 방송국에 와서 지나가는 스님 승복 끌자락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양혜승씨. DJ를 하면서 새 지식들이 쌓이는 것이 행복하다.

"스님, 염불소리, 향내음을 접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양혜승씨는 자주 봉은사를 찾아 마음을 다스린다.

사람과 삶의 얘기를 신나게 풀어나가는 '양혜승의 가요스케치'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노래와 얘기로 신나는 주말 '책임'
"스님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강지연 기자

"효과적 편성 없었다"

보리, 봉축 프로그램 모니터

(사)보리가 2006 봉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2006년 봉축 프로그램은 내용이 세련되어지고 군더더기가 없어진 대신 효과적인 편성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며 "지상파를 통해 방송된 불교관련 프로그램이 총 15편에 불과해 지난해 25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올해 방송된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6편, 드라마 2편, 시사교양 2편, 영화 2편, 행사보도 2편으로 다큐멘터리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정규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날 관련에 치우쳐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거의 다루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보리는 이번 봉축 프로그램 가운데 KBS스페셜 '선 이야기'를 수작으로 꼽았다. 1년여에 걸친 제작기간과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이용해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 특히 고승의 수행담이나 법문을 통하지 않고 간화선을 직접 탐구하는 방식의 정공법을 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지난해에 비해 프로그램의 질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 (사)보리의 평가다. 이와 함께 올해 대부분의 봉축 프로그램이 심야시간대에 방송되는 등 시청이 쉽지 않았던 만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대언론 정책을 펴 시청가능한 시간대 편성 요청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죽고 사는 걸 다 놓는다면 욕심도 아무것도 붙지 않아!

부처의 길이 너무 멀기만 해요

문 수행자라면 누구나 부처가 되기를 소망하고 부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과 모습과는 너무나 멀고 보잘것없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세계란 중생은 어쩌면 도달하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십시오.

답 부처님의 그 몸체와 우리의 중생의 몸체가 다르다 할지언정 어찌 다르겠습니까? 눈도 갈고 귀도 갈고 코도 갈고 몸체도 갈고 발도 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딛는 사람의 발, '요건 원망스러우니까 내가 쫓아낸다. 요거는 잘해 주었으니까 내 고맙다고 쫓아간다.' 이렇게 갈라서, 조각조각 갈라서 걸음 걷는 중생들의 마음과 그 발과, 옳다 그르다 하기 이전에 아주 평상심으로써 걷는, 부처님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자비심에서 걷는 발과는 뜻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생김생김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계신 데 중생이 있고 중생 있는 데 부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한 개별적인 몸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마음이 부처니, 바로 그 육신은 중생이니 중생 있는 데 부처가 있고 부처 있는 데 중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부처라면 그 육신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자기 부처가 자기 중생을 그렇게 헐뜯고 나쁘게, 자기 마음을 나쁘게 둔다면 자기 육신의 중생도 그렇게 나쁘게 돌아가니 어찌 고생을 시키지 않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 중생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바에야 딴 사람의 이익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의 중생들도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남을 원망치 않고, 또 조상을 원망을 안 하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걸로 전체 일체를 돌린다면 아마도 그것은 견성하고 성불하기는 아주 십중팔구 좋은 일이지요.

부처님의 경을 위로 꿰고 아래로 꿰고 옆으로 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지 못한다면, 그 팔만대장경을 위로 꿰고 바로 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저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생활을 지금 하면서도 그 생활 속에서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러는데, 그 문제점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봅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있는 데 부처님은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 내기 이전 본래면목에, 그 실상에게 자기는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까 당신에게 일임합니다.' 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당신이 형성시켜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하고 놔 버리는 그런 자세. 꺼내 쓰고 부어도 부은 사이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처로 알고 항상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일일이 일체 만법을 지켜볼 수 있게 모두를 규합해서 해 나간다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가고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울던 것도 웃게 되고 만약에 운다 할지라도 그건 값비싼 눈물이 될 것이고 값비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즐거움도 거기서 아마 샘솟듯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불당에 가면 아무것도 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 그것도 바로 자기가 거기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부처님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서 참, 어떻게 '내 집도 여래의 집이요, 이 도량의 이 부처님 자리도 바로 여래의 집이니 이 집을 운영하려면 내가 해야 할 테니까, 그저 초하루 보름 내가 다만 얼마라도 단돈 만원이라도 올려야겠다. 이게 바로 남의 집이 아니라 바로 내 부처님의 집이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법당입니다. 또 자기네 집도 법당인 것입니다. 어디든 법당 아닌 데가 하나도 없고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이건 부처가 아니고 이건 등상이야.' 이렇게 등상불로 따져서도 아니 됩니다. 그 역시도 또한 나의 몸과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주를 싸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서리고 있는 이상 어찌 그것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불당에 들어가면 불당에 들어가는 대로 마음이 엄숙해야 하고, 내가 혼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변소에 가서 볼 일을 볼 때도 엄숙해야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재빨리 "하하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좋아도 스무드 하게, 아주 언짢아도 부드럽게 지켜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자비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 최주현

본래부터 부처님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기고부터 부처님이 생겼다

평상심에 대해서

문 중국 당나라의 선승 조주 스님께서 남전 스님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상심이야 말로 도를 이루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스님께서는 평상심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답 옛날에 선지식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뇌성벽력을 한들 어찌 발걸음을 막 떼어 놓느냐.' 즉 말하자면 뛰느냐 이겁니다. 뛸 게 뭐 있어서 뛰느냐 이겁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지켜보면서 한 발짝 두 발짝 떼어 놔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10리, 20리 걷기는 우습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라 풀섶으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내 생명과 같이 아끼기 때문에 버러지 하나라도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짚신짝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천천히 걸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경망스럽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만약에 그것을 제한 못한다면 경망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죽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경망하면 그것 또한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죽인다 하고 칼을 들었을 때도 경망스러우면 그 칼에 찔릴 것이고 경망스럽지 않다면 그 칼에 찔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겨도 한번 안으로 굴려서 낼 때에, 그렇게 심중 깊이 내가 안으로 한번 굴려서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만 급한 일에도 급한 일이 아니게 수습이 된다 이겁니다. 함부로 자기가 건지지 못할 말 한 마디를 하지 말라이겁니다. 이것이 다 부처님의 법이지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온 누리에 그 한마음으로 싸고 도는 평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이것도 평상심이라는 그 자체가 무지하게 큰 말입니다. 평상심이라는 이 말 자체 한마디가 전체 우주를 싼 한마디입니다. 반야바라밀다도 없는 바로 그것을 축소한 것이 바로 평상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도 평상심의 보시라고 하는 것도 전체를 싼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라는 그 말에서 '밀다심' 하는 것도 그것도 보시라고 한마디로 규정을 지어도 좋습니다. 이 보시라는 이 자체 한마디가 너무나 크고 큰 뜻이며 아주 작다고 하면 그렇게 사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하시기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아주 이 세상을 타도한 사람 앞에는 불이법문을 해 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에 맞춰 법문을 해 주셨으니 이 뜻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자비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평상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는 그 평상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있었지만 그분이 발견하셔서 여러분 앞에 펼치신 그 팔만 사천 법문이 다, 한마디로 규정해서 '나는 한마디도 안 했노라.' 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평상심인 것입니다. 낮은 데는 낮은 대로 같이 하나가 되어 주시고 벌레가 보일 때는 벌레로 되어 주시고 높은 데는 높은 대로 하나가 되어 주시고 근기가 높아서 불이법문을 할 때는 같이 또 하나가 되어 주시고 이러니, 자기 아님이 하나도 없이 될 때 비로소 얼마나 그것이 자비며 평상심입니까?

진실하지 않은 눈물만을 흘려 본 사람은 그 진실함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눈물을 흘렸든 진실하지 않게 눈물을 흘렸든 과학적으로나 뭘로 볼 때 눈물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 눈물 자체는 똑같지마는 그 뜻은 다 다른 것입니다. '난 당신한테 가오리다.' 그렇게 했지만 당신한테 갈 것도 없고 또 올 것도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저 묵묵히 그냥 한 방울 눈물을 주르르 흘리곤 했지요.

나는 물을 쳐다보고 탄식한 일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을 친견하고 그랬을 때, 주로 많이 친견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학문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 학문이 그리웠습니다. 나이 스물이 좀 넘어서 많은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탄식할 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고비가 없으면서도 넘어가는 고비가 얼마나 많았던지, 층층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평등하면서도 그 층층대가 너무나 많았던 것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층층대가 많았던 것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것도 없건만 인간의 그 살림살이는 올라가야만 했고 또 내려와야만 했고, 내려오면 사양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 문제점들 말입니다.

그러나 사양 받을 것도 없고 사양 안 받을 것도 없는 이 시점에서 오늘이 영원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자기 속에 자기가 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신입하고 안다면 그것이 바로, 나물 삶아 먹고 물 마시는 대장부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도 거기에는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또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간도 못하고 살아나가는 이 발걸음 걸음걸이, 이 길….

그러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층층대든 층층대가 아니든 그것을 논하지 않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서, 그 층층대가 산더미 같든 수미산 같든 그것을 마다 안 하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으로 지어서 층층대가 있고 그런 것이지, 수미산도 없는 것이고 수미산 아닌 것도 없습니다. 평정한 길을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떳떳하게 우리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그림 · 최주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문 스님, 나라고 하는 틀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나 이론이 아닌 진짜 실천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은 왜 자기를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태어나고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고통을 얼마나 받고 나오고 고통을 얼마나 받고 죽는가. 그런데 주인공에 생사를 다, 죽고 사는 걸 다 놓는다면 욕심도 아무것도 생기질 않아요. '나'라는 조건, 아집 하나만 버리면, 죽고 사는 생사만 버린다면 아무것도, 욕심도 붙을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나무 한 그루, 또는 저런 산천초목들을 모두 보세요. 그리고 시장에도 가 보시고요. 세상 살아나가는 그 도리를 가만히 본다면,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대로 모여서 사는 천차만별의 진리이며 세상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답답답답 외우기 이전에 세상을 바로 보라 이겁니다.

자가발전소는 골 필요도 없고 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발전소는 항상 전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자가발전소는 꺼지거나 켜진다는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 용광로에 넣어져서 재생되어 나온 여러분에게는 바로 광력과 전력과 통신력과 자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으로써 항상 오고 감이 없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력이 없다면 발을 붙이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전력이 없다면 통신도 되지 않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도 할 수 없어요. 광력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밝음도 오질 않아요. 그리고 진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통신력이 없다면 빛보다 더 빨리 오고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 모두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났다 하더라도 다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습니다. 광력이 있고 자력이 있고 전력이 있고 통신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내 마음에 의해서 한 마음으로 따라 준다는 얘깁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고, 안 된다는 마음을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고, 모든 일체 괴로움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면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계합이 돼 가지고선 돌아가 주니까 병도 나아서 튼튼하게 되고 가난과 우환 질병, 이런 모든 것이 해소가 됨으로써 오간지옥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간지옥이라면 모든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내 괴로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짐으로써 지옥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 조상이 잘못돼서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법의 조상이나 부처님의 조상이나 우리 육의 조상이나 둘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자식들

☞30면으로 계속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일체를 돌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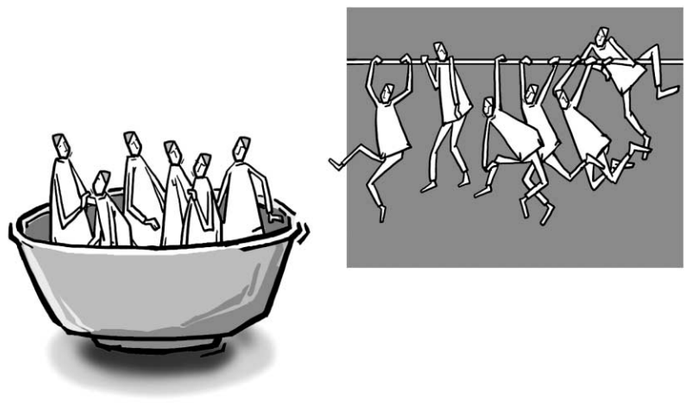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을 위할 때에는 자기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지극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우리 육의 부모들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둘이 아니라 하며 자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산을 하게 되면 육의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들을 왜 등한시하느냐. 세간에서는 품안에 있는 자기 자식들만 자식인 줄 알고 자비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의 부모, 부처님께서는 항시 한발 내려딛고 겸손하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깨달은 분들은 다 부처님이죠. 천백억화신으로서, 삼십이응신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꿔가며, 병자에게는 바로 약사보살이 돼서 나투면서 보호하고, 가난한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돼서 보호하고, 좋은 데를 못 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장이 돼서 보호하고, 어디 길을 가다 잘못되는 사람에게는 수호신이 돼서 보호하고, 가지각색으로 수없이 나투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십니다.

이 말을 재차 재차 수백 번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천을 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더 큰 소리를 해도, 더 많은 소리를 해도, 더 광대무변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에 내가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게 되면 나를 버리고 들이 아닌 뜻을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생각 내면 그대로 건지는 겁니다. 누가 꼭 내래서 내는 게 아니라 보면 스스로 나고, 들으면 스스로 마음이 생기고 이렇하는 것이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마음공부와의 인연에 대해서

문 나무는 흙에 가려서 제 뿌리를 못 보지만 뿌리가 본래 있기에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된다고 하시는 스님의 말씀을 따라 저도 그렇게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쉬우면서도 확고한 스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 나가다가도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다거나 뚜렷한 수행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이 마음 법을 떠나서 체계를 세워 공부를 하거나 몸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 나가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이,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인연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겁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참, 스님네들을 이끌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도 어렵고, 또 신도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한 바로 봐서는 미처 그런 것을 생각 못하고 아주, 너를 죽여야 너를 본다고 했기에 그것만 귀중하게 생각을 했더니, 오늘날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도, 이거는 같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과 같이 그것이 죽어지지 않는다는 그 점, 또는 내가 산다 죽는다도 없이 같이 돌아가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산다 이것도 없이 우리는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복을 짓기도 하고 공덕을 쌓기도 하고 공덕을 감하기도 하고 복을 감하기도 하는 이런 살림살이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시점의 오늘이 바로 화엄도리면서 그것이 평삼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할 것도 없지마는 내가 어떤 때는 한탄이 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처 몰랐던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더욱 더욱 느끼면서 '참 광대무변하구나! 우리가 자신들이 모두 살아나가면서 느끼는 이 광대무변한 법을 어찌 부처님께서 말로 다하셨으랴!' 아마 그 팔만대장경을 설하실 때, 그것을 다 해 놓았다고 하지마는 그것도 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 하루도 변함없이 돌아가는 이치를 어떻게 팔만대장경으로 다 썼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 말했겠습니까? 사람이 배운 것 안 배운 것, 나는 모른다 나는 안다, '난 이만하면 됐어. 이게 뭐 세상 돌아가는 거라는데.' 하고 이렇게만 알고 거기에 멈춰 버린다면 어찌 그 사사건건이 돌아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각해서 다 원만히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벌어지는 원인이, "어째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이런 것을 다 제껴 놓고 주인공이 뭐 말라빠진 주인공이며, 또는 이 심주(心柱)가 뭐 말라빠진 거냐? 이런 걸로 성스러운 부처님의 성어를 그렇게 묵살하고, 그게 외도가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탱화나 다른 부처님을 다 앗아 버리고 부처님 한 분만 남겨 놓는 그런 외도의 짓을 하느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나는 이것도 저것도 감지할 수가 없으니깐 떠나겠습니다." 하는 거죠.

비교하자면, 옛날에 어느 선사가 수좌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러 어느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깐 수백 명이 쫓아 올라왔답니다. 그 스님을 따라서. 참 그 스님이 존경할 분이고 각을 이룬 분이니까 내가 쫓아가야겠다 하고 쫓아 나서기는 했는데, 가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더니 "얘야, 공부하는 대중들이 다 쇠약해졌어. 그러니 큰 개를 하나 그슬려서 큰 가마솥에 솥을 걸고서 푹 고아서 한 그릇씩 줘야 먹고 기운을 차려서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개를 한 마리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그 대중들이, 공부하러 올라왔던 스님들이 수근수근 수군수군, 여기서 수근 저기서 수군거리니 '저렇게 하는 중이 저게 중이냐' 하면서, 저건 외도라고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대여섯 명만 남으니깐 서로 쳐다보고 껄껄 웃으면서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 했구나.' 하면서 그저 같이들 그분네들끼리만 공부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진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그 태어난 자체가 화두며 그 태어난 자체가 원인이 되고 그 원인으로 하여금 부처가 있다는 것을 참 그렇게 지켜볼 수 있다면…. 나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우거지 죽을 먹든지 물 마시고 편안하게 눕고 편안하게 똥 누고, 이렇게 편안하다면 바로 이만하면 만족한 것을 가지고 수차에 걸리면서 돌아치는 그 원망증으로, 또는 누구로 인해서 나는 공부를 못했고 누구로 인해서 살지 못했고 누구로 인해서 떨어졌고 누구로 인해서 망했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돈을 잃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같이 걷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가다가 그 길에 멈춰지고 떨어지고 좌천되고 올라가고, 그건 한계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가고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큰 나무는 이파리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체도 없고 떨어진 사이도 없이 생각하고, 가지가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뿌리가 들썩거릴 리는 없습니다. 그 가지는, 그 나무의 가지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만의 그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가지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파리고요. 그래서 이파리가 없어도 아니 되고 꽃이 없어도 아니 되고 열매가 없어도 아니 되나 그런 문제 또한 역시 그것은 나무의 뿌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라는 것은, 전체의 우주를 싼 뿌리는 아마도 우리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멸망치 않을 겁니다. 불법이 쇠퇴해지고 불법이 망가진다고 이렇게 말들 하지만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무생이라도 있다 하면 바로 유생이 될 것이고 유생이 있다 하면 부처님이 나툰다고 하실 것입니다.

본래부터 부처님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생기고부터 부처님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자리가 따로 있고 우리들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의 저 언덕이 따로 있고 살아 있는 이 언덕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르니까 비교해서 언덕이 있다고 '언덕을 넘어서라, 넘어서라.' 피안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건만 피안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가 없는 마음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차이로 말미암아 언덕을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알아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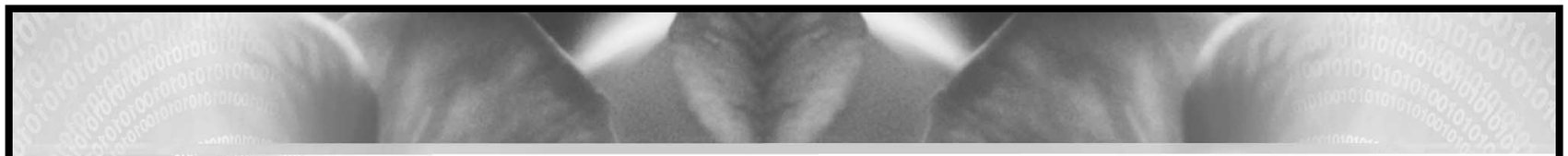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말고
떳떳하게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불교 교리와 신행 생활에 대한 눈높이 상담!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한 길라잡이!

오전 10시 5분, BBS 신행상담실

월요일-현각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화,수요일-선암스님(강화 적석사 주지)
목,금요일-성정스님(여주 보륜사 주지)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현각스님 선암스님 성정스님

부산 89.9 Mhz/광주 89.7 Mhz/청주 96.7 Mhz/춘천 100.1 Mhz/안동97.7 Mhz /포항 105.5 Mhz

성 내지 않겠습니다 (하)

박현이 (대전시 대덕구 법1동)



그림 · 문병성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아침기도를 두라'는 스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새겼지만, 게으름에 건성으로 실행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기도는 놓치지 않으려 했고, 100일마다 있는 입제식에도 꼬박꼬박 참석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공부하던 절에서 진행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삼칠기도를 다녀오는 등 늘 밖으로만 향하던 눈을 자기 안으로 돌려보는 데 마음을 써 주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마음을 내주면 오히려 쉽게 좋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였을까요. 변화는 훨씬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둘 다 불제자가 아닌 게 낫지, 이건 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은 넓기만 했습니다.

작년 봄, 남편은 기도를 하고 싶다며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인연있는 절에 삼칠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다들 머리 깎고 절로 가는 것 아니냐며 걱정을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공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나는 남편의 결정에 흔쾌히 기뻐했습니다.

나는 남편은 초파일을 지나 회향을 해서 내려왔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채 생활하는 남편을 보며 또 화가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러 떠나는 남편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척 했지만, 내심으로는 문제 많은 남편이 변하면 내 생활이 한 단계 편해지리라는 또 한번의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정말 없구나, 상대방을 바꿔서 내가 편해지려는 어리석음을 부처님은 아셨구나' 싶었습니다.

다니고 있는 절에는 온 가족이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보살님이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북한동포를 위한 1000배 참회기도 정진을 하는데, 쉬는 토요일이라 거사님도 함께 나와 정진을 하시고는, 아침 공양 중에 나누는 한 이야기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젊은 보살들이 남편과의 이러저러한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밥상 앞에 계시던 그 보살님이 지나가듯 툭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는 것도 다 기운 있어서 그래. 나이 들면 힘들어서 못해~. 상대에게 일일이 맞서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인데…."

아! 그랬구나. '내가 왜 이리 사는 것에 힘이 드는지'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일에,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일일이 맞서며 내 의견과 주장을 표현하고, 또 그것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마땅해 하니 어찌 힘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내 고집 부리며 사는 게 나를 들볶고 있음을 모른 채, 그저 입으로만 '물 흐르듯 수순하며 사는 삶'을 바랐던 것이지요.

나는 변하지 않은채 남편 변화만 바랐으니 얼마나 괴로웠는가… '나' 버리니 편해져

나는 요즘에서야 부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금강경>이며, 아침마다 읽었던 수행문이 이제야 눈에,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스님은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이해하지 않는 것도 다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다. 남이 나를 이해 해 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내가 남을 이해하는 100일로 삼아보자.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얘기가 실천하기는 왜 그리 어려웠던지.

아마도 사실은 이랬을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무조건 남을 이해하라는 것도 아니요, 무조건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쉬운 얘기를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자주 넘어지고 걸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과 행동에 나 역시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또 습관적으로 침묵의 싸움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삐치는 주기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한 보름씩 말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내던 게, 요즈음엔 간밤에 다투거나 혼자 마음이 상했다가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상냥하게 말 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34개월이 된 아이가 가끔, 아빠에게 틱틱 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겠으나, 나는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이와 남편에게 잊지 않고 참회하려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어리석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참 답답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밉고 원망스럽던 남편도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지난 겨울의 추위가 아직 남아있어 땅위에서는 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도, 땅 속에서는 이미 환한 봄을 틔울 싹들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기에 괴로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 기쁩니다.

남편은 요즘 첫사랑과 진하게 문자메시지도 주고받고, 또 자기와 말이 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어떤 여인과 전화도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습기도 하다가, 금세 화가 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곰곰 돌이켜 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잔소리 하지 않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랬을까. 아내라고 있는 사람이 얼굴만 보면 잔소리 하고, 문제 지적하고, 바깥일 힘들게 하고 돌아와 월급 타다 주어도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와~, 내가 이렇게나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던가. 죽네 사네, 이혼을 하네 마네까지는 아니더라도 닦달을 하고, 다짐을 받아도 시원찮아 했을 터인데 이 수준까지? 상대를 이해하면 내가 시원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답답하다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었구나, 상대방 좋으라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괴롭지 말라고 얘기해 주신 거였구나. 나는 그렇게 철저히 이기적이지 못해서 그동안 헤맸던 거구나' 싶어집니다.

불법은 철저히 자기를 향해야지, 타인을 향해 겨눌 때 무기가 된다는 말씀, 내가 '업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사람을,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만 해도 인관관계가 훨씬 수월하고 자유로워진다는 스님의 말씀이 참으로 와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불법을 만나, 얼마나 자주, 여러 사람에게, 세상일에 무기삼아 들이댔던지. 이게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내 맘대로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나의 습관과 행과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바깥을 재단하고 고치는 도구로 썼던 부처님의 법을, 이제는 나에게로 자꾸 향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법을 또 하나의 '콘택트 렌즈'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살펴보려 합니다. 렌즈의 부드러운 착용감 때문에, '내가 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불법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나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들이대지' 않도록 잘 살피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사찰명 : 창녕군 약수암
- 주 지 : 증관(안상호)
- 주 소 :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산 38-2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감로사
- 주 지 : 석혜명(박영근)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62-3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공교로움’으로 이룬 청정한 자비

불화 속의 명장면 (9)

日 교토 천옥박고관 소장 ‘수월관음도’ (상)



日 교토 천옥박고관(泉屋博古館) 소장 서구방필(徐九方筆) ‘수월관음도’(1323년, 충숙왕10년).

밤에 뒷산에 올랐습니다. 네온사인 현란한 도시의 밤이 발치 아래로 멀어져간 이후에야 달빛의 은은한 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의 소음이 아득히 사라진 뒤에야 달빛의 온화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린 듯 푸른 달은 계속 나를 따라옵니다. 그 달빛으로 숲 속 짙푸른 그림자의 환영이 만들어지고, 어느덧 ‘청정(淸淨)한 달빛 세상’ 속입니다.

고려시대를 풍미한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는, ‘수월(水月)’이라는 그 서정적 정취 넘치는 명칭에 걸맞는 그윽한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고려 수월관음상은 풍만한 자태와 원만한 상호, 몸 전체를 덮어 흐르는 사라(紗羅, 극히 얇아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숄), 지극히 공교로운 영락 장식과 섬려한 천의 문양, 금니(金泥)와 녹청으로 채색된 기괴한 암석대좌 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물론 가장 큰 특징은 관음보살 전신을 감싸는 보름달과 같이 둥근 신광(身光)입니다.

이 커다란 원광(圓光)과 더불어, 어두운 밤하늘의 배경에서 만월(滿月)이 떠오르듯, 청정하고 온화한 자비(慈悲)의 빛을 은은히 비추며 수월관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약 170점 집계) 중 약 75%의 점유율로 그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는 불화 주제는 아미타여래관련 작품(약 40%)과 수월관음도(약 3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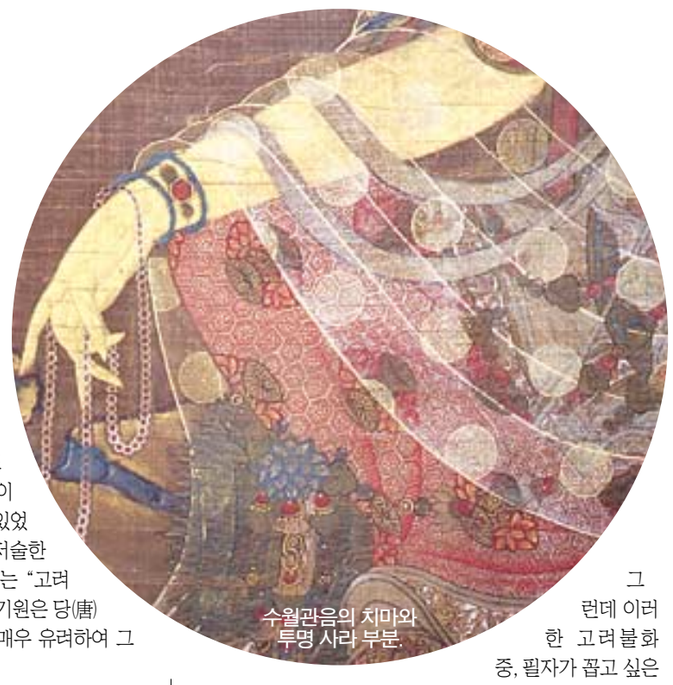
단독 장르로 치자면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이 이 수월관음도이기에, 보통 ‘고려불화’라고 지칭할 경우 바로 이 ‘수월관음’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불화 장르는 그 막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상기 언급한 회화적 특징이 정형화되어 매너리즘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낳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불화의 한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고정된 형식을 답습하는 경향에서, 그만큼 불화의 전통적 의궤가 엄격했으며 또 고려시대의 귀족불교가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형화되어 유존하는 수많은 수월관음도 중에는, 화폭이 4m가 넘는 기념비적인 초대형 경신사(鏡神社)소장 수월관음도, 용왕과 용녀가 등장하는 다이내믹한 바다 풍경이 펼쳐지는 대덕사(大德寺)소장 수월관음도 등 활달한 개성 넘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관음의 깊은 선정적 정취가 그윽하게 풍기는 작품으로는, 이 천옥박고관(泉屋博古館, 센오쿠하코우칸)소장 서구방필(徐九方筆) ‘수월관음도’(1323년, 충숙왕10년)가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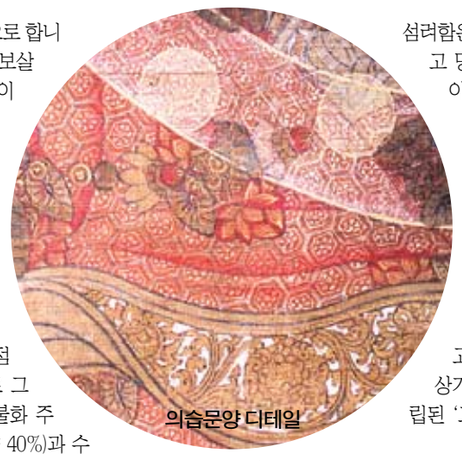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는 ‘신묘(神妙)의 경지’라 칭송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독자적인 고도의 ‘장인적 공교성(工巧性)’으로 이미 당시에 국제적인 정평을 얻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탕후(湯厚)가 저술한 ‘고금화감(古今畵鑑):외국화편’에는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롭다. 그 기원은 당(唐) 위지을승에 두고 있지만, 필치가 매우 유려하여 그 섬려함은 극에 달했다(필자 의역)”라고 명기되어, 고려 수월관음의 하이테크 화법은 중국 본토에서도 그 유명세를 떨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월관음의 그 시원적 형식은 당(唐)대 수월관음도 등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만, 수월관음의 연원을 논할 때 단골로 언급되는 일련의 이들 돈황 출토 작품들은 매우 고졸한 필치이고 작품 크기 또한 현저히 작아, 상기와 같은 독자적 양식으로 정립된 ‘고려 수월관음도’와는 그 화질과 품격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수월관음의 치마와 투명 사라 부분.

전신 감싸는 보름달같은 청정하고 온화한 신광 압권

정형화된 형식은 고려시대 귀족 불교의 보수화 입증



의습문양 디테일

세밀한 철선묘로 그려진 다양하고 정교한 문양(보상화문, 국화문, 당초문, 구갑문 등)이 가득 수놓아진 얇은 옷이 몇 겹씩 겹쳐 지극히 복잡한 구성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문양의 층만과 중첩되어 비치는 천의 레이어에서 생기는 난해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들이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보통 고려 불화는 국제적으로도 극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화려하나 넘치지 않는 옷 처리로 존상 신비로움 더해

정토와 禪적 특징이 만나 ‘기교 넘어선 기교’ 구현



의습문양 디테일

그런데 이러한 고려불화 중, 필자가 꼽고 싶은 몇몇 수작 중의 수작은(여기서 소개하는 서구방필 수월관음도를 포함해 교토 선림사 소장 아미타여래도 등) 이러한 화려한 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남발하지 않고 여래 또는 보살의 옷에만 집중 절제하여, 이 정치(精緻)성을 존상의 신비성을 고양시키는 요소로 일조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즉, ‘고도의 공교로움’과 ‘깊은 적멸(寂滅)’이 만나도록, 일명 ‘종교와 예술’이 만나는 ‘종교화’로서 힘겨운 사명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정토교(淨土敎)적 미술의 특징과 명상적 선(禪)적 정취는 상반되는 특질로 여기기 쉽지만, 여기서는 이 양자의 극치가 서로 만나 유심정토(唯心淨土)적 청정미(淸淨美)를 신묘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경지를 두고 ‘기교를 넘어선 기교(無技巧之技巧)’ ‘도가 아닌 도(道可道非常道)’ ‘행위가 없는 행위(爲亡爲)’라고하나 봅니다.

‘지극한 아름다움의 성취는 그 궁극의 종교적 상징성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디트리히 제켈(독일의 저명 불교미술사학자)의 말은 이 작품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게라두스 반 데르 레우후는 ‘아름다움(美)이 우리를 성(聖)스러움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수월관음도를 통해 뜨거운 번뇌를 식혀주는 ‘청정한 달빛 자비(慈悲)의 세계’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수월관음도는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 즉 선재동자의 53(또는 54)선지식의 편력 중 28번째인 보타라카 산정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과의 대면하는 장면에 그 도상학적 연원을 두고 있다고 관습적으로 말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계속)

강소연(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